

인제문화

2021 | 제36집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에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인제문화원장 이만철

인제는 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제가 인제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장면이지요. 인제의 산과 강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어때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모두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를 가꿀 줄도 알고요. 또 하나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면은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우리 인제만의 모습입니다. 참 멋진 풍경이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 사람들은 언제나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순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런 마음의 준비는 감성에 있다고 봅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성에너지의 폭발이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장면마다 연출할 감성,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감성, 이웃을 도와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감성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절대 선을 베풀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마음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인제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인제문화』에도 그런 아름다운면만 실렸습니다. 이것이 곧 인제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평소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성에너지가 작용하여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번에 벌써 『인제문화』는 36번째가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려운 시기였습시다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문화』는 인제사람들이 느낀 아름다운 감성에너지가 쌓여 이룩한 것이지요. 그 때문에 공감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름다운 인제사람들의 감성에너지를 듬뿍 담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 및 자료수집에는 작가의 노고와 진정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를 편집한 실무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한 번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애쓴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인제문화원은 앞으로도 인제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인제문화』가 곧 인제사람들의 마음이고, 인제사람들의 역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제사람들의 끝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정기 이사회의



세종어제훈민정음 기증식



제31회 강원도 향토논문 발표대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참가(한국무용)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참가(댄스스포츠)



목공예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장릉 속 옛 사진전 개최



어르신문화 프로그램(목공예)



예절문화 교육사업(한복입기)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한복입기, 다식만들기체험)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전통혼례)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2021강원문화대축전



2021 강원문화대축전 목공예작품전시



문화유적지 탐방(고성)



문화공연(경로당 자원봉사자)



문화공연(6.25참전전우회, 경로당 자원봉사자)



문화공연(노인대학, 노인대학원)



문화공연(농업인의 날_인제문화원 라인댄스 교실)



문화공연(농업인의 날_인제문화원 우크렐레 교실)



인제어울림국악한마당 공연



용대초등학교 국악소풍 가는 날 공연



문화학교_노래교실



문화학교_다도



문화학교_라인댄스



문화학교_우크렐레



문화학교_전통연희



문화학교_한국무용



문화학교_한글서예



문화학교_한문서예



문화학교_합창단



문화사랑방_댄스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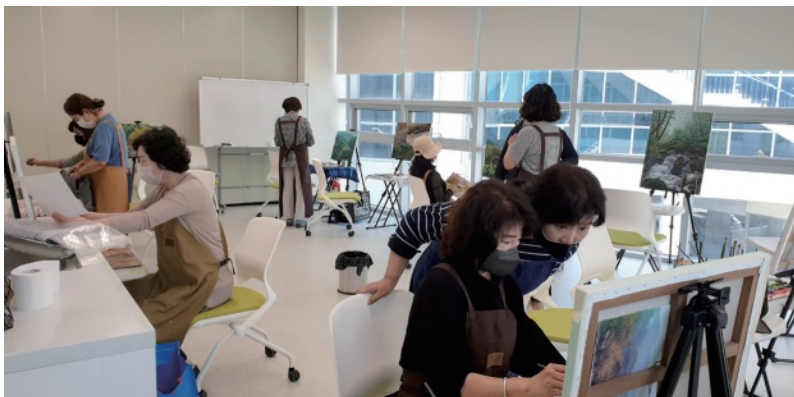
문화사랑방_뗏목아리랑



문화사랑방_민요



문화사랑방_색소폰



문화사랑방_서양화



문화사랑방_수묵화



문화사랑방_실버기타



찾아가는 문화학교_아코디언



찾아가는 문화학교_상남댄스스포츠



찾아가는 문화학교_라인댄스



찾아가는 문화학교_목공예



문화학교 요가



찾아가는 문화학교_통기타

차례 Contents

- 발간사
- 2021 문화사업

제1장 특집

- 6·25전쟁과 박인환의 문학 _ 손흥기 26

제2장 향토사

- 인제군의 효열 _ 이학주 46
- 所冬羅嶺과 五色嶺 位置 比定 研究 _ 한승윤 64

제3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 고은조 _ 깊어가는 가을날 · 94 / 봄비 · 95 / 자작나무 숲 · 96
찬서리 내리고 · 98 / 햇살 화사한 날 되어라 · 99
- 권순덕 _ 슬픔 · 100 / 상징의 힘 · 101 / 미련 · 102 /
꽃비 내리는 날 · 103 / 기다림은 더 큰 사랑이라고 · 105

- 김규중 _ 자전거 라이딩 · 106
- 김상호 _ 인제 찬가 · 108 / 가슴 뛰는 삶 · 110 / 겨울에는 · 111 /
찬바람 그리고 단풍 · 112 / 情 · 113
- 김영관 _ 할아버지 지팡이 · 114 / 할아버지와 손자 · 115
새싹 · 116 / 달님 · 117
- 박돈녀 _ 5월 · 118 / 고향집 · 119 / 남편 · 120 / 밭을 일구다 · 121
우산 · 122
- 박영식 _ 막걸리 한잔 · 123 / 고등어의 아내 · 124
- 박은덕 _ 상동리 공원은 언제나 천국 · 125
- 원영애 _ 공동묘지 · 126 / 버린 것 · 127 / 가을꽃 · 128
나는 누구 · 129 / 가슴에 피는 꽃 · 130 / 세상은 · 131
- 장순엽 _ 하얀 공기돌 · 132 / 무서리 · 133 / 대보름 · 134
- 전영숙 _ 별빛 · 135 / 보슬비 · 136 / 추억 · 137 / 꽃비 · 138
- 정순덕 _ 가을은 큰 나무에서 온다 · 139 / 그 여름밤 · 140
자작나무 숲으로 오세요 · 142 / 틈새 · 143
- 허계홍 _ 가을연가 · 144 / 그리움이다 · 145 /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 146

산문 /

- 권순덕 _ 해질무렵 · 147
- 박돈녀 _ 산사에 핀 들꽃 · 150
- 박은덕 _ 간병을 하다 · 153
- 원영애 _ 마장터 다녀오며 · 155
- 원종문 _ 어머니와 찰옥수수 · 158
- 정순덕 _ 나도 미국에 가 봤다? · 163
- 한명숙 _ 노을을 사랑하자 · 166 / 내 티눈 가져가라 · 169
- 한용운 _ 낙엽의 想念 · 172 / 원앙지계 · 176

제4장 기고문

- 라뎐말이야, 학교는 _ 최광윤 182

제5장 백일장 입상작품

- 제20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190
- 제27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학생부 226
- 제27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일반부 253

제6장 임서전

- 제25회 인제서회임서전 282

- 임원현황 304
- 직원현황 304
- 원고모집 305



6·25 전쟁과 박인환의 문학

손흥기

제 I 장

기획특집

6·25 전쟁과 박인환의 문학

손 흥 기* 문학평론가, 인제문화원 이사



목차

- ❶ 전쟁의 가족사적 체험과 비극적 현실 인식
- ❷ 전쟁의 한계상황 표출과 역사 인식

❶ 전쟁의 가족사적 체험과 비극적 현실 인식

6. 25 동란은 36년간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새롭게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거대한 질곡의 역사적 체험이었다. 박인환은 그의 나이 25살 때 비극적인 6.25 전쟁을 맞았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만에 요절한 박인환에게 있어 전쟁 체험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신적 상처였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면에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개인에게는 전쟁의 참혹성과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 의미 자체를 되돌아보는 극한적인 실존의 장이었다. 고은(高銀) 시인은 이러한 시대를 두고 “‘아아 50년대!’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논리를 등지고 불치의 감탄사로서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회고한 바 있다. 즉 전쟁과 전후(戰後)의 비극은 당대의 개인들에게 있어 논리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었다. 문제는 이 논리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어 어떻게 논리화하고 극복의 방법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논리화와 극복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전쟁 체험의 정도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25 당시 박인환은 서울에서 《경향신문》 기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경린, 김수영 등과 5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 하고 시창작에 몰두하던 시기에 6.25를 맞았다. 그는 미처 피난을 가지 못 하고 서울에서 적 치하 3개월을 숨어서 지냈다. 이런 와중에 딸 세화를 얻 게 된다.

기총과 포성의 요란함을 받아가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세계로
그리하여 너는 잘 울지도 못하고
힘없이 자란다.

엄마는 너를 껴안고 삼 개월 간에
일곱 번이나 이사를 했다.

서울에 피의 비와
눈바람이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너는 입은 옷도 없이 벌거숭이로
화차(貨車)위 별을 헤아리면서 남으로 왔다.

나의 어린 딸이여 고통스러워도 애소도 없이
그대로 젖만 먹고 웃으며 자라는 너는
무엇을 그리 우느냐.

너의 호수처럼 푸른 눈
지금 멀리 적을 격멸하러 바늘처럼 가느다란
기계는 간다. 그러나 그림자는 없다.

엄마는 전쟁이 끝나면 너를 호강시킨다 하나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이며
나의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인가.

전쟁이 끝나면 너는 더욱 자라고
우리들이 서울에 남은 집에 돌아갈 적에

너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계집애.

나의 어린 딸이여
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살아 있을 것인가.

— 「어린 딸에게」 전문

박인환이 딸 세화를 얻은 것은 9. 28 수복 3일 전인 1950년 9월 25일이었다. 당시 박인환 가족은 적 치하에서 지하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린 생명의 탄생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불가능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들은것은 기총소리와 포성, 즉 죽음의 소리였다. 그러기에 시인은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세계로” 라고 외친 것이다. 딸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에 시대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전쟁의 폭력성 앞에 ‘입은 옷도 없이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있는 무기력한 딸의 운명은 바로 전쟁을 겪고 있는 동시대인들 모두의 운명이다. ‘기총과 포성의 요란함’, ‘주검의 세계’, ‘서울에 피와 비와 / 눈바람에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등의 시귀에는 전쟁 상황의 가혹성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 가혹성 앞에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잘 울지도 못하고 / 힘없이 자라’고 있는 딸에 대한 연민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 극한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민족 모두에 대한 연민의 정서인 것이다.

이러한 연민의 정서가 “고통스러워도 애소도 없이 / 그대로 젖만 먹고 웃으며 자라는 너는 / 무엇을 그리 우느냐”에 나타나는 반어법 적인 진술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삼 개월 간 일곱 번의 이사를 하고 눈바람에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화차 위의 별을 헤며 남으로 실려 온 아이는 비단 박인환의 어린 딸 세화뿐만이 아니다. 이는 ‘어린 딸’로 표현된 한국인, 그들이 전쟁을 통해 겪는 비운과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동시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절실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넓고 개체 많은 토지에서
나는 더욱 고독하였다
힘없이 집에 돌아오면 세 사람의 가족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차디찬 벽에 붙어 회상에 잠긴다.

전쟁 때문에 나의 재산과 친구가 떠났다
인간의 이치를 위한 서적 그것은 잿더미가 되고
지난날의 영광도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도 서로 갈라지고
간혹 이름을 불러도 울림조차 없다
오늘도 비행기 폭음이 귀에 잡혀 잠이 오지 않는다.

—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전문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의 번민을 그린 시이다. 적막한 거리를 방황하다 집에 돌아오면 그의 가족들이 기다린다. 그러나 늘 그는 빈손이다. 허탈한 마음으로 차디찬 벽에 기대 회상에 잠긴다. 전쟁으로 재산과 친구를 잃고 귀한 서적들도 잿더미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망각의 피안(彼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마저 비행기 폭음소리가 방해한다. 전쟁 중이지만 가장으로서 하루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역사와 민족에 앞서 자기의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비겁하다고 느낀다. 그가 생에 대해 한없는 애착을 느끼는 것은 오직 생존의 본능일 뿐이다.

삶의 허망함, 존재의 허무를 느끼고 종말론까지 치달았던 그였지만 생활인으로서의 생에 한없는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식, 나만이 지각하고 있다는 초조감 등이 생의 애착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분한 회상의 언어로서 일상의 자화상을 리얼하게 묘사하여 잔잔한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념론적 절규보다 더 호소력 있게 당대의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1.4후퇴 때 그의 가족은 군수품 곡간차를 얻어 타고 대구로 피난을 가게 된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인간성마저 마비시킨 6. 25의 비극은 실로 처절했다. 무자비한 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었고,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몸 부림쳤다. 《경향신문사》 소속 육군 종군 기자단에 참가한 박인환은 서부전선과 강원도 일대의 전선을 따라다니며 동족상잔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6.25가 박인환의 시세계에 남긴 흔적은 비단 위의 작품처럼 직접 전쟁터를 소재로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전혀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전중, 전후의 많은 작품들에도 사실은 전쟁의 처참함과 그것이 시인에게 끼친 충격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6.25는 박인환의 정신에 깊고도 강렬한 상처를 심어 주었으며, 그 상처는 그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에서처럼 전쟁은 박인환 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박인환의 시적 상상력과 의식지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의 비참한 현실과 비극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시 「고향에 가서」, 「신호탄」, 「한줄기 눈물도 없이」, 「어떠한 날까지」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토지가
지금은 내 고향

산과 강물은 어느 날의 회화(繪畵)
피 묻은 전신주 위에
태극기 또는 작업모가 걸렸다.
학교도 군청도 내 집도
무수한 포탄의 작렬과 함께
세상엔 없다.

인간이 사라진 고독한 신의 토지
거기 나는 銅像처럼 서 있었다.
내 귓전엔 싸늘한 바람이 설레이고
그림자는 망령과도 같이 무섭다.

어려서 그때 확실히 평화로웠다.
운동장을 뛰다니며
미래와 살던 나와 내동무들은
지금은 없고
연기 한 줄기 나지 않는다.

황혼 속으로
감상(感傷) 속으로

차는 달린다.
가슴속에 흐느끼는 갈대의 소리
그것은 비창(悲愴)한 합창과도 같다.

밝은 달빛
은하수와 토끼
고향은 어려서 노래 부르던
그것뿐이다.

- 「고향에 가서」 부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고향 인제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이다. 종군 작가단 일환으로 고향을 찾은 박인환은 ‘어려서 그때 확실히 평화로웠’던, 그러나 지금은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고향에 서 있다. 그 고향은 이미 지난날의 회화(繪畵)였다.

결국 이 시는, 예전의 고향과 전쟁이 휩쓸고 간 지금의 고향을 대비시킴으로써 전쟁의 참담함을 극대화 시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추상을 배제하고, 전쟁 중에 겪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전쟁의 비참한 현실과 비극적 인식을 증언하고 있는 현실주의 시세계에 대하여 김재홍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정신적 위상과 그 지향만은 훨씬 현실 감각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괴된 도시 문명의 그늘에서 불안과 공포, 절망과 허무감으로 방황하는 인간의 비극이 박인환의 시에서는 비극적 인식의 주지적 드라마로 형상화 되어 있다. 다른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박인환의 시는 도시 문명의 허울을 묘사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떠나는 모든 것들, 죽어 가는 것들에 대한 슬픔을 근원적인 인간의 비극으로 치환하여 지적 절제의 깊이와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전선(戰線)을 따라가며 전쟁 체험을 하게 된 박인환은 어느 날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누워 있는 용사들의 주검을 목격하게 된다.

위기와 영광을 고(告)할 때
신호탄은 터진다.
바람과 함께 살던 유년도
떠나간 행복의 시간도
무거운 복잡에서
더욱 단순으로 순화(醇化)하여 버린다.

(중략)

어두운 밤이여
마지막 작별의 노래를
그 무엇으로 표현하였는가.
참다운 해방을
그는 무엇으로 신호하였는가.

적을 쏘라
침략자 공산군을 사격해라.
내 몸뚱어리가 벌집처럼 터지고
빨건 피로 化할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신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기총을 소사하시오. 적은 나를 둘러쌌소'

生과 死의 눈부신 외접선(外接線)을 그으며
하늘에 구멍을 뚫은 신호탄
그가 침묵한 후
구멍으로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

단순(單純)에서 더욱 죽음으로
그는 나와 자유의 그늘에 산다.

— 「신호탄」 부분

‘수색대장 K 중위는 신호탄을 올리며 적병 30명과 함께 장렬하게 죽었다. 1951년 1월’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신호탄」은 전쟁의 참담함과 죽음의 현장, 인간의 비극적 한계상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적을 쏘라 / 침략자 공산군을 사격하라 / 뭉뚱아리가 벌집처럼 터지고 / 빨건 피로 化할 때까지 / 기총을 소사하시오” 적군에 포위되어 아군에게 진내 사격을 요구하는 신호탄을 올리고 장렬히 산화한 수색대장의 이야기를 쓴 작품으로 수색대장 K 중위의 죽음은 전쟁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절규하며 적군과 함께 벌집처럼 터지며 산화한 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용사가 누워 있었다.
구름 속에 장미가 피고
비둘기는 야전병원 지붕에서 울었다.

(중략)

고지 탈환전
제트기 박격포 수류탄
어머니! 마지막 그가 부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옛날은 화려한 그림책
한 장 한 장마다 그리운 이야기
만세소리도 없이 떠나
흰 봉대에 감겨
그는 남모르는 토지에서 죽는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는 피와 청춘을
자유를 위해 바쳤다.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엔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 「한 줄기 눈물도 없이」 부분

「한 줄기 눈물도 없이」는 자유의 이름을 위해 피와 청춘을 바친 전우의 무덤을 바라보며 쓴 작품이다. 치열한 고지 탈환 전투에서 죽은 용사들은 제대로 땅속에 묻히지도 못하였다.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용사의 시체를 보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처절하게 죽어갔을 그의 최후의 순간과 그가 그리워했을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 또한 ‘피와 청춘을 / 자유를 위해 바쳤’지만 찾아와 주는 사람도,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는 병사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에서 야기되는 비참한 현실과 비극적 인식을 그리고 있다.

-형님 저는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날
바다가 반사된 하늘에서
평면의 심장을 뒤흔드는
가늘한 기계의 비명이 들려왔다.
20세의 해병대 중위는
담배를 피우듯이
태연한 작별을 했다.

연기와 같은 검은 피를 토하며…….
안개 자욱한 젊은 연령의 음영에…….
청춘과
자유의 존엄을 제시한
영원한 미성년
우리의 처참한 기억이

어떠한 날까지 이어갈 때
싸움과 단절의 들판에서
나는 홀로 이단의 존재처럼
떨고 있음을 투시한다.

— 「어떠한 날까지」 부분

위 작품은 ‘이 중위의 만가(挽歌)를 대신하여’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 전쟁에서 있었던 현실을 작품 속에 옮겨 놓은 것이다. ‘바다가 반사된 하늘에서 / 평면의 심장을 뒤흔드는 / 가늘한 기계의 비명이 들려왔고’ 무수한 총부리 속에서 죽어 간 전우들 ‘담배를 피우듯이 태연한 작별을 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날까지’ 전쟁의 비극은 사라지지 않으며, ‘자유의 존엄성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의 처참한 기억은’ 이어갈 것이다. 전쟁이 끝난다 해도 전쟁의 비극은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어떠한 날까지’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암시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의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인환은 전쟁의 암담한 현실을 가족사적인 체험의 보편성과 비극적 현실 인식을 형상화함으로써 6.25의 생체험을 시적으로 충실히 증언하고 있다.

2 전쟁의 한계상황 표출과 역사 인식

박인환의 전쟁 인식은 주술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었다. 냉철한 이성을 상실한 채 신의 죽음과 인간의 파멸을 주술적 절규로 토해냈던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다소 시적인 논리를 벗어나 있거나 언어와 운율에서 시적인 미숙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쟁의 비논리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려는 시인정신의 황폐함을 반영하고 있다. 시인의 눈앞에 전개되는 처참한 폐허의 풍경들은 시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비극이었다.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 객관적 현실 인식이나 비판적 이성의 동원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직설적이고 표피적인 영탄 이상일 수 없는 것이다.

박인환의 이러한 주술적이고 종말론적인 절망과 분노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는 「검은 신이여」이다.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일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빼앗아간 나의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

건물과 창백한 묘지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하루의 일년의 전쟁의 처참한 추억은

검은 신이여

그것은 당신의 주제일 것입니다.

— 「검은 신이여」 전문

전쟁이 남긴 절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시는 항변조의 의문부로 시작하여 청유형(請誘形)의 어조로 끝나고 있다. 시인은 ‘검은 신’에게 항변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묘지에서 우는 사람’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이며,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이며,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 ‘일 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 ‘전쟁에서

빼앗긴 친우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그러나 대답은 없다. 아니, 대답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 내부의 사멸이다. 인간의 정신, 가치,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원천이 사멸된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이 '풍설로 뒤덮여' 다시는 이 땅에 꽃이 피지 않도록 죽음의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박인환은 이 시에서 인간의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폐허와 허무뿐인 처참한 상흔은 박인환을 주술적이고 종말론적인 시세계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언제나 샘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인생의 복판에 서서
전쟁이나 금전(金錢)이나 나를 괴롭히는 물상(物象)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한줄기 소낙비는 나의 얼굴을 적신다.

진정코 내가 바라던 하늘과 그 계절은
푸르고 맑은 내 가슴을 눈물로 스치고
한때 청춘과 바꾼 반향도
이젠 서적(書籍)처럼 불타버렸다.

가고 오는 그러한 제상(諸相)과 평범속에서
술과 어지러움을 한(恨)하는 나는
어느 해 여름처럼 공포에 시달려
지금은 하염없이 죽는다

사라진 일체의 나의 애육아
지금 형태도 없이 정신을 잃고
이 쓸쓸할 들판
아니 이지러진 길목 처마 끝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들
우리들 또다시 살아나갈 것인가
정막처럼 잔잔한 그러한 인생의 복판에 서서

여러 남녀와 군인과 또는 학생과
이처럼 쇠퇴한 철없는 시인이
불안이다 또는 황폐롭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들
광막한 나와 그대들의 기나긴 종말의 노정은
여나 지금이나 변함없노라

—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시인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정신을 잃고 죽음의 들판에 쓰러져 가고 있다. 전쟁의 참상과 부당성을 고발하며, 희망과 의지의 노래를 불러야 할 시인의 책무를 망기한 채 ‘쇠퇴한 철없는’ 시인이 되어 하염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과 모든 길이 죽음으로 열려 있고, 통해 있을 뿐이다. 부드러운 희망을 속삭이고, 살아있음을 노래한들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종말의 노정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전쟁과 죽음 앞에서는 희망을 노래하는 ‘몇 줄의 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보이는 건 허무의 벽뿐이다. 그 앞에서 선택은 오직 죽음뿐이다. 아니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종말론적 세계관에 이르고 있다. 박인환의 이러한 종말론적 세계관은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 인식과 미래의 전망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작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성과 논리가 무력해지고 광기와 폭력만 무성한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시인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인환은 전쟁을 겪으면서 차츰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의식의 혼돈에서 벗어나 비판적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에 부딪히게 된다.

현실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종군 기자로서, 또한 시인으로서 이는 어찌면 당연한 질문이었는지 모른다. 그에 대한 대답은 전쟁의 맹목성이었다. 어느 누구를 위한, 그 무엇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모두가 피해자요, 희생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모두가 희생자로서 맹목의 시대에 맹목적인 전쟁을 치렀던 것이다.

푸른 하늘가를
 기나긴 하계(夏季)의 비는 내렸다.
 겨레와 울던 감상(感傷)의 날도
 진실(眞實)로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상태(狀態)
 우리는 결코
 맹목(盲目)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시력(視力)은 복종(服從)의 그늘을 찾고 있는 것인가.
 - 「눈을 뜨고도」 부분

우리는 ‘복종의 그늘’ 속을 헤매며 ‘맹목의 시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맹목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복종의 그늘을 찾고 있는 것일까”라고 절규하는 시인의 회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겨레와 울던 감상의 날조차 진실로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맹목적인 전쟁이었기에, 그 전쟁에 내동댕이쳐진 우리들이기에 더욱 처참한 것이다.

시인은 「회상의 긴 계곡」에서 다음과 같이 전쟁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군인(軍人)이 피워 물던
 물뿌리와 검은 연기(煙氣)의 인상과
 위기에 가득 찬 세계의 변경
 이 회상의 긴 계곡속에서도
 열을 지어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서럽고 또한 환상에 속은
 어리석은 영원한 순교자
 우리들.
 - 「회상의 긴 계곡」 부분

열을 지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군인들,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죽음은 무엇인가. 시인의 대답은 이렇다. 그들은 ‘서럽고 또한 환상에 속은 어리석은 순교자들’이다. 또한 순교의 죽음은 거룩한 것이지만, 환상에 속은 어리석은 순교이기에 서러운 죽음인 것이다. 군인들 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아니던 모두가 어리석은 순교자들이다. 여기서 그는 전쟁의 의미를 맹목적인 것에서 속

은 전쟁으로 인식하게 된다. 6.25는 기실 맹목적인 전쟁이고, 속은 전쟁이었다. 세계사의 어느 전쟁에서 같은 핏줄끼리 대규모의 학살을 감행한 적이 없었다. 그것도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체제 확장을 위한 꼭두각시 전쟁이었다. 우리는 미·소 양 진영의 신파권주의의 희생양이었음을 박인환은 비로소 인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의식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싸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이 작은 도시에
연기가 오른다.
종소리가 들린다.
희망의 내일이 오는가.
비참한 내일이 오는가.
아무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연기 나는 집에는
흠어진 가족이 모여들었고
비 내린 황톳길을 걸어
여러 성직자는 옛날 교구로 돌아왔다.

‘신이여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오
회한과 불안에 얽매인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오’
주민은 오직 이것만을 원한다.

군대는 북으로 북으로 갔다.
토막에서도 웃음이 들린다.
비둘기들이 화창한
봄의 햇볕을 쬔다.

— 「서부전선에서-윤을수 신부에게」 전문

‘윤을수 신부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서부전선에서」는 전쟁이 휩쓸고 간 서부전선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의 풍경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1연에서는 싸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이 땅에 희망의 내일이 오는지,

비참한 내일이 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연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교회를 떠난 성직자들은 자신의 교구로 돌아왔다.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모인 사람들의 희망은 행복이며 밝은 미래이다. 4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의식이 엿보인다. “토막에서도 웃음이 들린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전쟁이 남긴 아픔과 상처 대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비둘기들이 화창한 / 봄의 햇볕을 쬔다”에서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고 안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나라 나의 마을 사람들은
아무 회한도 거리낌도 없이 그저
적의 침략을 쳐부수기 위하여
신부와 그의 집을 뒤에 남기고
건조한 산악에서 싸웠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노호했다.
그들에겐 언제나 축복된 시간이 있었으나

최초의 피는 장미와 같이 가슴에서 흘렀다.
새로운 역사를 찾기 위한
오랜 침묵과 명상 그러나
죽은 자와 날개 없는 승리
이런 것을 나는 믿고 싶지가 않다.

(중략)

폐허와 배고픈 거리에는
지나간 싸움을 비웃듯이 비가 내리고
우리들은 울고 있다.
어찌하여?
소기의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원수들은 아직도 살아 있지 않은가.

— 「새로운 결의를 위하여」 일부

‘배고픈 거리’로 상징되는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며 새로운 역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적의 침략을 쳐부수기 위하여 / 신부와 그의 집을 뒤로 남기고 / 건조한 산악에서 싸웠다”에서처럼 ‘나의 나라 나의 마을 사람들은 / 아무 회한도 거리낌도 없이’ 모두 힘을 합쳐 죽음이라는 공포를 뒤로 하고 새로운 결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문이나
열리어 있다.
식탁 위엔
장미와 술이
흐르고

깨끗한 웃도
걸려 있다.
이 거리에는
채찍도
철조망도
설득 공작도
없다

이 거리에는
독재도
모해도
강제노동도
없다

(중략)

이 거리는
그대들의
새로운 출발점
이제 또 다시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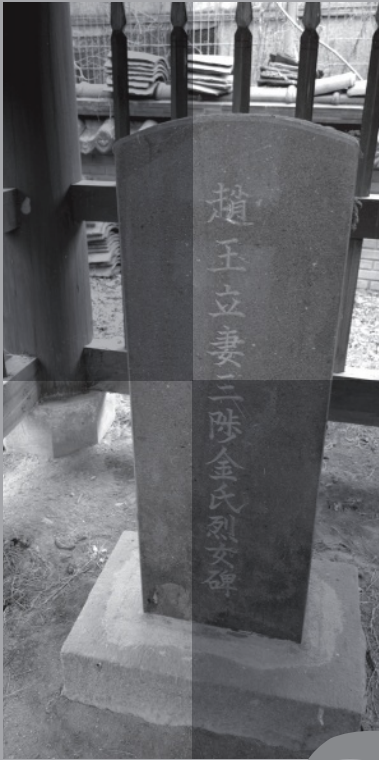
넓은 하늘
저 구름처럼
자유롭게
또한 뭉쳐 흘러라
어느 문이나
열리어 있다
깨끗한 옷에
장미를 꽃고
술을 마셔라

— 「이 거리는 환영 한다」 부분

‘반공청년에게 주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 시에서는 ‘죽음’이나 ‘허무’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전쟁이 끝나 축하의 장을 열어 가듯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어느 문이나 열리어 있다’는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마음의 문을 열고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문을 열면 식탁 위엔 장미와 술이 있고 깨끗한 옷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거리엔 더 이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채찍’, ‘철조망’, ‘설득공작’, ‘독재’, ‘강제노동’ 등도 없다. 열린 자유의 문에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이 거리는 찬란한 자유의 고장’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리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인환은 6.25 동란 초기, 시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광기와 폭력만 무성한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주술적이고 종말론적인 비극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되지만, 이후 전쟁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충격과 의식의 혼돈에서 벗어나 비판적 이성을 회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제군의 효열

이학주

所冬羅嶺과 五色嶺 位置 比定 研究

한승윤

제 2 장

향토사

인제군의 효열

이학주 •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목차〉

I. 열녀 전주 이 씨 정려각

II. 열녀 삼척 김 씨 정려각

III. 효자 이영순 정려각

IV. 효열부 강릉 김 씨 정려각참고문헌

국문개요

본 자료는 2020년 강원도청 문화유산과 강원도사편찬위원회에서 『강원의 효열 문화』이란 책으로 편찬한 내용 가운데, 필자가 쓴 인제의 효열에 관련된 자료이다. 대상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정려를 받은 인물에 국한하였다. 이 글은 인제의 효자와 열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효와 열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적인 진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열녀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다. 이혼과 재혼이 자유롭고, 성문화가 바뀌어 간통죄가 없어졌다. 그 때문에 이제는 도덕과 윤리의 척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가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효와 열에 대한 존속이 필요하다. 이혼과 혼인을 밥 먹듯이 하고, 간통을 재미로 한다면 이 사회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인제군의 효자와 열녀를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제군에는 『인제군사』에 의하면 효행 10명 열녀 17명의 정려 및 비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없어지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정려를 받고 현재 효열각이 있는 경우는 4군데이다. 이 가운데 정자리에 있는 열녀 전주유씨의 비각은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정려를 받았다고 했으나 문헌을 찾아보면 일제강점기 때로 나왔다. 효자 이윤근은 고종황제 때 정려를 받았으며 비가 서화리에 있다고 했으나 서화리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현재 인제군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정려를 받고 비각이 있는 곳은 열녀전주이씨, 열녀

삼척김씨, 효자 이영순, 효열부 강릉김씨의 경우가 전부였다.

다음에는 제 2부로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세워진 효열각과 비를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오랜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서 금방 이뤄지지는 않는다. 어찌 됐든 인제사람들의 효와 열과 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전승되고 발굴되어 후세에게 포퓰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 열녀 전주 이 씨 정려각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자포대

열녀 전주이씨(全州李氏) 정려각¹은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방아다리에서 자포대(自飽臺)마을로 가는 길목 3km 지점에 있다. 열녀각 바로 앞에는 산촌생태마을이 있어서 펜션을 비롯한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생태마을 뒤편에 보면 기와에 단청을 한 열녀각이 눈에 띈다. 열녀각을 빙 둘러 돌담이 쌓여져 낮게 드리워져 있어 운치를 더한다. 열녀각 앞에는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와 잣나무 한 그루가 있다. 열녀각은 대리석으로 밑 주변을 돌리고 시멘트로 바닥을 했다. 단청이 색이 바래서 오래된 느낌을 주고 있다. 열녀각 앞 서까래 밑에는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열녀정문(烈女旌門) 경자 3월 일(庚子三月日)”이라 쓴 현판이 있다. 바닥에는 비석이 있는데 돌 판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열녀민영통처전주이씨지비(烈女閔泳統妻全州李氏之碑)”라고 한자로 음각을 했다. 뒷면은 아무 글자도 없다. 열녀각 내부 뒤에는 세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모두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썼는데, 앞뒤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글자가 흐릿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위쪽에는 〈정려본기(旌閭本記)〉이고, 아래 왼쪽에는 정려각을 지을 때 함께 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관찰사부터 기록해 두었다. 아래 오른쪽 현판은 현재 알아보기 어렵다.

1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등에서 인용하였다.

열녀각 앞에는 철판에 흰 글씨로 적은 안내문이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낡고 지워져서 알아보기 어렵다. 대략 전주이씨의 열녀 행적과 정려를 받은 해와 세운 사람을 기록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보이는 내용을 옮기면 이렇다. 전주이씨는 시골에서 자라 민영통에게 출가하였으며 시부모를 성심으로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섬기던 중 나이 17세에 남편이 죽자 을 치르고 난 첫 제사일로부터 음식을 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그 정절을 가상히 여겨 고종37년(1900년)에



열녀 전주이씨 정려각



뒤쪽에서 본 열녀각

정려를 내렸고, 당시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趙鍾弼)과 군수 권직상(權直相)이 정려각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씨의 이름은 이옥녀(李玉女)이다.

현판에 있는 경자년은 고종 37년인 서기 1900년이다. 『인제군사』에는 다음과 같이 송종언(宋鍾彦)의 글씨로 쓴 〈정려본기〉 원문과 번역문이 있다.

〈정려본기〉

민영통의 처 이씨 나이 열일곱에 그 지아비(夫)가 죽자 3년상을 치루고 첫 기일에 음식을 끊고, 마침내 남편의 뒤를 따라 죽으니 조정에서 그 정절을 가상히 여겨 열녀 정려각을 그 마을에 세우도록 하니 사인(士人) 김용규라는 선비가 내게 그 기문(記文)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해와 구삼반제(九三返祭)에 이 글을 지었으니 가로되 여자로서 그 남편에게 정절함은 마치 신하가 임금에 충성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과 같아서 곧 그 본분을 다함이니 소위 열녀라 할 정도로 그 본분을 다하는 자가 어찌 쉽게 있으리오. 옛날에 위(衛)의 공강(共姜)은 그 지아

비 여(餘)가 죽으니 따라 갔고, 또 달리 위(魏)의 하후령(夏侯令)의 딸은 그 지아버지 조(曹)가 죽으니 머리털을 잘라서 다시 개가하지 않겠다는 신표(信標)를 삼았으니 이러한 일이 시로 읊어서 전파되고, 역사의 기록에 올라서 백대(百代)에 두드러진 드문 정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한 죽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일깨우고 거듭 밝히어 널리 본을 보임이니 이런 연유로 충신이나 효자에게 정려(旌)를 세우게 하듯이 열녀에게도 정려각을 세우도록 함이 모두 같은 이치이다.

사대부로서 예절을 지키는 집안에서라면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행실에 관해 더러 귀



열녀비

로 듣기도하고 눈으로 보기도해서 몸에 익히기도 할 것이나, 놀라운 일로 일컬을 것이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이에 이씨로 말하면 시골에서 자라서 선비에게 시집가 서울로 떠나갔으니, 아주 깊은 산골에 나이드 어렸으니, 어찌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 있어 이렇게 함이라. 이는 곧 타고난 천성이 그 큰 근본을 잘 지켜 왔음이니 시부모를 섬심껏 모시었고, 공경하여 남편을 섬겨서 앞뒤 모든 처사가 그 근원에서 같이 만나니, 이는 천성이 그러함이라 억지로 꾸며하지 못하는 일이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꺼리는 바이니 이씨 어찌 그것을 분별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또한 그 고을이나 마을에서 칭송을 듣자고 한 죽음도 아니다. 다만, 여자로서 배운바가 정절을 지키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만약, 이 마음을 그대로 옮겨 임금을 섬기면 곧 충성이 되고, 부모를 섬기면 효도가 되는 것이다.



열녀 정려문



정려본기 외

이씨부인의 죽음은 어찌 한낱 가엾은 일이라고만 하랴. 이미 한 번 죽은 뒤에 가히 그 깨끗한 부녀(婦女)로서의 정절을 백대에 드러내 격려하는 본보기가 된 것이다.

조정에서 그 이씨부인을 위해 열녀 정려각을 세우게 하였고, 이미 정려를 세워 그 정절을 현찬한 뒤에 가히 훌륭한 사회기풍을 세워 오늘에 칭송함이 있게 되었다. 세상의 무릇 군자들은 이 정려각을 보고 몸소 본받도록 할 것이니라.

경자년 음력 시월 상순

송종언(宋鍾彦) 씀

〈旌閭本記〉

閔泳統(1898~?)妻李玉女年十七(1900)其夫死越三年初忌絕飲食積者日而殉朝嘉其節命旌閭其同里士人金容圭屬余爲記九三迭祭及言日女之忠於郡子之孝於親郎盡其職已牟記爲烈女之盡其職者豈易有戰昔衛共姜其餘以以摩他句矢○夏侯令女其夫曹死以斷髮爲信播於詩登於史爲百代卓異之節然斬一死正導率之化熙累治是以有以忠而旌以孝而旌旌列而旌者比岩士大夫守禮家己自童○之時決於耳稔於月以得之者○不神奇稱語者也今此李氏長子草歸嫁於士人去京師屢石○僻○年齡淺豈有而得日而得之者卽以一種秉○大根於審奉舅姑以誠事君子以體前後左不逢其源及其天眼○客辨葬死人之所大惡者也李寧者不知然辨之者其心非有於天家也亦非要譽於黨刈間也學女子地止知有列而乙笱移此心以之事君則忠以之事親李氏之死爲其一閔而旌死之後司以勵清節於百代也朝家之旌爲其婦李而旌旌之後可以樹凡聲於今也嗚呼世之百君子親此旌閭

歲庚子陽日上澣日臺子

宋鍾彦 記

『인제군사』에서 “李玉女女史는 麟蹄郡 縣 6里에 거주하고 있는 閔玉成(1915~)의 伯母임.”라고 했다.(『강원의 효열문화』)

II. 열녀 삼척 김 씨 정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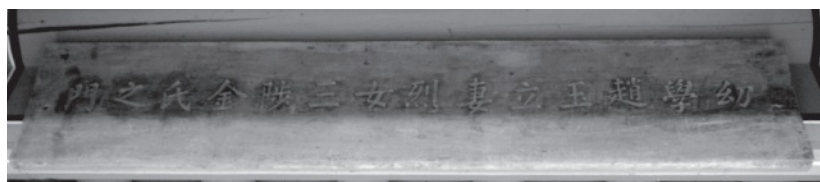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3반 213번지 안삽재

삼척김씨(三陟金氏) 열녀각²은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3반 안삽재에 있다. 원대리는 자작나무를 심어 유명해진 마을이다. 인제읍에서 기린면 방면으로 가다가 보면 원대리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나온다. 내린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원대리로 들어가다가



삼척 김씨 정려각

왼쪽으로 난 길로 꺾어들면 안삽재마을이다. 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풍양조씨 회관과 풍양 조 씨 문중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펜션 건물이 왼쪽에 있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잘 단장된 열녀각을 만날 수 있다. 길 바로 옆인데 주변에 잔디를 심었고 열녀각은 붉은 벽돌로 울타리를 했다. 울타리 안에 주춧돌을 놓고



삼척김씨 정려문

2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등에서 인용하였다.

그 위에 열녀각을 만들었다. 단청을 잘 해서 금방 눈에 들어온다. 열녀각 뒤로 가서 천장 쪽을 보면 오래된 현판을 붙여 두었다. 현판에는 “幼學趙玉立妻烈女三陟金氏之門(유학조옥립처열녀삼척김씨지문)”이라고 한자로 썼다. 전하는 기록에는 조옥립이 병조참판을 했다고 했는데, 현판에는 유학(幼學)이라 표기되어 있다. 1996년에 펴낸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당시의 현황을 기록해 두었다.

원래는 정려각의 주변을 돌로 쌓아 벽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수리하면서 돌벽에 시멘트를 덧칠하였다. 단청 · 기와 · 기둥 등의 상태는 양호하다. 자연석으로 기단을 만들어 정려각의 기둥을 그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으며, 바닥은 흙밭이다. 비교적 높지 않은 정려각의 4기둥을 상당히 굵은 나무가 지탱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정려각 옆에는 150년 이상 된 노송 두 그루가 비스듬히 자라고 있어 운치를 더해 준다.(『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그리고 열녀각 안에는 대리석으로 해 세운 비가 있는데, “趙玉立妻三陟金氏烈女碑(조옥립처삼척김씨열녀비)”라고 했다. 옆면에는 “西紀千九百七十九年陰10月2日 謹碑(서기천구백칠십구년 음10월 2일 근비)”라 했다. 비석 뒤에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녀비



10월 1일 시제 모습(사진 조남명 제공)

公姓豐壤名玉立 初居院垓里內插峴 公資相雄 鬢髯美好 文武忠孝雙全人物也 仁祖十四年 丙子胡亂突發 當時 外勢侵數十次 國政之勢衰弱 而公義掩奮發至顯 官軍統率 胡賊大戰中 大勢不利 敗陣之 故歸鄉隱身中 胡兵決死追跡 小屋急襲 公夫人金氏 公所在彊問 卽絶對不服 胡兵大怒 夫人雙手貫鐵絲 極甚拷問 從來緘口 不服從 胡兵金氏全身 投薪木訶火刑 卽突然雷聲霹靂 天地震動 急降暴雨 胡兵數十步之內滅殺 金氏多幸天佑神助求命 火傷呻吟中 十餘日後 乙丑十月 二十八日別世也 官家其事實得所聞 仁祖大王上告 而大王諸臣下命 現地踏查 玉立偉績 及金氏烈女心 細細上告 大王忠烈感動 趙玉立妻三陟金氏烈女之門下賜

이 내용이 『인제군사』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번역되어 실려 있고, 약간의 설명을 첨부하였다. 필자가 한자는 한글로 바꾸었다.

일찍이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내삼현(일명 안삼재)에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이 멋있고 충의심과 문무를 모두 갖춘 조옥립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국세가 위태롭자 그는 분연히 자원하여 관군을 통솔하고 청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치렀다. 이후 청군과 크게 싸우던 중에 형세가 불리하여 패전하자 그는 자신의 집이 있는 인제군 원대리에 은신하였다. 청군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여 원대리에 이르렀다.

청군은 그의 부인 삼척김씨를 잡아다가 남편이 있는 곳을 밝히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굳게 함구하고 청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분노한 청군은 부인의 양손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다 하였다. 그래도 부인이 끝끝내 굴하지 않자 청군은 화형을 가하려고 마당에 장작을 쌓아놓고 부인을 올려 눕히고 불을 질렀다. 그 순간 돌연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며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여 화형장에서 수십 보 안에 있던 청군들이 모두 급사하였다. 그러나 하늘도 감동할 만한 정절을 보인 부인은 천우신조로 열화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때 입은 큰 상처로 인하여 부인은 10여일을 신음하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실이 인제군수를 통하여 조정에 보고되자, 인조대왕은 제신들에게 현지를 답사하여 조옥립과 김씨부인의 행적을 세세하게 조사하게 한 다음, 부인에게 정려를 하사하도록 하였다.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638년 인제군 원대리 내삼현에 열녀문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김 씨의 묘는 인근의 웃웃 상묘곡에 있다. 같은 내용이 『강원도지』 〈열부〉조에도 있다. 그런데 내용이 겹탈을 피하려 했다고 해서 남편을 숨기려 했다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또 정려를 받은 시기가 인조 때가 아니라 숙종 때로 되어 있다.

김씨(金氏) 삼척 김씨 진국(震國)의 딸. 풍양(豐壤) 조옥립(趙玉立)의 아내. 병자호란 때 남편이 벼슬하러 나가고 혼자 집에 있다가 피난을 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도적이 구름처럼 모여서 김씨를 겁탈하려 하자 죽음을 맹세하며 굽히지 않았다. 도적들이 그를 포박하여 쌓아놓은 섶 위에 올려두고 사방에서 불을 질렀다. 때마침 비와 눈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 죽지 않았지만, 머리 위에는 화상으로 종기가 생겨 끝내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숙종조에 세금을 면제하고 정려를 내렸다.([국역 강원도지])

열녀문 앞에는 풍양조씨 후손들이 2018년 4월 16일에 세운 〈열녀삼척김씨 정려각 안내〉라는 안내문이 있다. 안내문은 비석에 새긴 내용을 축약하였다. 그리고 정려각 건립연도는 1638년 10월로 되어 있고, 강원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려각은 1638년의 건축양식 문화재로써 우리나라의 오래된 역사적 보물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안삽재에는 풍양 조 씨 집안들이 20여 가구 있으며, 매년 후손들이 모여 벌초를 하고, 음력 10월 1일에는 열녀각에서 제사를 지낸다. ([강원의 효 열문화])

Ⅲ. 효자 이영순 정려각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 5리 조롱고개

이영순(李榮淳) 효자각³은 현재 인제군 현5리 조롱고개 옆 산 밑에 있다. 마을에서 방동리 방면으로 가는 조롱고개를 넘자마자 왼쪽으로 쳐다보면 눈에 띈다. 이 효자각은 세 번이나 옮겼다. 그 사연이 『인제군사』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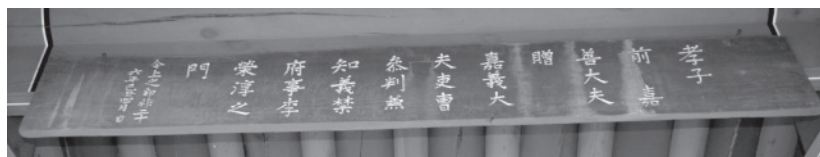


효자 이영순 정려각

이영순의 효자 정려각은 현 위치로부터 남쪽 30m지점의 후손 종가의 4대문중 정문 위에 효자현판을 모시고 있었으며 인근 마을에서는 효자 정문 댁이라 불렀다. 그 후 정확한 년대는 미상이나 1880년대에 종가에 불이 났는데 가옥이 불길에 쌓여 다 타게 되었는데 오직 효자 현판을 모신 정문에만 불길이 닿지 않아 증중손 규호(圭浩)가

효자 현판을 떼어가지고 식솔들을 무사히 탈출시켰으며 그 후 종친들이 모여서 의논 끝에 지금의 위치(기린면 현5리 조롱고개)에 정려각을 건립하였다. 후손으로 종현손(宗玄孫)인 두모(斗模)씨가 가풍을 이어받아 효행이 지극히 뛰어나 1926년 공부자 성적도 오륜행실간소(聖蹟圖 五倫行實重刊所)로부터 효행상을 받았으며 두모 씨의 슬하에 2남2녀와 6남7녀의 손자를 두었으나 장자(長子) 병화(炳華) 씨는 사망하였고 차자(次子) 병준(炳俊) 씨가 인제읍 상동리에 거주하고 있다.([인제군사])

이에 의하면 원래 정려각이 있던 자리는 불이 나서 조롱고개 쪽으로 옮겨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롱고개에 있던 정려각은 다시 같은 조롱고개이지만



이영순 정려문 현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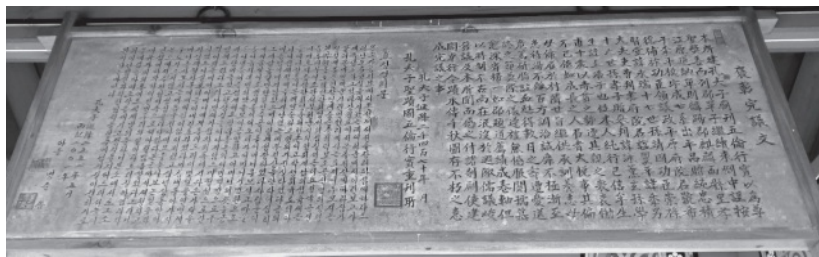
이영순 정려문 옛 것

3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등에서 인용하였다.

그 위치를 옮겨 새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옮기기 전의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

인제군 기린면 현5리 조롱고개의 좌측 야산 밑의 아늑한 곳에 위치해 있다.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비석은 없으며, 단청은 근래에 새로 칠하였다. 정려각의 전면 좌측 기둥에는 ‘人生忠信’을 우측기둥에는 ‘事皆在實’이라고 적혀있다. 원래는 맨흙바닥이었을 정려각의 바닥에 보도블록을 깔았다. 또 정려각의 바닥을 3층으로 처리한 점이 이채롭다.(『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이 기록이 1996도의 것인데, 필자가 2020년 3월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인용문에서 보듯 기둥에 써진 한자가 없었다. 그리고 각(閣)이 두 개가 세워져 있었다. 하나는 이영순의 정려를 보존하는 각이고, 하나는 이두모의 포창완의문을 보존하는 각이다. 선조와 후손의 정려각을 두 개 세워 특이한 경우이다. 그런데 정려각 아래에 2001년에 썼던 정려각 현판이 있는 것으로 봐서 2001년 11월에 정려각을 보수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려 현판 끝에 “서기이천일년십일월 일 재각(西紀二千一年十一月 日 再刻)”이라 했다. 그리고 이 정려각은 같은 조롱고개에서 위치를 조금 옮겨 최근(5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정려문은 현재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孝子前嘉善大夫贈嘉義大夫吏曹參判兼知義禁府事李榮淳之門 令上之即祚二十六年己丑四月 日(효자전가선대부증가의대부리조참판겸지의금부사리영순지문 영상지즉조이십륙년기축사월 일)”라고 썼다. 정려는 1829년 4월에 내렸다.



포창완의문

이두모의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은 근대의 것이나 조상과 후손이 연계되는 까닭에 여기 게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두모의 약력도 『인제군사』에 전하고 있다.

〈褒彰完議文〉

本所建孔夫子廟刊五倫行實以爲尊聖獎善而郡單子繼續來倒中謹按江原道納單則麟蹄郡麒麟面縣里孝子李斗模字成七系出平昌贈純忠積德補助功臣領議政平原府院君號希賢堂諱永瑞十七世孫靖國功臣崇祿大夫吏曹判書府院君諡翼平諱秀男十六世孫孝子贈參判諱泳薰玄孫學生諱圭浩子也性木人純行己信孚生甫十歲以赤貧之勢遭其親之喪哀慟不已依如成長之人弔者大悅事其偏母傭產於村隣也旨繼供承訓養志母患待湯不離百方調治誠靡不極漸至危篤所脂滋血甦得數日之壽遭憂送終之節奠際之儀遵禮無感服關孺慕愈深省掃一如郡題道薦績成卷軸但以時制不古尚在泥沒於遐陬儒議峻發議及本所聞而感之付諸剗劂使建閣卓行令蹟永傳千秋圖存不朽之意成完議之事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年 月

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

포창결의문

본소가 공자묘에서 존성께서 선을 장려하심에 따라 드러난 오륜행실을 새겨왔는데 여러 군에서 이런 보고서가 계속 당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온 추천장에 따라 삼가 살펴본 바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사는 효자 이두모자는 성철계출은 평창인데 증순충적덕보조공신영의정 평원부원군 호희현당휘영서의 십칠세손이요 정국공신 승록대부 이조판서 부원군시익평휘계남의 십육세손이며 효자 증참판휘영훈의 현손이고 학생 휘규호의 아들이다. 성품이 본래 인순하고 행위가 진실하였다. 공의 나이 십세적에 극히 가난 했는데 부친상을 당하여 심히 애통함이 마지않았으며 이렇게 성장하였다. 사람들이 크게 감동할만한 일인즉 공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에서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어머니가 병환으로 들어놓자 대변의 맛을 보아 공양하고 어머니의 뜻을 공손이 받들어 즐겁게 해 드렸다. 좋은 약이면 백방으로 구해 시당해 드렸고 항상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정성으로 간병해 드렸다. 그러나 병세가 점차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찌어 피를 내어 어머니에게 흘려드리어 몇일을 연명케 하였으니 실로 하늘이 내린 효자였다. 마침내 돌아가시자 장례절차를 예에 어김이 없이 치렀고 삼년상 동안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 극진하여 묘를 돌아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심을 다하였다. 본군에서 제청하

고 본도에서 추천함이 축으로 헤아릴 만큼 쌓였다. 그러나 인심이 아박하여 민변 두리의 일이 다 흐려질까 염려하여 유가의 의론이 드세게 발의들 하니 본소에서 그 소문에 감동하여 조각을 새기고 정각을 지어드려서 높이 뛰어난 행실과 착한 업적을 천추에 남겨 길이 전하기로 완의하는 바이다.

孔夫子誕降 二五五二年 五月

西紀二〇〇一年

이들 병준 씀

이영순(李泳淳)의 효행에 관한 이력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아주 간략히 소개되었으나 『인제군사』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여기 옮긴다.

평창인 이영순은 정조10년(1786~1843) 9월 18일 인제군 기린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이영훈(李泳薰), 초휘(初諱)가 영순(泳淳), 자(字)는 여직(汝直)이다. 고려 명종시 태사공 광록대부 백조군 시조 이광의 세손 정국공신 이조판서 평원군 시익평공 이남의 12세손이다.



옆에서 본 효자각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가사일을 열심히 도우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에게도 예의를 다하며 유년시절을 자라왔다.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갖은 효도를 다하며 그 인고와 궁핍을 이겨가는 데서 남다른 주위의 칭송은 크나큰 귀감으로 널리 알려졌다. 본래 조상 때부터 기풍이 있는 집안이라 부모님의 기학(家學) 관심속에 한학(漢學)도 틈틈이 공부하며 더 많은 덕망을 얻어가면서 성장하였다.

어느 날 부친께서 병환에 눕게 되었다. 이영순은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모든 슬픔과 고통을 참고 이겨가며 병에 좋다는 약은 백방으로 탐문하여 써 보았으나 부친의 병은 점점 악화만 되어가고 있었다. 부친께서는 기나긴 세월 속에 병환을 못 이기고 사망 직전에 도달하였을 때 이영순은 단지주혈(斷指注血)로 부친께서 백여일간(百餘日間) 수명을 연장하게 하였으나 세상을 뜨고 말았다.

부모 양위분 사망 후 시묘 3년(待墓三年)씩 6년동안 부모 묘소옆에다 초가 움막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며 시묘(待墓)를 하였던 효자이다.

순조23년(1822년)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는 그 효행이 마치 신하가 이몸에게 충성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과 같아서 그 본분을 다함이니 어찌 이런 사람이 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유로 효행 표창을 내렸으며 그 후 헌종 10년(1843년) 향년 58세로 사망하였다. 조정에서는 사망시 그에게 이조참판 겸 판의금부사(史曹參判兼 判義禁府事)와 가선대부(嘉善大夫)라는 종2품의 작호(爵號)를 하사하였다.(『인제군사』)

이 정려각은 현재 후손이 현리에 살고 있어서 돌보고 있다.(『강원의 효열문화』)

IV. 효열부 강릉 김 씨 정려각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 2리

효열부(孝烈婦) 강릉김씨(江陵金氏, 1845~1905) 정려각⁴은 인제군 상남면 미산2리 국도변에 있다. 상남면소재지에서 4.5km거리이며 미산2리 양지동(陽地洞)의 배미산(培美山) 기슭이다. 바로 옆에는 미산2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다. 정려각은 효목사(孝睦祠)라는 사당과 나란히 있는데, 붉은 벽돌로

4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등에서 인용하였다.

울타리를 하고 철제로 된 문이 있다. 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 정면에 사당이 있고, 사당 옆에 기와를 얹고 단청을 화려하게 해놓은 정려각이 눈에 띈다. 정려각 옆에는 “金寧后人鑑良孝子碑(김령후인진량효자비)”와 〈효열부 강릉김씨에 대한 유생들의 진정서 및 취지의 해석문〉 등 몇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정려각은 홍살문에 붉은 단청을 했고, 태극문양이 바로 앞에 그려져 있다. 문을 달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안에는 비석이 있는데 아들 철규가 친필로 썼다고 한다. 내용은 “孝烈婦 江陵金氏旌閭碑



강릉김씨 정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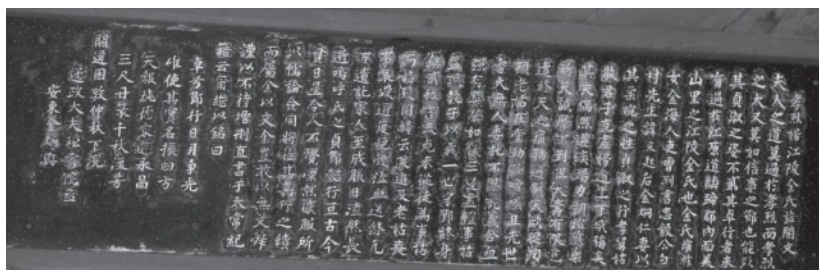


정려각과 효목사

夫 金寧人金炯仁 子進仕澈圭(효열부 강릉김씨정려비 부 김녕인김형인 자진사철규)”이라 하고, 옆면에는 “檀紀4294年 月 日”이라 하고, 뒷면에는 “卓彼彛行 渾然其天 戴鑄載揭 不私以公 宗孫 鎮岳 謹記(탁피이행 혼연기천 대전재계 불사이공 종손 진악 근기)”라 했다. 김형인(金炯仁, 1846.10.9.~1866.8.24.)이 그의 남편이다. 정려각이 1908년에 세워졌고, 비석은 나중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비석을 새로 후손들이 만들어 세운 것일 게다. 정려문은 정려각의 천장에 있는데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써서 붙였다. 내용은 “孝烈婦孺人江陵金氏之閭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五年八月 日 子進士澈圭(효열부유인강릉김씨지려 공부자탄강이천사백칠십오년팔월 일 자진사철규)”라 썼다. 아들 철규가 썼다. 그리고 역시 천장에는 〈효열부강릉김씨정려문〉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기록돼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릉김씨 정려문1



강릉김씨 정려문2

〈孝烈婦江陵金氏旌閭文〉

夫人之道 莫過於孝烈 而孝烈之大 又莫如信事之節也 能致其貞淑之姿 不貳其卓行者 未有過於江原道麟蹄郡內面美山里之江陵金氏也 金氏演祚女 金海人吏曹判書忠毅公 白村先生 諱文起后 金炯仁妻 以其柔婉之性 貞淑之行 孝舅姑 敬君子 克盡婦道 上下咸稱矣 其夫偶然溝疾 竭力調治 煎藥祈天 誠靡不到 但天壽有限 竟遭終天之痛 號哭逾制 矢欲從殉 顧老姑在堂 幼孤啼啼 且先世香火 無人委托 不忍就義 含血強存 葬祭如儀 三燵盡禮 事姑益誠 教子以義 一心守節 終身無貳 恒言夫死未從 徒爲事姑 而姑歿同歸云矣 追及老姑喪事 哀毀逾度 絕穀泣血 送終凡百 遺託家人 至成服日 溘然長逝 嗚呼 氏之貞節懿行 亘古今 貫日星 令人不覺凜然感服 所以儒論僉同 將旌其嘉行之績 而屬余以文 余豈敢以無文辭 謹以不待增強 直書于太常紀籍云爾 繼以銘曰

卓芳節行 日月爭光 唯使其實 名振四方 天報純德 家道永昌 三尺丹篆 千秋流芳 闕逢困敦 仲秋下浣 通政大夫 祕書院丞 安東金炳興

정려각 앞에는 고종41년 광무8년(1904년)에 지은 <효열부강릉김씨에 대한 유생들의 진정서 및 취지의 해석문>이 있다. 유생들의 이름도 뒷면에 같이 표기되어 있다. 이 비는 2005년에 그의 후손들이 세웠다. 한자는 괄호로 처리한다.

본군(本郡) 내면(內面)의 유생(儒生) 등(等)은 삼가 상서(上書)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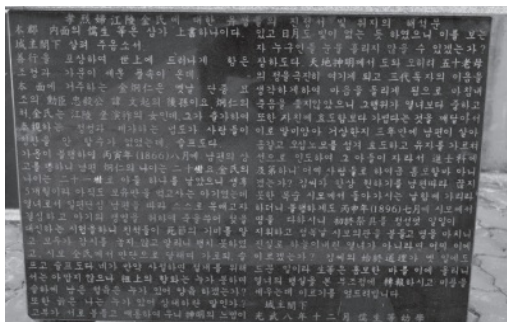
성주각하(城主閣下) 살피주옵소서

선행(善行)을 포상하여 세상(世上)에 드러나게 함은 조정과 가문이 세운 풍속이 온데. 본(本) 면(面)에 거주하는 김형인(金炯仁)은 옛날 단종 묘조의 훈신(勳臣) 충의공(忠毅公) 휘(諱) 문기(文起)의 후손(後孫)이요, 형인(炯仁)의 처 김씨(金氏)는 강릉(江陵) 김연조(金演祚)의 여(女)인데, 그가 출가하여 봉친(奉親)하는 정성과 제가하는 법도가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슬프다. 가운이 불행하여 병인년(丙寅年, 1866) 팔월(八月)에 남편의 상고를 당하니 남편 형인(炯仁)의 나이는 이십(二十)세요, 김씨(金氏)의 나이는 이십일(二十一)세로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생후 5개월이라 아직도 모유만을 먹고사는 아기였는데 열녀로서 일편단심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매고자 결심하고 아기의 생명을 위하여 죽을 쑤어 젖을 대신하는 시험을 하니 친척들이 사절(死節)의 기미를 알고 모두가 감시를 놓지 않고 말리니 행치 모하였고, 시모 전씨(全氏)께서 만단으로 달래며 가로되, 슬프고 슬프도다. 네가 만약 사절하면 절개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으나 조상(祖上)의 향화는 누가 봉하며 슬하에 남은 혈육은 누가 있어 양육 하겠는가? 또한 늙은 나는 누가 있어 상대하란 말인가? 고부가 서로 붙들고 애통하여 우니神明(神明)의 느낌이 있고 일월(日月)도 빛이 없는 듯 하였으니 이를 보자 누구인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하도다. 천지신명(天地神明)께서 도와 오히려 오십노모(五十老母)의 정을 극진히 여기게 되고 삼대(三代)독자의 이음을 생각하게 하여 마음을 돌리게 됨으로 마침내 죽음을 좇지 않았으니 그 행위가 열녀보다 중하고 또한 자친께 효도함보다 가법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로 말미암아 거상한지 삼년(三年)만에 남편이 살아옴 같고 오십 노모를 섬겨 효도하고 유자를 가르쳐 선으로 인도하여 그 아들이 자라서 진사과(進士科)에 급제(及第)하니 어찌 사



강릉김씨 효열비

람들로 하여금 흠모
할 바 아니겠는가?
김씨가 항상 원하기
를 남편따라 끊지 못
한 목숨 시모께서 돌
아가시는 날 함께 가
리라 하더니 불행하
게도 병신년(丙申年,
1896) 칠월(七月)에
시모께서 명을 다하



유생들의 진정서 및 취지문

시니 초동제구(初終祭具)를 정성껏 일일이 지휘하고 성복날 시모의 관을 붙들고
명을 마치니 진실로 하늘이 내린 열녀가 아니라면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김씨의
시종도리(始終道理)가 옛 일에도 드문 일이라 생등(生等)은 흠모한 바를 이에 올
리니 열녀의 행실을 본부 조정에 전보(轉報)하시고 미풍을 세우는데 이르기를 염
드려 빕니다.

성주각하(城主閣下)

광무팔년(光武八年) 십이월(十二月) 유생(儒生) 등(等) 유학(幼學)

이후 열녀각은 1908년 강원도관찰사 김성규(金星圭)와 강릉부사 이서구(李瑞求)의 재임 시에 지어졌다고 한다.([강원의 효열문화])

참고문헌

『강원의 효열문화』, 강원도 문화유산과, 2020.

所冬羅嶺과 五色嶺 位置 比定 研究

한승윤 • 인제문화원

〈목차〉

- | | |
|------------------------|---------|
| I. 들어서며 | IV. 나서며 |
| II.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位置) | 참고문헌 |
| III. 오색령(五色嶺)의 위치(位置) | |

I. 들어서며

선대(先代)에서 붙여놓은 고개 지명(地名)에 대해 몇 차례 줄고(拙稿)¹를 작성한 얇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제군과 양양군의 군계(郡界)이자 백두대간(白頭大幹)²에 걸쳐져 있는 고개 중 가장 아름답고 그 누구라도 욕심을 낼만한 요지(要地)인 한계령(寒溪嶺)의 옛 이름을 살펴서 제대로 알리고자 본 연구(研究)를 시작하였다.

1 줄고(拙稿) 「고지도 · 고문헌을 통한 한계령 옛 지명 연구」, 2016, 인제문화원.

2 백두대간(白頭大幹) :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으로 우리나라 땅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9년 3월 5일자로 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글을 시작하며 인제군 인근의 고개 중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고개는 몇 개나 될까? 생각해보았다. 먼저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선인 진부령(陳富嶺)³이 있겠고 한계령이 그 다음이다. 그나마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설악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가장 효용성(效用性) 있는 고개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한계령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러한 연유(緣由)로 작금(昨今)의 한계령 고개 지명을 두고, 오색령(五色嶺)⁴이나 소동라령(所冬羅嶺)⁵이나를 확실하게 규명(糾明)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인제군민 대다수는 이와 같은 상황(狀況)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개 이름 즉 고개 지명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이나, 반드시 무엇인가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박(切迫)한 마음들이나 긴장(緊張)감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계령의 옛 지명(地名)을 바로 알고 찾아보기 위하여 보낸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금번 향토사 연구 논문을 작성하며 최대한 중도(中度)적 방향으로 견지(見地)하였으며, 활용(活用) 가능(可能)한 모든 자료를 객관적(客觀的)인 입장(立場)에서 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누구든지 연구 결과를 사실(史實)대로 수긍(首肯)하고, 추후 연구에도 동조(同調)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령(嶺)의 사전(辭典)상 의미를 살펴보면 ‘재나 산마루의 이름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기술(記述)하고 있다. 여기서 ‘재’와 ‘산마루’는 당연히 산등성이의 꼭대기를 이르는 순 우리말이다. 그리고 산의 최정상부는 산꼭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설악산의 산꼭대기는 대청봉이라는 식이다. 사전

그 다음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령(嶺)들을 예시(例

3 현실은 군계(郡界)가 진부령으로부터 2.5km 인제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4 양양군과 인제군을 잇던 옛 고개이름.

5 소동라령(所冬羅嶺) 혹은 소동라령(所東羅嶺)으로 표기한 문헌도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是)로 나열(羅列)해보자면,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진부령(陣富嶺)이 있고 역시 인제군과 고성군을 경계로 하는 미시령(彌矢嶺)⁶이 있다. 물론 이들 고개 지명에 대하여 인제군민들과 고성군민들이, 서로 고개 이름을 달리 부르거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다음으로 한계령을 넘어 양양군 방향으로 600미터 남짓 진행하면 나오는 고개가 있는데 필레령(彌曳嶺)이라고 한다. 필레령은 여러 고지도(古地圖)와 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필노령(彌奴嶺), 필녀령(必女嶺), 필레령(必曳嶺) 등으로 단순(單純)히 기록하는 사람의 편의(便宜)에 의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었다.

부연(敷衍)하자면 기록자가 알고 있는 한자(漢字)는 모두 동원(動員)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필레령은 한계령 지명(地名)이 고지도상에 남아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교차(交叉)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고개 이름 중에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또 다른 고개로서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군 서면을 연결하는 조침령(鳥寢嶺=阻沈嶺)⁷이 있다. 조

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미시령(826m)은 한계령과 함께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고개이며, 예로부터 진부령·대간령·대관령 등과 함께 태백산맥을 넘는 주요 교통로였다. 미시령은 조선시대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불렸다. 북쪽에는 신선봉(神仙峰, 1,204m), 남쪽에는 황철봉(黃鐵峰, 1,381m)이 있는데, 미시령은 이들 봉우리 사이의 안부(鞍部)에 해당한다. 고려 때는 길이 있었으나 너무 험준하여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다가, 1493년(성종 24) 다시 도로를 개척하고 길을 열었다. 그 뒤 조선 말기에 다시 도로가 폐쇄되었다가 1960년경에 개통되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 강원도 양양군의 서부에 위치한 고개이다. 서면 서림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의 경계를 이룬다. 최근에 고개 밑으로 터널이 개통되었으며, 고개 정상에 조침령(鳥寢嶺)이라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조침은 “높고 험하여 새가 하루에 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넘었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라고 전해진다. 『여지도서』 양양도호부에 “조침령(阻沈嶺)은 부 서쪽 45리에 있다. 소동래(所冬羅)의 남쪽 지맥으로 기린(麒麟)과 경계를 접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 후기 고지도에는 대체로 부의 서쪽 경계 지역에 표현되어 있는데 『해동지도』, 『광여도』에는 조침령(阻沈嶺), 『1872년지방지도』에는 조침령(阻沈嶺), 『청구도』에는 조침령(曹枕嶺)으로 한자가 지도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서면 서림리에 영치현 명으로 조침령(鳥沈嶺, 조침영)이 수록되어 있다. 과거의 지명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대체로 고개가 “험하고 막혀 있다.”는 의미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의 한자 지명으로 재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지명유래집 중부면 지명, 2008. 12, 김기혁, 옥한석, 성효현, 양보경, 전준한, 권선정, 김용상, 박경호, 손승호, 신종원, 이기봉, 이영희, 정부매, 조영국, 김정인, 박승규, 손용택, 심보경, 장암.

침령은 고개 이름을 표기(表記)한 한자(漢字)에서도 그 의미(意味)를 유추(類推)할 수 있듯이, 새도 쉬어갈 정도로 높은 고개였던 것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금번 연구 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조침령 고개는 현재 도로가 개설(開設)되어 있고 터널이 뚫려 있는 지역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인제군의 걷기운동단체로서 자발적으로 걷는 길을 만들고 유지(維持)와 보수(補修)를 이어가는 ‘인제천리길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었다.

다음 고개로 직접적으로 인제군과 맞닿은 고개는 아니지만 령(嶺)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구룡령(九龍嶺)이 있다. 구룡령은 백두대간에 놓여 있는 해발 1,013m의 양양군 서면(西面)과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아흔아홉구비가 마치 용(龍)이 지나간 것처럼 구불거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끝으로 대관령(大關嶺)고개가 있는데 전 국민 대다수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창군과 강릉시를 잇는 유명(有名)한 고개의 이름이다. 대관령이라는 지명과 연관(聯關)된 논란(論難)에 대해서, 최근 인제군과 유사(類似)한 아니 더 황당한 상황을 겪은 자치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영동지방의 강릉시이다.

강릉시는 인구가 21만 명이고 평창군은 4만 명인데 소위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과 지역 알리기라는, 두 가지가 사업 목표이자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목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치단체의 힘과 예산을 등에 업고 강력 추진되었던 부분이, 바로 대관령 지명 선점(先占)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

앞서 국민 대다수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나고 따져 물을 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빌어서 주장하자면, 단순히 대관령이라는 지명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地域)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提案)을 하여본다.

다음으로 현(峴)이라는 고개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 인제군 인근에는 인제군과 홍천군을 잇는 국도44호선 상에 건니현(巾泥峴)이 고개이름이 지명으로 남아 있다. 지금도 건니고개 또는 건이고개로 부르고 있는데, 건니현은 인제군 남면 어론리와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본 연구(研究)를 진행하며 양쪽 마을의 주민들과 비대면(非對面)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이에 응답(應答)한 대다수의 양측 주민들은 건니고개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異意)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의 고개이름을 두고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에서 달리 부른다는 부분에는 누구도 동의(同意)하지 않고 있었다.

그 외에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농민군이 일군(日軍)과 관군(官軍)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대승(大勝)을 이루어낸 멀리 전라북도 정읍(井邑)의 황토현(黃土峴)⁸ 등이 고개 현(峴)을 사용하는 유명한 고개이름 지명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조사된 고개 현(峴)을 접미사로 사용하는 고개 이름 지명은 와현(瓦峴)⁹이 있다.

다음으로 고개이름 지명에 치(峙)를 사용하는 곳은 인제군 관내에는 부재(不在)하여 원근각지와 근교에서 찾아보아야 했는데, 대다수가 옛 지명에서 사용하던 고개이름 지명으로 그리고 이른바 국어순화운동의 여파(餘波)로 추정되는 고개이름 지명의 변경(變更)으로 순 우리말 접미사 -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전국 각지에 소재한 ‘솔티재’라는 고개이름 지명은 소나무(=솔)가 많은 지역의 산등성이에 고개라는 의미의 한자 치

8 해발고도 35.5m의 야트막한 고개로,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있다. '진동'이라고도 부른다. 황토현 서남쪽으로는 두승산(斗升山, 444m), 서쪽으로는 천태산(天台山, 195m)이 솟아 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전적지로, 황토현전투에서의 승리는 동학농민운동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황토현 일대의 면적 16만 3,224㎡는 '황토현전적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었다. 황토현 고갯마루 아래쪽(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번지)에 2004년 5월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963년 10월 건립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봉준·손화중·김개남 장군과 농민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구민사(救民祠), 전봉준동상 등이 있다.

9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院垓里)에 있는 행정지명이다.

(峙)와 우리말로 고개라는 단어인 ‘재’가 중복된 고개이름 지명이다. ‘솔티’ 또는 ‘솔치’는 솔고개나 소나무고개로 부르기도 하는데, 솔티재라고 쓰였다면 ‘역전앞’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면 무방하고 이해가 쉬울 것이다.

령(嶺)이라는 접미사를 붙이는데 일정한 높이나 기준(基準)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였던 바, 령(嶺)은 일단 고개 이름 지명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개들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설악산에 소재한 대부분의 고개 이름들이 -령(嶺)으로 접미사가 부가(附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고개가 대부분 관도(官道)로 사용되어 나라에서 관리를 하였던 것인 만큼, 오늘날의 국도(國道) 또는 지방도(地方道) 상의 높은 고개에 령(嶺)이라는 접미사를 부여(附與)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해당 고개이름 지명의 상태 또는 형상(形狀)이 넓고 좁음을 표시(標示)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리학과 지명학 전공자들의 의견이다.

일례(一例)로 설악산의 대승령(大勝嶺)과 마등령(馬等嶺), 저항령(低沆嶺)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고개이름은 인제군과 관련 있는 조선시대 문인(文人)들이 남겨 놓은 설악산 유람기(遊覽記)에 등장하는 고개이름 지명들이다. 대승령(大勝嶺)과 마등령(馬等嶺), 저항령(低沆嶺) 등은 차마(車馬)가 다니지 못하고 등산객들만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고개 이름이다.

이들 고개는 오늘날에도 설악산의 주요한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산세(山勢)가 험하고 해발 1,000미터가 넘는 높은 곳에 위치한 까닭으로, 건강하고 숙련(熟練)된 전문 산악인들이나 겨우 도보(途步)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고개이름과 관련한 지명 논쟁에는 휘말리는 사례(事例)가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른바 영어권(英語圈)에서는 단순히 pass 또는 hill(=패스, 힐=고개, 언덕)이라는 단어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고개이름 지명을, 우리는 령(嶺), 치(峙), 현(峴), 재 등으로 분류(分類)하여 표기(表記)하고 특정한 연유(然由)에 따라 그 명칭(名稱)을 달리 불렀으니 이러한 조상들의 현명(賢明)함

과 깊은 안목(眼目)에 항상 감탄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고개 이름이 단초(端初)가 되어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뒤 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고,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해당 연구자들이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금번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시발점도 예(例)의 고개이름에서 빚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전 특정한 하나의 고개를 두고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더 이상 해당 사안(事案)이 방치되거나 시간을 지체(遲滯)해서는 안 되겠다는 다급함으로 본 고(稿)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특정 고개 이름과 관련하여 최초로 고개의 이름이 문헌(文獻)에 기록된 지 50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근거나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각종 문헌과 다양한 기록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노력한 다수의 결과물들이 있어 이를 본 연구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傾注)하여 찾아낸 연구결과물들을 통해 온갖 자료들을 집대성(集大成)하여 놓았으므로, 지역 향토사 연구자의 짧은 지식(知識)과 좁은 식견(識見)으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펼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방증(訪證)이기도하다.

이에 금번 연구에서는 먼저 그간 발표된 총 4편의 서로 다른 주장(主張)과 논리(論理), 해석(解釋)을 담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읽고, 쌍방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왜 허구(虛構)인지와 주요한 증거이자 자료가 되었을 특정 문헌(文獻)¹⁰과 기록물들은 왜 배척(排斥)되었는지를 해당 자료를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는 연구로 진행하였다.

10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군 측에서 이미 2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인제군에서는 최병헌 전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이 연구서를 출간한 바 있었다. 또한, 줄고(拙稿) ‘고지도(古地圖) · 고문헌(古文獻)에 의한 한계령 옛 지명 연구’를 통하여 한계령의 옛 지명이 오색령이 아닌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는 것을 규명(糾明)하고자 노력하였다.

번외로 인터넷상에 공유되고 있는 자료로는 필명(筆名)으로 ‘여름날’을 사용하는 블로거¹¹가 양측 즉, 양양군과 인제군의 주장(主張)에 조금도 흔들림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오로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의 주장이 왜 옳고 틀린 것인지를 담아낸 기록이 있어 빠짐없이 읽어보고 원고 작성에 주요한 참고사항으로 삼았다.

현실적으로 고지도(古地圖)는 지리지(地理志)와 비교하여 특정 고개를 표기(標記)함에 있어서, 방향(方向)과 위치(位值)라는 부분만 따져보아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오류(誤謬)나 오기(誤記)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발견되어 특정 고개의 위치를 비정(比定)하는 자료로는 더 이상 활용(活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특정 고개의 위치를 비정한다는 주요한 근거(根據)로 사용된 자료이자 증거물 격인 고지도들은, 조선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특정 고개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산천(山川)의 형세(形勢)를 요즘처럼 GPS를 활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시(原始)자료가 채록(採錄)되지 않았았음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펴보았다.

주제어 | 소동라령, 한계령, 오색령, 필레령, 백두대간, 망대암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1 설악산의 령(嶺)-한계령은 그 오색령이 아니다. 지리지/고지도
네이버 주소 <https://blog.naver.com/dvmhong/70107170595>

II.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位置)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중요한 자료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¹²을 예(例)로 들 수 있는데, 그중 제 21권에 인제현(麟蹄縣)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收錄)되어 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원문(原文)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麟蹄縣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 南至洪川縣界五十三里 西至楊口縣界四十里 北至杆城郡界八十里 距京都三百六十七里

【建置沿革】本高句麗猪足縣 一云烏斯回 新羅改猪蹄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年置監務本朝太宗十三年例改爲縣監

【屬縣】瑞和縣 和一作禾一名瑞城在縣北六十里本高句麗玉岐縣新羅景德王改馳道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本朝 世宗朝來屬 【官員】縣監 訓導 各一人

【郡名】猪足 烏斯回 猪蹄

【姓氏】(本縣) 朴許曹孫 (瑞和) 崔玄李谷邵

【山川】伏龍山 在縣北二里鎮山 寒溪山 在縣東五十里○山上有城有川自城中流出卽成瀑布而下懸流數百尺望之如白虹垂天自圓通驛而東左右皆大山洞府深邃溪水縱橫而渡者三十六樹木如簣上竦雲霄旁無橫枝松栢尤高不見其巔又其南峯作絕壁其高千仞奇怪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遭壓墜其下清泉觸巖成潭盤石可坐又東數里洞口甚狹細徑緣崖窵穴哈呀峯巒峭拔如龍拏虎攫如果層臺者無數其形勝甲於嶺西 所冬羅嶺 在縣東七十二里 所波嶺 在縣北八十二里杆城郡界 彌時坡嶺 在縣北八十里 彌勒川 在縣東五里其源有四一出所冬羅嶺一出所波嶺一出瑞和縣一出春川府 基麟縣 舟淵津 在縣西九里彌勒川下流夏用舟楫

【土產】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參 蔘 茯 苓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魚 漆

【學校】鄉校 在縣東一里

【驛院】圓通驛 在縣東三十里 馬奴驛 在縣西三十里 嵐校驛

1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중종 25년(1530) 중종의 명에 의해 이행(李衍)·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 등이 편찬 지리서이다. 지방 사회의 모든 면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서적으로, 조선 전기의 지리, 정치, 경제, 역사, 행정, 군사, 사회, 민속, 예술, 인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 문화를 살리는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在縣北五十里 臨川驛 在瑞和縣南二里 新院 在圓通驛東『新增』
 加歷院 在縣東七十二里襄陽府界 巾伊院 在縣南五十三里洪川縣界
 【祠廟】社稷壇 在縣西 文廟 在鄉校 城隍祠 在縣南四里 厲壇
 【古跡】伊布所 在縣北一百四十四里古屬春川府 世宗六年來屬 寒溪
 山古城 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一井今半頽落
 【題詠】居民八九家 禹承範詩古縣幾多歲云云 衆山深遠 絕輪蹄 河演詩云云一路
 高低傍石溪『新增』地爽常留雪 成俔詩過橋官道遠林掩數人家云云山深未有花棘
 簷寒雀謝松樹晚風多旅況增愁疾支頤日已斜 ‘이하 생략’

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현(縣)의 동쪽 70리에 있으며 또한, 현(縣)을 지나는 하천(河川)인 미륵천(彌勒川)의 원류(源流)가 4개소인데, 그 중 하나가 소동라령에서 나오고 다른 곳은 미시파령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소파령에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서화현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한자(漢字)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世代)들을 위하여 번역(翻譯)하여 놓은 자료가 있으니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필자의 줄고(拙稿) ‘고지도(古地圖) · 고문헌(古文獻)에 의한 한계령(寒溪嶺) 옛 지명(地名) 연구(研究)’에서 한 차례 활용(活用)한바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한계령의 옛 이름인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는 고개이름이 기록된 자료 중 가장 그 연대(年代)가 앞선 자료이나, 한계령의 옛 지명을 밝히고 제대로 찾고자하는 연구에서 양양군 측에 의하여 책의 내용(內容) 자체가 부인(否認)되고 일부는 제척(除斥)당한 자료이다.

그러한 연유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한계령의 옛 이름이 소동라령(所冬羅嶺)임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인제현 조(條)와 양양부 조(條)를 비교하면, 각 부(府) · 현(縣)으로부터 소동라령(所冬羅嶺)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누구도 이를 부정(否定)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44권 강원도(江原道) 편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번역본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동쪽으로 해안까지 12리, 남쪽으로 강릉부 경계까지 65리, 서쪽으로 인제현(麟蹄縣) 경계까지 55리, 북쪽으로 간성군(杆城郡) 경계까지 45리다. 서울과의 거리는 5백 11리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익현현(翼峴縣) 이문현(伊文縣)이라 하기도 한다. 신라에서 익령(翼嶺)이라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顯宗)이 현령을 두었고, 고종(高宗) 8년에는 거란 군사를 방어한 공이 있다는 것으로써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하였으나, 44년에 적에게 항복하였다는 것으로써 덕령 감무(德寧監務)로 강등하였고, 원종(元宗) 원년에는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하였다. 본조 태조 6년에는 임금의 외가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부로 만들었다. 태종 13년에는 예에 따라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속현】 동산현(洞山縣) 부 남쪽 45리에 있으며, 본래 고구려 혈산현(穴山縣)이었다. 신라에서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명주 속현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고려 현종(顯宗) 때 본부에 예속시켰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였다.

【관원】 부사·교수 각 1인.

【군명】 익현(翼峴)·이문(伊文)·익령(翼嶺)·덕령(德寧)·양주(襄州)·양산(襄山).

【성씨】 본부 김·이·손·박·하(河)·정(鄭), 장(張)·임(林)·윤 모두 속성(續姓)이다. 동산(洞山) 박·김·최·이·진(陳), 임(林) 속성(續姓)이다.

【산천】 설악(雪岳) 부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8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소동라령(所冬羅嶺)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하 생략’
남대천(南大川) 부 남쪽 2리에 있다. 강릉부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며 소동라령(所冬羅嶺)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 죽도(竹島) 부 남쪽 45리 관란정(觀瀾亭)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달고 갈려서 교묘하게 되었고, 오목한 속에 자그마한 둥근 돌이 있다. ‘이하 생략’

13 역(譯) 이익성, 한국고전번역원, 1970.

【토산】 모시, 철(鐵)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밑에서 산출된다. 죽전(竹口) 죽도에서 산출된다. 잣 · 오미자 · 지치[紫草] · 인삼 · 지황 · 복령 · 꿀 · 산무애뱀[白花蛇] · 김 · 미역 · 전복 · 홍합 · 문어 · 대구[大口魚] · 송어 · 연어 · 은어[銀口魚] · 황어 · 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송어 · 쌍족어(雙足魚) · 해삼 · 송이.

【성곽】 읍성(邑城) 돌로 쌓은 것은 둘레가 4백 3척, 높이 5척이며, 흙으로 쌓은 것은 둘레가 2천 8백 25척이고, 성안에 우물 둘이 있다. 지금은 반쯤 퇴락하였다.

【관방】 대포영(大浦營) 부 동쪽 12리에 있다. 성종(成宗) 21년에 강릉 안인포(安仁浦)에서 여기로 옮겨 왔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1인이 있다. 『신증』정덕(正德) 경진년에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 1천 4백 69척, 높이 12척이다.

【봉수】 수산 봉수(水山烽燧) 북쪽으로 덕산(德山)에 응하고, 남쪽으로 초진산(草津山)과 응한다. 덕산 봉수 북쪽으로 간성 죽도에 응하고, 남쪽으로 수산과 응한다. 초진산 봉수 남쪽으로 양아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수산과 응한다. 양아산 봉수 남쪽으로 강릉 연곡현(連谷縣) 주문산(注文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초진산과 응한다.

『신증』【궁실】 동헌(東軒) ‘이하 생략’

【누정】 태평루(太平樓) 객관 남쪽에 있다. ‘이하 생략’

【학교】 향교 부 동쪽 2리에 있다. ‘이하 생략’

【역원】 상운역(祥雲驛) 부 남쪽 25리에 있다. 본도를 잇는 속역이 열다섯인데, 연창(連倉) · 오색(五色) · 강선(降仙) · 인구(麟丘) · 죽포(竹苞) · 청간(淸澗) · 운근(雲根) · 명파(明波) · 대강(大康) · 고잠(高岑) · 양진(養珍) · 조진(朝珍) · 등로(登路) · 거풍(巨豐) · 정덕(貞德)이다. ○ 승(丞) 1인이 있다. ‘이하 생략’

【불우】 낙산사(洛山寺) 오봉산에 있다. ‘이하 생략’

영혈사(靈穴寺) · 사옹사(四擁寺) 모두 설악산에 있다. 도적사(道寂寺) 정족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부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성안에 있다. 동해신사(東海神祠) 부 동쪽에 있다. 봄기를 나라에서 향축을 보내 치제한다. 여단 부 북쪽에 있다.

【고적】 권금성(權金城) 설악산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1천 1백 12척이고 높이는 4척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오색역(五色驛) 부 서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하 생략’

【명환】 고려 최재(崔宰) 지주(知州)로 있을 때에 강향사(降香使)가 와서 존무사를 능욕하니, 최재가 말하기를, “장차 나에게도 미치겠다.” 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갔다. 김훤(金暉) 노경륜(盧景綸)에게 미움받아 양주부사(襄州副使)로 좌천되었다. 본조 이사원(李師元) 부사가 되었다. ‘이하 생략’

【제영】 봉새의 길 아득하게 북쪽 바다에 연했다. ‘이하 생략’

그 외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 고개 지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지면관계상 그 중 몇 가지인 허백당(虛白堂)¹⁴ 시집(詩集) 제10권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살펴보면, 시(詩) 소동라령을 넘어가다〔踰所冬羅嶺〕라는 제목(題目)으로 남아 있는데 이를 원문(原文)과 번역본으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踰所冬羅嶺 / 유소동라령

峻嶺盤回入太空 / 험준한 고개 겹겹이 서려 하늘에 솟았는데
 長林幽邃暗蒙蘂 / 높은 숲 속 깊숙한 산길은 어두침침도 해라
 兩山南北千峯裏 / 남북으로 펼친 양쪽 산은 천 봉우리 속이요
 一路東西萬木中 / 동서로 뚫린 한 길은 만 그루 나무속 일세
 困馬凌兢愁積雪 / 지친 말은 덜덜 떨며 쌓인 눈을 걱정하고
 疾身憔悴當風 / 병든 나는 초췌하여 바람 안기가 겁이 나네
 詩逢勝地終難就 / 시가 승경을 만나선 끝내 이루기 어려워라
 縱就還慙語不工 / 이뤘어도 말이 잘 안 된 게 되려 부끄럽네

양양문화원 이기용 연구위원이 그의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만일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지금의 북암령(北巖嶺)이라면, 허백당은 一路東西萬木中이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一路北南萬木中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東西)로 표현한 연유(緣由)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동서(東西)로 관통(貫通)하는 고개 지명이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전혀 다른 고개 지명이고 오색령은 한계령의 옛 고개 지명인 소동라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立證)할 구체적

14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1439~1504) :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경숙(敬叔), 호는 용재(口齋) · 부휴재(浮休子) · 허백당(虛白堂) · 국오(菊塢). 시호는 문대(文戴)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염조(成念祖)이다. 성현은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466년 27세로 발령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로 등용되었다. 홍문관정자를 역임하고 대교(待敎) 등을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29세로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 그리고 예문관수찬 · 승문원교검을 겸임하였다. 그는 형(兄)인 성임(成任)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었는데, 가는 길에 지은 기행시를 엮어『관광록(觀光錄)』이라 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거(根據)를 한 가지만 더 제시(提示)하고자한다. 해당 자료 역시 조선시대에 인제군을 다녀간 유명한 문인(文人)의 글에서 그 자료(資料)를 찾아보게 된 것이다.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그의 저서(著書) 곡운집 중 유곡연기(遊曲淵記)에서 한계(寒溪)와 설악산(雪嶽山)을 유람(遊覽)한 기행문을 적고 있었다. 그는 설악(雪嶽山) 대청봉에 올라 “오색령(五色嶺) 위 필여봉(筆如峯)¹⁵이 있는 곳이 동남방이고 이곳의 북쪽은 산모양이 평평하게 보이는데 미시령(彌是嶺)¹⁶이다.”라고 하였다. 문집(文集)의 내용 중에 오색령(五色嶺)과 필여봉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다.

寒溪雪嶽。古所謂山嶽之神秀者也。雄盤嶺海數百里間。東卽雪嶽。南卽寒溪。非但名於我東。王維楨寒溪山記。載於中國名山記中。蓋聞於天下矣。山中又有所謂曲百淵者尤絕異。而世多不知。近歲以來。頗有傳說。以爲避世逃難之所。歲在己未。余在谷雲。季兒昌直。携一僕。自襄陽神興寺。間關尋入。則有流民一戶在焉。遂就平阜。種粟而來。能言其形勢。余聞而樂之。略記其事。又作一絕。有碧雲深處送殘年之句。以寓遐想。其後家姪昌翁。卜寒溪最深處。辛未五月。與翁往遊。一宿茆舍。其勝致。與王維楨所記合。恩恩未得登覽瀑布。曲百淵。隔一嶺。而亦無因而至焉。丙子。家兒昌國宰麟蹄縣。寒溪雪嶽。卽縣境也。余以事再到縣衙。迫事故值雨雪。又不果往。翁姪寒溪之居。既未就而罷。又於百淵洞口。經營板屋。往來遊賞。爲余談其勝頗詳。余老矣。每恨未得一至其中。戊寅二月。又到縣。二十七日。與家兒出合江亭。乘舟渡江。踰德山。峴傍大川。川卽合江上流。由圓通東畔。至寒溪洞門。越大川。川自藍橋驛而來。又涉寒溪下流。曲折四渡。過新寺不入。歷彩霞峯。此余前日所名。下有澄潭紺寒。俗名餘項魚潭。過四巖峯。左有小瀑。名玉流泉。轉百餘步。坐盤石午飯。舊日經行。到處依依。自縣至此四十里。又行五里。抵舊寺址。前者過此寺。燬於火。瓦礫滿目。今來草樹茂密。乘籃

15 그가 기행문에서 오색령(五色嶺)이 필여봉(筆如峯)의 아래에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필레령(弼曳嶺) 위에 있는 고개 이름인 한계령은 그 오색령이 아니라는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글 내용 중의 필여봉(筆如峯)이 필레령(弼曳嶺), 필노령(弼奴嶺) 등과 한자 표기(表記)를 달리하여, 동일(同一)한 지명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도 일부 제기(提起)가 가능할 듯하다.

16 미시파(彌時坡), 미수파령(彌水坡嶺)이라고도 한다. 최병헌, 『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散文集』, 도서출판 예맥, 2005, 114pp.

輿。由東厓渡一溪。卽瀑布下流。石路巖絕峻急。攀厓緣壁。下臨危壑。此漢官儀所謂後人見前人履底者。或去輿。寸寸而登。飛流忽入眼矣。至一岡頭。俯視慄悸。越見瀑布。自北而來。左右蒼壁。無慮千百仞。飛流當中直下。曾有人下繩度其長。可數百丈。雨餘水勢益壯噴沫。因風裊娜。如霞如霧。如絲如煙。頃刻萬變。下潭冰雪猶凝。縱觀良久。創名所坐巖曰紫煙臺。初行四巖峯下。仰望峭壁。參雲摩霄。到此俯視褻積依迷中。益驗所處之高也。自舊寺至此。可五里。又稍上二里許。至大乘菴。板屋無僧。龕有小佛。廚外剝木受泉。坐北向南。左右層巒。龍虎翼翼。南望列岫。突兀軒豁。呈露崖谷。冰雪皓然。百淵流民池一尙者來待。僧覺炯，廣學亦同行。夜宿庵內。焚香明燭。耿耿不寐。翌朝。由庵北行數百步。至上乘庵。庵燬於火。處勢益高。所見益佳。轉上山脊五里許。至山巔。山之北。雪深一尺。少坐而左右望。內外山勢。皆入眼中。問於覺炯，池漢。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百淵在東北。而嵐靄杳冥不可辨。五色嶺上筆如峯。在東南。而在北巖然平看者。彌是嶺也。去輿而下。山坂峻急。冰雪沒踝。不能著足。或超越澗壑。大木蔽天。叢竹蒙密。少平處。僂人請上輿。而猶覺傾危。或步或憩。行二十里許。而得松林大溪。溪水自東而來。又有溪自北而合。是乃百淵洞府也。回望來路。在杳冥中而日已午矣。諷詠晦翁吾纓不復洗。已失塵萬斛之句。坐巖臨淵。淵深可二丈。廣袤數百步。清澈見底。色如綠玉。撐鍋作飯。少焉徜徉。東有小路。此則所謂吉洞。從此可達神興寺云。遂東行。又有溪自南谷而來。陰森窅冥。望之特異。此乃耳鐺洞云。又過熊井洞。溪水自北而來。涉而緣厓數百步。得一奧區。廣袤可耕七八日。四面環抱。午地有兩峯。已有層峯。撐銀矗玉。中有峯。峯外又有高峯。其下卽上所云耳鐺洞也。長潭繞其前。清泉出林中。此是阿翕所定可立精舍處也。徘徊上下。意象恍然。便有棲泊不反之思。遂取前詩話。名其溪曰碧雲。谷曰太始。書諸木板而立之。蓋聞自此東去數十里。有五歲童子基。梅月公多住寒溪雪嶽云者。卽此歟。閉門巖。在三十里。鳳頂寺十二瀑。在東南四十里。鳳頂則據絕頂。俯壓萬峯。傍睨東溟。俞泓窟。在十里許。複嶂攢峯。鏡潭簾瀑。轉入轉奇。而人獸兩絕。不可涯略。殆非人間景色。眞所謂自然巖且神者也。力疲日暮。若非露宿。不可往返。彷徨悵然。還過吉洞。至黃腸隅。潭瀨亦奇壯。轉數里抵村家。卽池一尙所居。又有數戶。其地稍平。可耕十許日。此卽前日家兒所到處。其時聞大木縱橫。山竹極目。焚斫播粟矣。今作平疇陳田。爲池漢所占。黍粟菽麥芝麻無不宜。但未試木綿。風霜亦與山外無別云。草莽中有廢址。傳以爲富民之居。溪西亦頗寬平。頃年作僧寺。不久而罷。今尙有殘礎毀材。傍有泉。亦可置屋耕墾。夜宿池家。板屋僅容二人。明朝。出坐溪邊。回望山谿。令人有無限意思。而

亦恨其不得久留也。山脚自西而北。遮截水口。名隔山。余又號曰千春嶺。踰此而下。行一里許。有俗所謂負轉巖。又稍下而有抱轉巖。蓋危石際水。僂僂側足。貼背而過。或攀抱而行。余以朱筆。題名於巖面。又有虛空橋。兩處斬木駕虛纜數丈。此皆所謂難過處。然此外危險。在在皆然。層巖怪石。縱橫錯布。不生雜卉。半日經行。不踏寸土。無一點塵埃氣。急流深潭。連延數十里。旁流支澗。橫入其中。左右峯嶺。千回萬轉。未及洞門數百步。又有大溪。懸流散布。自東而注。如爭如怒。勢極雄麗。自隔山凡六渡水而至洞口。長潭靄黑清瑩。上有四五層峯。此阿翕所名五老峯。峯之北。卽其卜居處。下厓渡水而至精舍。六間坐辰向戌。未及蓋板。卸輿少坐。翕也曾爲余言其形勝。今觀之。信然。噫。數十年夢想之餘。幸得探討清壯瑰詭之觀。殆難形容。雖未得窮高極深。此爲可恨。亦可以三隅反。余之平生所見。雖未廣。而所歷佳絕處。亦非一二。而到此爽然自失。昔延陵季子朝周。觀列國之樂。見舞箭者曰。其蔑以加於此矣。觀止矣。吾於曲百淵。亦云。若在數十年之前。庶可傍此誅茅。而今不可得。俯仰人世。念我谷雲。便覺有不深不密之歎。此難與俗人言也。出洞騎驪。至藍橋驛午飯。傍長川而行。驛前一里許。松林千百株蔚然可觀。踰三岐峴。歷圓通。夕還縣衙。翌日。出宿舍江亭。亭在縣東。數里許。縣後鎮山。逶迤東走斗斷。夷其上作亭四間。亭下之水一派。自彌是嶺曲百淵寒溪瑞和而出。一派。自春川麒麟縣而來。合於亭下。憑檻俯視。沙礫可數。清新灑落。超然出塵。蓋江湖樓觀。宏闊壯麗者固多矣。若以余所歷覽者而擬之於其倫。則清風之寒碧樓。春川之昭陽亭。當是伯仲之間。至如洪川之泛波亭。卑而野。風斯下矣。

谷雲集卷之四

Ⅲ. 오색령(五色嶺)의 위치(位置)

그렇다면 오색령(五色嶺)은 도대체 어디인가? 과연 지금의 한계령은 옛 오색령인가? 라는 화두(話頭)로 자료를 모으고 연구(研究)하며, 이를 글로 엮은 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최근 오색령 위치 찾기에傍점(傍點)을 찍는 커다란 계기(契機)가 마련되었다.

옛 오색령의 실재(實在) 위치(位置)를 찾는데 미력(微力)하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었는데, 그간 연구에 다소 미진(未盡)하고 부

족한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주고도 남을만한 학문적 조언(助言)과 연구서를 작성하는데 풍족(豐足)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주었다.

먼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한 오색령의 위치에 대하여는, ‘오색령은 추동천(추동천)의 발원지다.’라는 문장을 기본 토대(土臺)로하여, 해당 지역(地域)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지역과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를 여러 차례 답사(踏査)하고 각종 지리지(地理志)류와 문집(文集)에서 언급된 내용들과의 대조(對照)작업을 시행(施行)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동지지(大東地志)를 비롯한 지리서에 남아 있는 추동천(秋洞川)은 현재의 인제읍 귀둔리 귀둔천(貴屯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귀둔천은 원진개(遠鎭介)¹⁷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필레령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천(河川)으로 인제읍 하추리 마을을 거쳐 내린천(內麟川)으로 흘러든다.

여기서 원진개 계곡이라 지칭(指稱)한 계곡은 해발고도가 대략 500여 미터이고 계곡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 정상은 높이가 해발 1,235미터로서, 숲이 우거지지 않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는 원진개 도로변에서 산꼭대기 정상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원진개는 큰원진개와 작은원진개 두 개의 계곡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지역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탐방(探訪)하는 중주(縱走)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으로, 산의 이름은 망대암산(望對岩山)¹⁸이라고 부른다. 최초 망대암산이라는 지명을 접하였던 2012년 당시에는 망대암산(望大岩山)으로 그 지명을 오인(誤認)하였던 곳이다.

17 원진개(遠鎭介) : 신라 경순왕의 태자가 진(陣)을 쳤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18 대암산 : 높이는 1,235m이다. 인제 동쪽 21km 지점, 양양 서쪽 18km 지점에 있다. 백두대간(구 태백산맥) 설악산 군봉(群峰) 중의 하나로, 북동쪽에 최고봉인 대청봉(大靑峰:1,708m), 남쪽에 점봉산(點鳳山:1,424m), 남서쪽에 시선봉(侍仙峰:1,167m) 등이 같은 산체 안에 있는 형제봉으로서 삼각형을 이루어 대좌하고 있다. 대청봉 북쪽의 한계령(寒溪嶺)은 남쪽 대관령과 함께 영동(嶺東)·영서간 교통의 요로이며, 북동 산록에는 오색약수(五色藥水)·오색온천이 있어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산은 정상이 첨봉(尖峰)이고 망대암과 금표암 등 기암괴석으로 덮여 있다. 소양강과 양양 남대천의 분수령으로서, 사면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좁고 긴 협곡과 폭포, 벽담(碧潭)을 이룬 데다 삼림이 울창하여 설악산국립공원의 일부를 이룬다.

그 후 망대암산의 지명이 망대(望對)와 암산(岩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백두대간을 종주(縱走)하는 산악인들에겐 인접한 필레령이 들머리로서¹⁹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매우 유명한 곳이라는 것까지 전해 듣게 되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자연휴식년제로 묶여 있어 접근이 불가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망대암산은 고지도(古地圖)에서도 그 위치나 지명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최초 확인되고 있었다. 아래의 사진은 백두대간 종주자 단체에서 제작하여 공유되는 것으로서, 이처럼 등산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등산지도 등에서나 그 지명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었다.



19 들머리는 등산로 또는 산행을 시작하는 지점을 말한다.

원진개는 필레령으로부터 인제읍 귀둔리 방향으로 약 5킬로미터 지점으로, 예전부터 백두대간 상의 망대암산과 점봉산²⁰으로 진입하는 들머리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금번 연구에 도움을 준 타 지역 거주 전문산악인의 증언(證言)에 의하면, 인제읍 방향에서 오색으로 넘어가는 최단코스 길은 단연 원진개 계곡을 따라 망대암산을 오르는 길이라고 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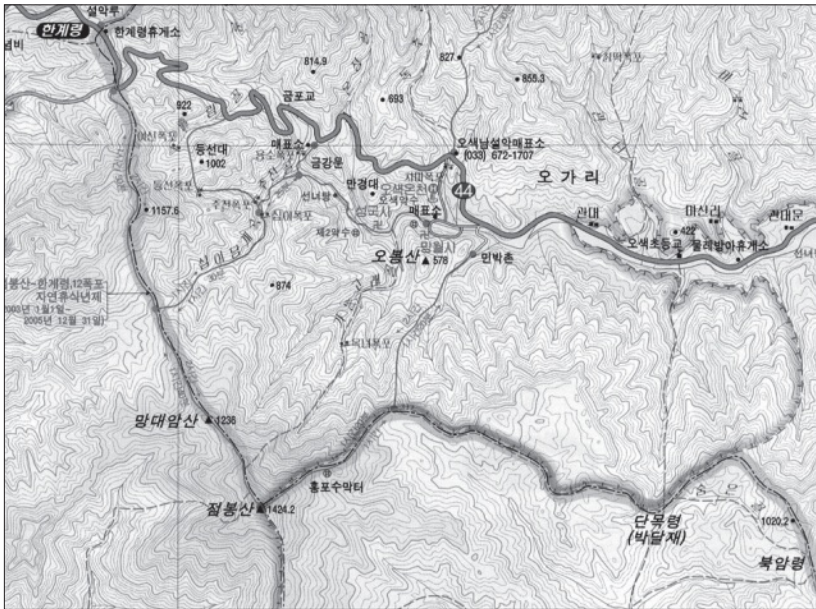
10여년에 걸쳐 백두대간 종주자들의 길 안내와 산행을 리드하기 위하여 망대암산과 작은점봉산 그리고 점봉산을 거쳐 오색리로 하산하는 등산로를, 40여회나 넘게 올랐던 경험을 소개하며 특히 작은원진개 계곡은 경사가 완만하여 용소나 폭포가 거의 없다고 전해주었다. 경사가 완만한 등산로는 산을 넘나들기에 매우 수월한 코스였을 것이니 더 이상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을 듯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주민들을 포함한 옛 조선시대 양양부 사람들이 소동라령 또는 한계령을 넘어 인제군 북면 원통리나 한계리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대암산을 넘어서 쉽사리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가리산리, 기린면 쪽으로 통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론(推論)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하느냐하는 상황에 따라서 안터길을 이용하여 점봉산으로 올라서 작은점봉산을 거치고, 다시 망대암산을 넘어 원진개 계곡 중 큰원진개 계곡이나 작은원진개 계곡을 이용하여 하산(下山)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므로 당시에도 다양한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빈번하게 이용(利用)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사진은 예(例)의 망대암산으로 오르기 위한 여러 들머리 중 하나인 오색약수 입구이다. 홀림골은 망대암산으로 접근하는데 다소 경사도가 있는 골짜기이기는 하지만, 가장 최단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오색령(五色嶺)으로 추정되는 고개를 넘어 원하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

20 점봉산(點鳳山) : 높이 1,424미터의 점봉산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지명으로, 현대에 들어서 제작된 지도에 그 이름이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미루어 점봉산 또한 설악산의 남쪽 가지로 망대암산과 같이 특별한 이름이 없었던 산봉우리로 추측된다.



아 보였다.²¹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망대암산으로 오르는 들머리를 찾기 위하여 현 장 탐방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각각 서면 오색리 오색약수터에서 ‘가는고래골’을 통하여 오르는 길과, 주전골삼거리에서 ‘십이폭포’ 또는 ‘십이담계곡(十二潭溪谷)’²²으로 불리는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길로 확인 조사(調査)되었다.

21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이긴 하나 경사도가 다소 높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색리에서 출발해서 흘림골까지 오는 노선은 너무 멀리 우회하는 길이어서 이용도가 낮았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십이담계곡 :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의 오색지구에 있는 망대암산에서 한계령 방면으로 약 30분 거리의 갈림길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계곡이다. 계곡 하부에 열두 폭의 비단 폭처럼 굽이쳐 흐른다는 십이폭포가 있고, 그 아래로 주전골(주전계곡)이 이어진다. 오색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홍포수막터~점봉산~망대암산~십이담계곡~주전골을 거쳐 오색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산행 코스는 약 6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애초에 고개라는 것이 처음부터 산의 정상부인 산꼭대기를 목표(目標)로 하여 길을 만들고 넘나들던 것이 아니라, 그나마 수월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산등(山嶺)에 만들어졌던 것이므로 위의 두 개소의 들머리 외에도 많은 진입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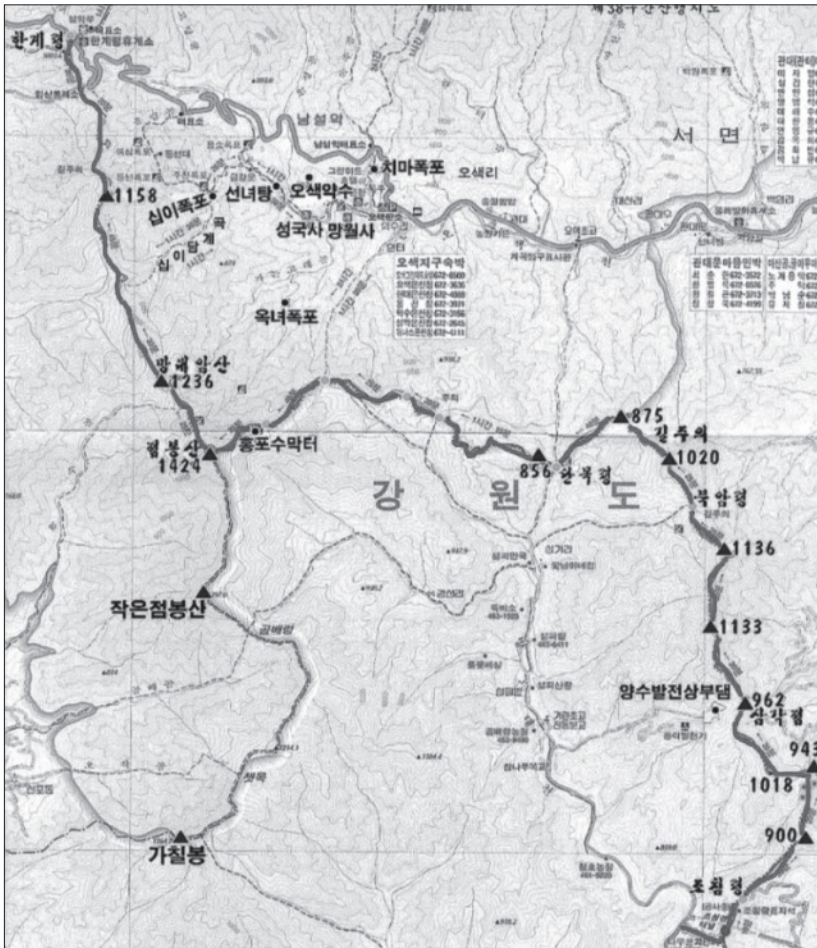
금번 연구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確認)이 되어야 할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인제군 인제읍, 기린면과의 경계(境界)를 넘나들던 고개들을 조사하는 과정(過程)에서 찾아낸 곳이 또 한 곳이 있었다. 오색리에서는 속칭 ‘안티’²³라고 부르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답사 중 마을에서 만난 주민과 대면조사를 하면서 전해들은 내
용에 의하면, 해당 등산로는 이십여 년도 넘는 오래전에 폐쇄되어²⁴ 통행



23 안터 : 지금의 오색리 관광단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오색리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등산객들과 약수터에 휴양을 왔던 사람들을 상대로 민박업업을 하던 곳이다. - 편집자 주

24 마을주민은 등산로를 폐쇄한 주체가 산림청인지 국립공원공단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인근
지법들을 확인한 결과 산림청 소유의 임야였으나 관리주체는 국립공원공단으로 추정된다.



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색리 주민들은 현 안터민박단지 길을 통과하여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麒麟面) 방동(芳洞)으로 가는 길로 이용하였고, 아주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증언하듯이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 도로명 표지판에도 ‘안터길’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오색리 구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

식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의 우측 도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경사도로 끝에 등산로가 나타난다.

안터길은 등산로가 폐쇄되어 직접 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관계기관의 허가와 협조를 득하여 연구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등산지도를 보며 추측하건데 안터길과 이어지는 산등을 따라 좌측은 단목령(=박달령)²⁵ 북암령(北岩嶺)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고, 우측으로는 홍포수막터를 지나 점봉산과 작은점봉산을 지나 망대암산을 넘어갈 수 있는 옛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5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방면의 설악산국립공원에 있는 고개 이름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지구의 점봉산(點鳳山) 동쪽에 있는 해발 855m의 고개이다. 단목령이라는 명칭은 박달나무(檀木)가 많은 데서 유래하였고, 박달재 또는 박달령이라고도 부른다. 오색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박달골을 지나 3km 거리에 있다. 서쪽으로는 5km 거리의 점봉산을 거쳐 남북으로 각각 망대암산~한계령과 작은점봉산~곰배령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북암령(北岩嶺)으로 이어진다.

IV. 글을 나서며

앞서 전항(全項)에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을 가르고 아우르는 설악산과 이를 포함한 백두대간 일대를, 동서(東西)로 남북(南北)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름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사용되는 고개 지명들을 차례로 언급한바 있었다.

이들 고개들을 다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고개들과, 오로지 도보(徒步)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개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자동차라는 문명(文明)의 이기(利機)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모든 도로가 걸어서 또는 최소한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확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제군 인근의 고개들로는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필레령, 조침령, 구룡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보로만 이용이 가능한 고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나열(羅列)하면, 석파령(石破嶺), 저항령(低沆嶺), 마등령(馬等嶺), 대승령(大勝嶺), 곰배령, 박달령(박달령=단목령(檀木嶺)), 북암령(北巖嶺), 정도를 손꼽을 수 있겠다.

이에 더하여 이름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 동리(洞里) 등에서 가장 가까운 산등을 넘어, 영서와 영동을 넘어 가고 고성군에서 인제군으로 다시 양양군에서 인제군으로 서로 넘나들던 곳도 부지기수(不知其數)였던 것이 속속(速速)확인되고 있다.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고개인 진부령과 미시령은 모두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고개이고, 조침령은 인제군과 양양군을 잇는 고개이기는 하지만 양양군 서면(西面) 오색리와는 고개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事實)이므로 옛 오색령이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史料)된다.

이에 국도(國道)가 지나가는 도로(道路)상에 존재(存在)하는 고개 이름이고 영서에서 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중에서, 가장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있는 고개인 한계령을 최초‘옛 오색령’이라 서슴없이 주장(主張)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양군 측에서 최초 한계령 정상부에 ‘옛 오색령’ 표지석을 세운 이후 현재의 백두대간 오색령으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은, 줄고(拙稿) ‘고지도·고문헌에 의한 한계령 옛 지명 연구’에서 수차례 거론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부연(附然) 설명이나 해설(解說)은 과감히 생략(省略)하고자 하였다.

한계령의 옛 지명인 소동라령이 문헌에 나타난 가장 빠른 시기는 1493년으로 조선시대 성종 때로 확인되고 있었다. 양양군 측에서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1700~1800년 대 후반의 자료들과는 거의 200여년 가까운 시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지도상에 나타난 소동라령 지명의 등장 시기도 양양군 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후(前後) 사정을 재차 충분히 감안(勘案)하더라도, 한 장의 고지도(古地圖)상에 2개소의 지명이 확연(確然)하게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서로 다른 고개였다는 점에 매우 신중(慎重)한 자세로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동라령이 한계령의 옛 지명이라는 논리(論理)에 힘을 보태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고지도와 비교(比較)하여 그림이 아닌 문자(文字)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도, 소동라령은 오색령과는 서로 다른 고개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정(否定)하는 행태는 쉽사리 이해(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양양군은 한 때 참담(慘憺)한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임금의 외가(外家)라고 하여 도호부(都護府)라는 지위(地位)까지 누린바 있었다. 그러한 명망(名望) 높은 지역의 수장이 기록한 읍지(邑誌)상에 남아있는, 소동라령의 도호부로부터의 이정(里程)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지 반문(反問)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악(雪岳)과 금강(金剛)을 여행(旅行)하며 풍류(風流)를 즐기고 자연을 벗했던 옛 문인(文人)들과 관리(官吏)들이, 문자(文字)로 남기고 기록한 유람기(遊覽記)와 지리지(地理誌)상의 소동라령과 오색령 관련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解釋)을 하였기에 서로 다른 결과물이 도출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무수히 많은 자료(資料)들이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별개(別個)의 고개 지명으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였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마저도 인정(認定)이나 수긍(首肯)하려 하지 않고 상반(相反)되는 주장을 펴고 있음에 관련 연구자로서는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함을 해소(解消)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기존의 연구서와 논문들을 근거로 하거나, 역사, 문화, 한역(漢譯), 지리, 지명, 금석학(金石學), 산악 전문가 등 동원(動員)하고 협업(協業)이 가능한 모든 재원(才員)을 가동하여 오색령(五色嶺)의 실체(實體)를 밝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傾注)하여 줄 것을 바라며 줄고(拙稿)를 맺는다.

참고문헌

1. 자료

동여비고(東與備攷)

대동지지(大東地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양양읍지(襄陽邑誌)

택리지(擇里志)

2. 도서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편, 1967

양양문화원, 『향토지』, 1976

건설부국립지리원, 『한국지리 지방편II』, 1984

김기빈, 『한국의 지명유래』, 지식산업사, 1986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배우리, 『우리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2』, 토담, 1994

강원도, 『강원도사』, 역사편, 1995

고경재,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오홍석, 『땅이름 나라 얼굴』, 고려원미디어, 1995

여진강 · 성애김, 『국역임하필기』, 민족문화추진회, 2003

최병헌, 『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散文集』, 도서출판 예맥, 2005

김동훈, 『지명전설집』, 보고사, 2007

한국지명학회, 『한국지명연구1』, 한국문화사, 2007

김진식 · 박이정, 『지명연구방법론』, 2008

전신재, 『인제군의 지명전설』, 강원민속학제22집, 강원도민속학회, 2008

3. 연구논문

이종우·이규환, 「오색령(五色嶺) 지명(地名)에 관한 고찰(考察)」, 양양문화원, 2011

이기용,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 양양문화원, 2012

최병헌, 「한계령(寒溪嶺)과 오색령(五色嶺) 지명(地名)에 관한 고찰(考察)」, 인제문화원, 2012

한승윤, 「고지도(古地圖)·고문헌(古文獻)에 의한 한계령(寒溪嶺) 옛 지명(地名) 연구(研究)」, 인제문화원, 2017



제 3 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고은조 _ 깊어가는 가을날 / 봄비 / 자작나무 숲 / 찬서리 내리고 / 햇살 화사한 날 되어라
- 권순덕 _ 슬픔 / 상징의 힘 / 미련 / 꽃비 내리는 날 / 기다림은 더 큰 사랑이라고
- 김규중 _ 자전거 라이딩
- 김상호 _ 인제 찬가 / 가슴 뛰는 삶 / 겨울에는 / 찬바람 그리고 단풍 / 情
- 김영관 _ 할아버지 지팡이 / 할아버지와 손자 / 새싹 / 달님
- 박돈녀 _ 5월 / 고향집 / 남편 / 발을 일구다 / 우산
- 박영식 _ 막걸리 한잔 / 고등어의 아내
- 박은덕 _ 상동리 공원은 언제나 천국
- 원영애 _ 공동묘지 / 버린 것 / 가을꽃 / 나는 누구 / 가슴에 피는 꽃 / 세상은
- 장순엽 _ 하얀 공기돌 / 무서리 / 대보름
- 전영숙 _ 별빛 / 보슬비 / 추억 / 꽃비
- 정순덕 _ 가을은 큰 나무에서 온다 / 그 여름밤 / 자작나무 숲으로 오세요 / 틈새
- 허계홍 _ 가을연가 / 그리움이다 /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산문

- 권순덕 _ 해질무렵
- 박돈녀 _ 산사에 핀 들꽃
- 박은덕 _ 간병을 하다
- 원영애 _ 마장터 다녀오며
- 원종문 _ 어머니와 찰옥수수
- 정순덕 _ 나도 미국에 가 봤다
- 한명숙 _ 노을을 사랑하자
- 한용운 _ 낙엽의想念 / 원앙지계

깊어가는 가을날

고은조

묵혀두었던 책갈피
수북이 내려앉은 흔적
조심스레 털어내고 펼쳐놓다

책 보따리 옆구리에 메고
깜장 고무신 발가락에 꿰차고
흙 먹고 콧물 빨던 천방지축
그 시절

엄마 꿈무늬 뒤따르며
도움은 고사하고
수고로움만 두 배
아!
그리운 그 시절아

못내 아쉬워
조그마한 화단에
국화꽃을 심었다
향기를 심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
향기는 하늘 날다

봄비

고은조

지붕위서 들리는
또르륵 또르륵
경쾌한 빗소리
봄을 알리네

따스했던 보온내의
고이접어 넣어두고

노오란 산수유는
좋은 비 마중하여
꽃망울 터트릴 차비하네.

화창한
봄을 닮은
나이고 싶다

자작나무 숲

고은조

바람이 떨어진 낙엽을 휘몰아 날리는
12월
속살을 보는 듯 한 자작나무
쏟아지는 햇살사이로
너랑 나랑은
손각지 끼고 도란도란 얘기하며
그 길에 올랐지

이름 없는 시골마을에서
우린 태어나고 자라서
각자 삶을 살았지

자작나무 숲에서
어깨동무하고 얼굴 비비고 비밀 터놓고
깔깔 소리에 앉아있는 새도 날아가고

놀~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떨어는 가슴 부여안고
내려와서는
또 얼마나 조잘대며
가는 시간 붙잡지 못했지

무심타 이제는 다시
그 햇살 볼 수 없음에
그 새소리 들을 수 없음에
서러워 검은 눈물이 내리네.

이제
우리에게는 희미한 회상의 긴 계곡만이 남겠지

찬서리 내리고

고은조

가을이 온다기에
은비령 꼬불길
한계령 꼬불길
곶개 물들
단풍길 올라
흰 구름 머문 자리
형형색색 가을 담고
하 세월
벗들과 약속했건만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찬 서리 내리니

어느새
가을은 저만치….

햇살 화사한 날 되어라

고은조

꿈엔들 잊을까 잠 설어
하늘 노오랗다
그리움 많은 날들
쌓이고 쌓인 세월로
꽤 이루더니
오늘에서야
드디어 품에 안다

모든 것 듬뿍 주겠노라
다짐했건만
마음만 분주하고
돌아가는 초침은
어느새
예 와 있나

백날 지나면
돌아갈 그곳은
혼자이거늘
항상
햇살 화사한 날 되어라

슬픔

권순덕

하루종일 펴뱌던 눈발 그치고
눈녹아 드는
저녁 어스름
인적 끊긴 골목 모퉁이
떠들던 취객 모두 빠져나간
불빛 희미한 주막
여자 혼자 들어와
국밥 한그릇 시켜놓고
멍하니
소주잔만 기울이던

살아온 날들이
소주병이 흘린 눈물을 타고
끝모를 어둠속으로
아득히 함몰되고 있던

아직도 나는
그 거울에 서 있다
세월을 건너 뛰지 못한 채

상징의 힘

권순덕

사위가 추석에 가져온 영광굴비
비닐줄에 묶여 온
굴비를 보며
의심스런 눈초리
정말 영광 굴비 일까

흑산도 홍어
영덕 게
의성 마늘이라고 외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것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 해협을 지나왔을지 모른다는 걸

상징을 먹고 사는 시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제품을 의심하는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기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상징을 팔고 있거나않은지

언제부터인가
이미
상징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었고
아니
실재보다 더 큰 상징이 되었다

미련

권순덕

내 안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살면서

제멋대로

수시로 드나들다

어느 날

홀연히 떠난 자리

잠초만 무성한데

아직도

빈 자리에

서성이는 그림자

꽃비 내리는 날

권순덕

온 천지 가득

절정이다

양상한 몸 속에

저토록 환한 사랑을 숨겨 놓았다니

어찌할거나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젖봉오리

온 몸의 신경줄 팽팽히 당겨지고

붉게 달아오는 땀

사랑앓이로 잠 못 드는 밤

짜을 부르는 새소리에

꽃비 내리는 밤

천지가 울음으로 먹먹하다

기다림은 더 큰 사랑이라고

권순덕

들리지 않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며
조금씩 낡아가는 고향집 마당에는
히끗히끗벗겨진 거친 피부에 피어난 검버섯
내다 버려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낡고 오래된 의자가 있습니다

아침엔 새 한마리 날아와 물끄러미 앉았다 가고
낮에는 심드렁한 햇살이 길게 누웠다 가는
적막만이 오랜 친구인 그곳에는
무릎 관절로 빼그덕 거리는 다리 힘을 모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안간힘으로 버티는
나의 의자가 있습니다

한 때, 서로 차지 하려고 싸우던 예쁜 모습 자취없고
빼 마디 마디 세월의 풍상 고스란히 드러난
말을 잃고 추억을 그리는 야윈 의자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바람처럼 흔들릴 때
한걸음에 달려 가듯 기대어 울고 싶은
기다림에 야위어 가는 무릎의자가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김규중

처음 떠나는 장거리 라이딩
고교 동창 넷이 가을 입새에 모여
자전거 바퀴와 페달을 끼우며
설렘을 짐반이에 가득 싣고
‘할 수 있다’를 외치며
북한강, 남한강, 금강종주라는
버거운 꿈을 메고
고교시절 풋풋함으로 페달을 내딛는다

고구마 수확에 여념이 없는 들판
강변 가득 채운 코스모스
달맞이 꽃대 타고 올라온 나팔꽃
멋대로 멋을 부린 갈대와 억새군락의 판타지
바람개비의 유혹
멈출 듯 이어지는 물, 들, 산내음

반짝반짝 빛나는 도토리
탱글탱글한 알밤
냄새나는 은행 열매
땀, 지렁이, 메뚜기가
때론 쉬어가라고 길을 막기도 한다

타이어 펑크로 끌고 가는 수고
넘어져 피가 나는 무릎
흠뻑 젖는 셔츠
정자에서 나누는 간식
길가 옆 카페에서 한가롭게 마시는 차
우리를 반기는 마을 마을들이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서로 힘을 돋우고 응원하며 달려온 5박 6일
금강하구에서 460여km의 파노라마가 멈춘다
땀범벅 웃음으로 환호성을 지르곤
더 큰 꿈을 얘기하니
금강이 빙그레 웃으며
시원한 바람으로 화답한다

인제 찬가

노노족 김상호*



아침엔 새벽운무
소리를 마시러 가자 가자 인제

점심엔 풍부한 은빛 햇살 마시러
가자 가자 인제

저녁엔 향긋한 솔바람 마시러
가자 가자 인제

늦은 밤엔 포근한 달빛을 마시러
가자 가자 인제

풀잎맺힌 이슬
맑고 순수한 영혼의 인제로
가자 가자 인제

가자 가자 인제
가자 가자 인제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

설악의 웅장함 방태산휴양림
은백색 자작 나무숲 용늪 세계문화유산
아늑한 대자연이 있는 곳
가자 가자 인제

내린천 물줄기는
내리사랑 님의 뉘
가자 가자 인제

레포츠 천국 드넓은 캠핑장
즐거움이 있는 곳
가자 가자 인제

하늘 내린 인제
신이 주신 인제
가자 가자 인제로

가자 가자 인제로

* 아호 : 노노족 김상호
인제 출생, 특전사 원사 정년퇴임
아주대 경영대학원 졸(MBA)
한국문학등단(2016)

* 저술: 마음을 훔쳐봐 등 7권, 유튜브 영상시 게재 137편
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교육팀장, 국방부 전직건설팀 본부장
스카우트 이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외래교수역임
대한시문학협회 이사, 선진문학고문, 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새한일보 논설위원 / 충청일보, 수원 인터넷뉴스 칼럼니스트
SM인재개발 평생교육원 원장, 세계전뇌학습아카데미 홍보대사
제향군인 부서관 연합회 홍보대사

* 상훈: 한국문학 신인문학상, 림영찬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모산문학
우수상 수상, 세종문화예술대상 문학부문 대상 수상(2021), 국방부 독서코칭대상, 국방부장관, 경호
실장등 장관급 / 지차례 / 기관 표창등 84회 수상, 대통령표창, 보국훈장광복장서훈, 자랑스런아주인
상, 00년도신지식인 국방분야 선정, 가천대, 아주대, 유한대, 부천시 등 감사패 다수, 국가유공자등록
(2009)

가슴 뛰는 삶

노노족 김상호

기도 믿음으로 살아온 삶
답은 없었어도
몰두했던 생애찬바람 순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어쩔 그것이 바로 내일의 희망
지금의 사랑이며 기쁨의 행복이 아닐까

내인생의 삶을 위한
가슴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한다
인생 그래서 좋다
좋아

겨울에는

노노족 김상호

어느새 찬 바람불어와
첫눈 내리고
가자가지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겨울
당신에게 따스한 미소 한 스푼 넣어
커피 한잔 보냅니다

겨울에는
당신과 따스한 사랑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 그리고 단풍

노노족 김상호

창념어 단풍 자태 고운데
북녘 찬 바람 찾아와 보채고
바라 바리 떠는 그잎새 안스러워
내리는 빗방울 볼 타고 흐르네

흐리는 눈물
어느새 싸리눈 되어
채곡 채곡 쌓여만 가고
가슴 마저 시려 오누나

바람아
멈추어 다오
눈물 짓고 이가슴 시려오지 않게
이 고운 자태 곁에 있게 해주려무나

情

노노족 김상호

느낌은 그리움
보고싶은 생각이여

내안에 자리해서
이젠 사랑 이여라

언제나
나의사랑

삶속에 사랑
그대 情 때문이려오

동시

할아버지 지팡이

백송 김영관*



길 나설 때면

무릎 아프신
우리 할아버지

오른쪽은 언니
왼쪽은 나

오늘도
할아버지
지팡이가 된다.

* 김영관(金榮寬) kwan1257@naver.com

아동문학 평론가, 교육평론가, 시인. 2002년 《아동문학평론》에 평론 「사계의 민족주의 아동문학」으로 등단, 2004년 《교육평론》에 교육평론가 등단. 1997년 《동해안시대문학》, 1998년 《옥로문학》, 1999년 《문학공간》으로 동시 부문 등단. 2006년 《공무원 문학》으로 시 부문 신인문학상 받음.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철학박사, 한림대학교 생명교육융합대학원 生死學 박사과정 마침. 한국아동문학학회 기획위원,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 계간 아동문학평론 기획위원 및 평론활동 중. 인제 백송 아동문학학교 설립운영 중. 현재 강원도 인제군 인제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동시

할아버지와 손자

백송 김영관

손자가 단잠 잘 땐
할아버지는 부채질을 하시고

할아버지 등 가려울 땐
손자 손이 슬금 다가오고

할아버지
오냐, 내 새끼

과자 사러
마트도 함께 가고.

동시

새싹

백송 김영관

마음 풀리는
봄이 오면

썩인 눈 녹아
겨우내 깔았던
이부자리를 걷는다

땅 속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대고

잠자리 툭툭 털고
일어서는 새싹들.

동시

달님

백송 김영관

인제 기룡산

재잘거리는 아기 참새도
몰래 잠든 아기 다람쥐도

달님은
숲 속을 내려다보며

환한 웃음으로
환한 빛으로

다 보고 있다고
함께 하고 있다고.

5월

金園 박돈녀

미루나무 홀씨 눈처럼 날리는 날
질푸른 마늘밭 김을 매다
“아이구. 오늘이 스승의 날이네”
객지 나가 선생노릇 하는 아들
편지라도 보내줘야 겠다.
호미 쥐어 굵어진 손. 경련을 일으키며
컴퓨터 자판 두 드린다
돋보기 쓰고도 찌그린 눈

“아 야!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디
위쩌냐 혈만 한겨. 수고 많다 야
속상한 일이 많제 그러니 위쩌냐
참고 속으로 다스려야제 속상 혈뎌
네 울타리 속에 들어가는 예미 애비
생각하고 아덜 잘 갈켜라이 그놈들이
이담 알 끼다 권선생 은공을
암암
알고 말고.”

고향집

金園 박돈녀

섯 다리 건너 구불대는 산골길
외할머니 산소에 무리 진 할미꽃
꽃술 하나 가득 웃음이 인다

몇 구비 산모퉁이 돌아 나오면
멀리 논배미 마다 고개 숙인 벼
붉은 노을에 흥안 된 허수아비

생솔가지 때는 고향집 굴뚝
화로 숯불 가득 달래장 내음
가마솥 보리밥 뜸 드는 냄새
묵은 김치 장아찌 시래기나물
두리반 가득 차려 놓고서
짜리문 기대어 기다리는 어머니

하나둘 모여 앉은 허기진 배들
목젖이 보이도록 벌어진 입엔
들기름 넣고 비빔 보리비빔밥

눈물 나도록 정겨운
내고향집.

남편

金園 박돈녀

식탁에 마주앉아 밥 먹는 남자
찌개가 짜면
“요즘 소금 값이 싸졌나 봐”
“아니 안 싸졌어”
나를 바보로 만드는 남자

같이 앉아 TV 볼 때마다
리모콘 쟁탈전에 승리하는 남자

“사람은 시사에 밝아야 돼
찢찢 찢는 연속극이나 보는 사람은
뒤 떨어진 인생이여”
나를 평생교육 하는 남자

어쩌다 술잔 기울일 때면
예쁜 사람보다 못생겨도 아담하고
귀여운 사람이 좋다고
내 얼굴에 살구꽃 피우는 남자.

발을 일구다

金園 박돈녀

한 삼 폭 뜨니
화들짝 놀라 흠어지는 벌래들
깨트린 아버지 밥사발
삭은 고무신짝
어둠에 묻혔던 것들 쏟아져 나온다.

분주한 일상의 노역이 그곳에도
계으른 자의 꿈틀대는 선잠
노숙의 의미는 거기도 있었다

누군가 다져진 내안에 묵정발
한 삼 폭 떠
엎드린 어둠을 몰아내준다면
놀라 흠어진 벌래 들처럼
나도 온 길을
정신없이
되돌아가고 싶다.

우산

金園 박돈녀

비가 온다
혼돈의 세상이 되고 보니
하늘도 종잡을 수 없다

새우산은 다들 쓰고나가고
살 부러진 낡은 것만 꽃혀있다
한때는 저 낡은 우산 꽃무늬처럼
나도 화사하고 꽃꽂한 때가있었다

젖고 축축한 삶을
막대하나에 지탱하면서도
낄낄대며 웃었다

비는 그치고 뚫어진 우산 속으로
쨍한 햇살 한줄 들어와
별나게
가린 얼굴 비춘다.

막걸리 한잔

박영식

탁!

흔들고 때리면 솟구치는 열정
빈 탁사발은 배고픔에 헐떡이고
불붙은 파전 위 오징어들은
오르가즘에 몸서리친다.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열기 가득한 파전은
여인네의 누런 허벅지처럼
잘도 뒤집어진다.

헐떡이던 빈 탁사발에
막걸리 가득 부어지고
속을 알 수 없는 여인네의 웃음소리에
배를 채운다.

고등어의 아내

박영식

살 쥔 고등어 한 마리
프라이팬에 구워졌다
고등어 살이 발리고
콧! 가시에 걸렸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더니
목에 앙칼진 가시가 걸렸구나

어쩌라고?

고소한 겉살을 먹으면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할 걸...
보드라운 속살을 먹으면서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할 걸...

목이 메이고
고등어 한 마리가 웃는다

상동리 공원은 언제나 천국

박은덕

유모차 밀고 공원 입구에 들어서 아버지
제일 먼저 반기는건 찰리다.
어느 할아버지의 반려견이다,
상동리 공원의 오후 풍경이 시작된다.
그중에 으뜸인 김영감님은 나이가 제일 많으신
백발의 노신사다.

늙은 소년들은 전쟁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늙은 소녀들은 며느리와 손자 자식 얘기에 시간
가는줄 모른다.
까치들도 참견하며 깹깹 거리는 공원 요구르트 파는
여인은 오늘도 음료를 제공한다.

김영감님 며느리도 빵과 과일을 내어준다.
상동리 공원은 언제나 천국이다.

공동묘지

杜宇 원영애

비 오는 날이면 모두 고개 든다
치녀귀신
몽달귀신

산 세월 뽑아들고 춤춘다
요지경 바로 그 세월이었다고
햇갈려 지나간 날들
입안에 녹이던 그 말

쓸쓸하다
역겹다
전생 업보 인연 따윈 비웃고 가는
비실비실 죽을 때
헤일수 없는 사연들이 소리친다.

버린 것

杜宇 원영애

내가 이미 나를 버렸거늘
어찌자고 없는 나를 밀치고 소리지르나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오욕이었나 보다
이미 나를 버렸거늘
무엇을 찾으려고,

말하거늘
찾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

구름 떠가는 하늘 아래
그림자 하나 머물다 가는 것인데.

가을꽃

杜宇 원영애

귀뚜라미 소리가
국화꽃 피라고
숨어서
꽃내나는 소리로 웃어요

소녀가 까르르
부끄러운 몸짓을 하네요

별은 총총히
우물 속을 기웃거리는데
반짝이는 숨소리는
문 밖을 서성거려요

붉은 파도가
성혼을 이루었다고
즐거운 콧노래 해요.

나는 누구

杜宇 원영애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였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업으로
세상에 와
자연의 굴레에 얽혀
태를 이어 온 것이
전부인데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한 줄에 이어져
나도 부모도
타고난 업으로 살았는데
죄와 벌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혜안만 터득하면 되는
그게 뭘까?

가슴에 피는 꽃

杜宇 원영애

허한 별판에 바람이 산다더라
쑥부쟁이 피었어도
달뜬 밤은 화려하니 더 외롭다더라
낙엽이 누운 자리엔
풀꽃 혼자 고개 높여
찬바람 소리에
혼절되어 외롭다더라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밀려가고 밀려오는 산자락
흐르는 갯여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더니
거센 바람 휘몰아치면
싸늘한 강나루 살얼음 피워
첫눈 받을 마음으로 부른다더라.

세상은

杜宇 원영애

세상은 내가 던진 돌이
다시 돌아와 맞는 것이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고통도 내가 만든 일이고
기쁨으로 웃는 일도
내가 만든 일이다

남을 탓하지 마라
상대를 아프게 만들면
자신이 아파지는 것이고
상대를 외롭게 만들면
내가 외로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냥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가슴 아프다 가슴 치지 마라
무심히 던진 돌팔매에 내가 맞고
밟다 흘린 눈빛이
다시 돌아와 나를 때리는 것이다

지금나는 내가 던진 돌에 맞아
그 상처를 앓는 중이다.

동시

하얀 공기들

장순엽*



넓은 논바닥에
벚꽃이 들어있는
하얀 공기들

캄캄한 밤되면
달님 등불삼아
거인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다가

안개 자욱한 새벽
농부 발걸음 소리에
깜짝 놀라

공기들 버리고
달님 뒤에 숨었나봐.

* 문학공간 2021년 신인문학상 동시부문 등단
백송아동문학학교(한국아동문학전공)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회원

동시

무서리

장순엽

알록달록 다알리아꽃
푸릇푸릇한 무 잎사귀
누렇게 익은 벼 이삭

갑작스레 내린 서리에
은빛 옷을 입어요

늦가을에 무서리가
햇살을 만나

온 세상을
보석으로 만들어요.

동시

대보름

장순엽

깡통에 구멍 뚫어
작은 불씨와 관솔을 넣고
하늘 향에 빙빙 돌려
불놀이해요.

날아오르는 불꽃들이
도깨비불이 되어
하늘에서 춤춰요.

작은 언덕 위에
달집을 높이 세우고
떠오를 보름달 기다려요.

둥근 보름달이
동산에 떠오르면
나는 작은 소리로
달님께 소원을 빌어요.

별빛

소현 전영숙*

어둠이 내리면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에 취해
스르르 포근함이 밀려온다

수천 미터 절벽 위
천혜의 보금자리에 자리 잡은 별세상

연하고 짙은 푸른빛 물결에
달콤함이 온몸으로 퍼진다

촉촉이 마음을 적시는 이별의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황홀했던 그날의 미소를
품에 안으며 행복을 그린다

* 등단 : 2014년 문학세대(시), 2014년 모던포엠 (수필)

* 저서 : 쪽빛하늘 품에 안기면

* 수상 : 강원문학작가상, 강원문학교육작가상

* 활동 :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강원문학교육연구회,
강원수필 문학회, 춘천낭송가협회, 한국전각협회

보슬비

소현 전영숙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소리에
철커덩 마음이 내려 앉는다

그때 그날의 흔적들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절구질을 쉼 없이 퍼부어댄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아팠던
정성껏 다하지 못한 죄책감

가슴에 멎든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깊게 박혀 떠날 줄을 모르고 남아 있다

늘 설산을 품에 안은 듯 시린 그리움은
이제 그만 빗물에 씻기어 내고 싶다

구정물이든 흙물이든
흘려 보내고 싶다

나 편하고자 이기심 많은 욕심으로
빗소리에 마음을 달래어 본다

이별 투성이 삶속에서
엄마인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추억

소현 전영숙

먼지가 폴폴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뿌연 흙먼지로 가득했던 길

한동안 보지 못했던 정겨운 시골길을 찾아와보니
사람 흔적 드물고 거리는 시커멓게 감싼 포장의 서먹서먹하다

하지만 도로 만든 징검다리
그 자리에 있으며 오고가는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고 있다

돌틈 사이 은빛 물고기 떼가 이리저리 숨느라 바쁘다
초록 빛 옷을 걸친 물속 아낙네는 힘겨운 춤사위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늘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작은 웅덩이 기포속 인생사 잔해가 존재 하는 동안

오색물고기를 꿈꾸며
홍자 빛 환상의 소리를 풀어내고 있다

꽃비

소현 전영숙

피할 수 없이 가야 할길
내게만 오는 길이라
착각을 이끌며
햇빛이 바다에 쏟아지듯
봄의 정령이 바람에 실려 날고 있다

씩이 트고 맺어지고
시간의 흔적을 삼키니
이별을 머금은 듯
꽃비가 내린다

첫봄 가득한 길 끝에는
초록세상이 열리기를
숨죽여 기다리며
벚꽃 한송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가을은 큰 나무에서 온다

華曇 정순덕

바람이 불고
진하던 녹색잎, 단풍들어
후두둑 바스락 떨어지면
땅은 가을을 덮고
겨울을 준비한다

왕방울만한 대추도
고슴도치를 닮은 밤도
해바라기 쭈부쟁이도
툭!
떨어져 흙속에 묻히고
겨울지나 봄을 계획한다

별들도 밤하늘 떠나고
하고픈 말이 남았는지
서산에 달님 머뭇거리는데
부지런한 햇님 뒤척이는 새벽 길
떨어진 다래를 줏어 입에 넣는다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을은
달콤했다

그 여름밤

華燾 정순덕

진종일 들일을 하고 돌아 온 어른들
부랴부랴 저녁밥 지어 먹는다

땀에 젖어 구멍이 숭숭한 속옷을 입은 아버지 따라
막내는 엮고 동생들 주렁주렁
필력이는 어머니 월남치마 자락 따라
논두렁 지나 밭두렁 지나
내린천으로 나간다

옥수수 수염 강바람에 산들산들
옷 입은채 물속으로 텀벙텀벙
무더웠던 하루의 찌꺼기들 씻어낸다

보일듯 옆집 사람들 왁자한 목소리
말장단 물장단
때수건이 필요없는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새까맣게 탄 등 밀어주고
수줍음 많은 달님도
까불까불 별들도 물놀이에 뛰어 들었다

논두렁밭두렁 지나 흥얼흥얼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여름밤
미처 씻기지 못한 가난의 땀국물
뚝뚝
밭밑으로 떨어졌다.

일곱식구 달빛 받아 환~하던
그 여름밤

자작나무 숲으로 오세요

華曇 정순덕

자작나무 숲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뽕죽뽕죽 새싹이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래를 듣고 깨어나
자작자작 향기로 피어오르면
그 향기 찾아 오세요

파란 하늘
쨍그랑 햇빛 쏟아져
연록을 베푸는 자작나무 그늘
검은 상처 투성이의 나무등결에 기대어
멀리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스스스스
나뭇잎 떨어져
발등을 덮고
빈 가지 사이로 비추는 석양아래
저물도록 서성이며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흰눈인가
자작나무 숲인가
분별할 수 없는 하얀 밤
화톳불 자작자작 타고 사그라들고
여명이 피고 동트는 아침이 올 때까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틈새

華曇 정순덕

건물 외벽
널판지 틈새로 능소화 빠르게 살아있다
비집고 튀어나오고
벽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꾸불텅꾸불텅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기여코
꽃을 피운 능소화
세상살이 지겹다 어렵다 말 하지마라
틈새로 뺨은 가지
외벽 타고 간판 타고
붉은 능소화
아슬아슬 피었다

가을연가

허계홍

세상살이 고단할 때는
구름을 이고 산에 오른다
안개 걷힌 산정에 올라보니
풀꽃내음 물씬 풍기는데
수십 년 살아온 세월이 턱에 차올라
거친 숨소리는 바람을 일으킨다

계곡의 청아한 물소리는
가을바람에 걸려있고
산새들 지지배배 화답하는 곳
생명의 환희가 이곳에 있었구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내 삶마저 아쉬워서
머물다 갈 시간도 없이
먼먼 훗날이 오늘일 듯
내안을 깨워주는 가을 속으로
발자국 남기려니
짧은 햇살이 이마에 내린다
산허리 베고 시 한수 어 올리듯
오늘도 노송의 단풍진 가을을
노래 부른다.

그리움이다

허계홍

이리저리 스쳐가는
산골짜기 헤메이는 바람도
뱃길 따라 두둥실 물길 타는 바람도
그저 지나가는 그리움이다

한겨울 눈보라 집어 삼키고
봄 꽃 봉오리
터트리는 꽃바람도
그저 아름다운 그리움이다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느낌의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밀려오는
눈물은 그리움이다
다가오는 황혼의 찜 한 그리움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허계홍

산봉우리 걸쳐있는 흰 구름을 보느라면
구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변하고 있다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세월에 묻어 잊어버린다.
그리움도 괴로움도
죽을 것 같은 한때의 감성이다
죽고 못 산다는 사랑도 이별은 있더라.
잊을 수 있어 웃을 수도 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세월이가는 길목에 서서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해질무렵

권순덕

하루의 피로를 등에 지고 해질녘의 거리를 걷다가 문득 먼 하늘을 바라 본다.

구름 한조각 보이지 않는 뿌연 도시의 하늘, 그 허전한 언저리로부터 건조한 바람이 휩쓸고 올때면 진한 공허가 허기증처럼 밀려온다. 마음 나눌 친구조차 없이 멍하니 혼자 돌아 오는 길은 왜 그리 길기만 한지...

아직은 퇴근이 이른 시간인지 역전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다.

신촌역은 변화한 도시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시골 간이역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서울역에서 타면 앉아서 갈 수도 있으면만 굳이 신촌역까지 와서 교외선을 타는 이유도 한적하고 초라해 보이는 신촌역이 복잡한 서울역보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빠양’ 꼬리가 짧은 기적을 울리며 덜컥덜컥 기차가 달리고 있는 차창밖, 야트막한 스테이트 지붕과 이발소, 여인숙 간판이 늘어서 있는 능곡역을 지나면 어느새 추수가 끝나가는 확트인 벌판과 낮은 산을 둘러싸고 웅기 종기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이 나타난다. 저녁무렵의 어스름이 다가오는 벌판, 늙은 농부 내외가 얼마남지 않은 들일을 하다가 피곤한 허리를 펴때쯤이면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논두렁까지 다다르고,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뚝길엔 어느새 느슨한 석양이 와닿는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들녘에서 돌아오는 저녁이면 늘 신작로 끝의 선술집에 들러 막걸리 몇잔에 거나해지신 모습으로 돌아오시곤 하였다. 엄마는 저녁상 찌개가 식을까봐 아궁이속 불씨가 남아있는 삭정이를 모아 된장뚝배기를 올려 놓으시고 신작로가 내려다 보이는 뒷뜰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시곤 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노을진 마을을 지날 때 뜨거움이 목젖을 눌러 황망히 고개를 숙여버린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을 벽제의 산모퉁이에 누워 아버지는 지금 누구와 마주 앉아 잔을 드실까?

“소금보다도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주막을 나서면
노을비긴 길은 가없이 길고 가늘더라만
내 입술이 닿은 사발에
누가 또한 닿으랴, 이런 무렵에…”

김용호 시인의 쇠귀가 가슴에 와닿는 저녁,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종착역이 없는 기차를 타고 지구 맨끝까지 가고 싶었던 날들, 지나온 세 월속엔 그런 날이 참 많았다.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채, 이젠 그런 욕망조차 겁이 나는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대부분 시골 사람들인 듯 열차안의 대부분은 거의 눈을 감은 채 말이 없다. 내옆에 앉아 있는 아줌마의 등에 업힌 아기는 막대 사탕을 손에 쥔채 잠이 들어있다. 모두의 얼굴에 하루가 지나는 막막한 안도감과 피로의 기색이 얼룩져 보인다. 모두가 돌아 오는 시간. 밖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하나 둘씩 돌아 오고, 새들도 둥지를 찾아든다. 해질무렵이면 따뜻한 곳, 정이 그리워진다. 어떠한 변명이나 사과의 말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분노가 사라지고 어스름과 함께 부드러운 안식이 찾아든다.

몇 사람을 내려놓은 뒤, 기차가 떠나 버린 텅 빈 벽제역.

노을속에 갇혀 붉은빛으로 빛나고 있는 간이역의 풍경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서정의 고향같은 것은 아닐까?

역 앞, 뽕오얀 연기를 일으키며 달아나는 군용차를 피해 도로를 버리고 들길로 접어든다.

해질 무렵의 들길은 외로움과 향수를 느끼게 한다. 가을걷이도 끝난 텅 빈 벌판에 두 팔을 벌리고 서있는 허수아비가 눈물겹다. 쇠잔한 노인의 기침소리 같은 짧은 석양빛마저 사라진 어스름속을 걸어 마을로 들어선다.

가까이 개짚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디선가 어우러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저녁.

요즘도 이웃집 영감님 생일이면 온 동리 사람들이 몰려가 아침을 먹는 인정이 남아 있는곳.

창마다 흘러나오는 불빛이 정답다.

황혼이 지고 창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질 때, 누군가 기다려주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커다란 축복인양 고맙고 감사하다.

맛있는 찌게 냄새가 흐르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멀리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온다.

산사에 핀 들꽃

金園 박돈녀

밤새도록 개꿈에 지쳐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

남편의 밥 타령에 주방으로 가려는데 TV에서 〈인간극장〉이 나온다. 늘 시간이 모자라 별로 TV를 보지 못했는데 어느 절의 동자승들이 우르르 뛰고 노는 것이 보인다.

나는 천주교회 신자이지만 평소 불교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배추장국을 해 안치고 TV 앞에 앉았다.

담양에 있는 용화사라는 어느 산사의 이야기였다.

16명의 동자승들, 나이도 4살서부터 17살까지의 다양하게 사연도 가지가지인 아이들 16명을 용화사 큰스님이 품으신 것이다. 절도 크지 않은 단층건물에 부처님을 모시고 맡겨진 개구쟁이들, 부모 앞에선 한없이 철부지일 아이들이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선함을 배우고 큰스님의 절도 있는 생활관과 엄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와 굳건함을 배운다. 세속과 산속생활의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보듬고 살고 있다. 아이들이라 저희들끼리 다툼도 있겠지만 작은 스님 30대로 보이는 성광스님은 풍채도 좋고 얼굴은 솔직히 말해서 폭력배처럼 생겼는데 아이들을 총괄 맡아 관리를 한다.

4살된 선희스님은 어느 절 달력사진에서 본 듯한 애기동자승 중에 한 아이처럼 보이는 귀여운 동자승이다 때론 이불에 오줌을 싸서 형님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동자승들 중에 꽃이었다.

큰 스님의 배려로 아이들 각자의 특기를 살려 앞으로의 진로를 정해 운동선수, 군인, 선생님 화가 등등 열심히들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인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반가움보다 헤어질 때의 괴로움이 더 클 것이 걱정이 된다.

와락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와 아버지 침묵이 흐른다 얼마만큼 그리웠는가 눈물이 말해주었다.

아이의 흐르는 시간이 안타까워 눈물이난다고 했다.

데리고 살 수 없어 맡겨놓은 12살 아이. 큰스님이 지어주신 선록스님이었다. 아버지를 보내는 아이의 울음에 가슴이 아프다. 하나하나 사연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아픈 사연 안고 온 아이들 돌봐줘야지 어찌겠냐는 큰스님 말씀에 숙연해진다.

산사의 살아가는 모습은 짜놓은 프로그램처럼 다양하게 아이들 교육이며 일상생활. 산문을 나서는 모습 등등 부모를 대신해서 놀아주시는 성광스님 똑배기보다 장맛이란 말이 걸맞다.

공평을 기하기 위해 청소구역을 제비 뽑는 일, 절에서 하여야할 천수경을 외워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 주는 일, 바라춤은 마음을 정화하는 춤으로 먼저 들어온 아이들이 갓 들어온 동자승들을 가르쳐 속세의 욕망과 번뇌를 떨치기 위해 바라춤을 가르치는 일이다.

형이 동생들을 돌봐주고 형을 따르는 철저한 위계질서 어느 속가의 가정에서 이런 것을 배우겠는가.

성광스님이 운전하여 시내구경을 간다 신발을 사기도 하고 양말을 사기도 한다. 또 스님이 사주시는 핫도그, 짜장면을 먹으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잠시 그리움을 잠 재웠으리. 돌아오는 길 장난기 발동한 성광스님이 아이들 닭싸움을 시킨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웃음소리 골 안을 가득 메운다.

수계식이 있는 날이다. 수계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계를 받는 예식이라고 했다 10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셈인 것이다 일찍부터 동자승들은 가사를 받아 입고 예식 중 팔에다 향으로 지지는 형식은 속가와 끝나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10계를 잘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큰스님께 절을 올리고 수계 증을 받는다. 단체사진도 찍고 의미있는 행사가 끝나고 큰스님이 먹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으니 “피자요 햄버거요 통닭이요” 하고 외친다. 평등을 좋아하는 성광스님 다수결 법칙을 쓴다. 역시 아이

들이라 속가의 아이들과 다를 것이 뭔가 제작자가 큰스님께 불가에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고 묻자 큰스님께서 북방사미계 즉 기원전 3세기경 인도 아소카 왕(Asoka王) 때부터 인도의 북방에서 일어나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전파된 불교 중에도 사미(십계를 받고 불도를 닦는 20세 미만의 중)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설명하며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며 큰스님과 성광스님은 밥을 물에 말아 한 술씩 뜨며 호뭇해하는 모습이 꼭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좋다던 속가의 부모마음이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세워진 벽에는 쌍둥이 동자승 형제가 귀여운 세 동자승이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았다 동자승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가 많다 피리 대금 등 악기를 다뤄 불교음악을 연주 할 때면 절에서 키우는 개 덕구가 와서 함께 짖으며 노래를 한다. 종교를 초월한 크리스마스라고 성광스님이 은행나무에 트리를 만든다고 작은 전구를 많이 걸어놓았다. 점등식엔 큰스님이 큰소리로 파이팅을 외쳐서 산사의밤을 환하게 밝혔다. 비상하는 동자승들의 꿈이 이렇게 밝기를 소망해본다. 일주일의 드라마가 끝나고 눈 덮인 용화사의 모습이 갑자기 보고싶다.

요즘 정부정책도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고령화사회를 맞은 노인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니 아이들에 관해서는 얼마만큼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그들을 보았다 마음이 쨍하다.

간병을 하다

박은덕

한 가정에 노인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조심스러울 것이다.

걷는 걸음과 숨소리에도 예민해질 것이고, 식사하는 것과 용변 보시는 것 또한 신경 쓰며 늘 관심을 갖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91세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얼마나 숨이 차고 어지러운지 수시로 지켜보아야 하는 입장이다.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 유모차에 의지해야 집앞 공원도 갈 수 있고 산책도 가능하다. 그 정도라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아버지께서는 지난 8월 어지러움과 함께 혈변을 보시고 결국 응급차 신세를 지며 대학 병원에 이송되었다.

맥없이 누워계신 불쌍한 노인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보며 나 역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응급실 풍경은 코로나로 인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했다. 보호자도 1명 외에 출입을 금하고 교체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무엇 때문에 혈변을 쏟으셨는지 검사가 필요하기에 관장을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는 입장이 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현실이 되니 걱정이 앞서지만 어찌겠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니 결국 할 수밖에...

며느리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야하는 아버지 입장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연습이라 생각하고 처음으로 기저귀를 채워 드리고 갈아드리기를 반복한다.

불 것 다 본 사이가 된 셈이다.

환자로 생각하니 냄새도 그다지 역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고 일반실로 옮기서 보름간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간병이라는 것.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환자에게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되고 소변주머니 비우기랑 기저귀 갈기, 여러개의 바늘이 줄서 있는 마른 팔도 보아야 하며 열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집중하며 봐야했다.

퇴원 후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걱정말라고 믿음도 심어드린다.

이미 기력이 쇠약해진 아버지 이제 혼자서 산책하기도 힘이 들고 휠체어의 도움으로 공원은 나가신다.

효부 흉내 확실히 내볼까 라는 생각에 하루에 한 번씩 휠체어를 밀고 공원에 모셔다드리며 모셔오는 시간이 한 달이 될쯤 나의 정성에 감동이라도 하듯 예전처럼 혼자 유모차를 밀고 공원 산책을 하시게 된다.

단 몇시간의 자유지만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며느리가 살렸다며 동네 노인들께 칭찬하며 자랑을 많이 하신 모양이다. 부러워하시는 노인들이 많으며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도 감사할 뿐이다.

나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간식을 드리며 여러 노인들에게 잠시나마 친구도 되어주고 찰리랑 놀아주기도 한다. 88세이신 어느 할아버지의 단짝 친구이자 반려견이다. 아버지께서는 간병 하느라 애썼다며 용돈도 주신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부모가 함께 산다는 게 으쓱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좋은 생각에 오늘도 행복한 미소와 함께 빵과 음료를 들고 공원으로 향한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햇살을 맞으며 언젠가 그들이 될 나를 보며...

마장터 다녀오며

杜宇 원영애

새이령 숲길에
말발굽 소리 들리느뇨

바람 소리에
솔잎도 귀 세워
행여 임의 소리
들려올까
마른 잎 구르는
마장터.

내일 소풍을 간다. 뭘 싸갈까 무척 고민이다. 김밥을 싸까, 그냥 잡곡밥에 맛나게 나물을 무쳐 싸갈까. 고민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며 12시에 킴도 들락날락. 어린아이 소풍 가는 날 같이 들뜬다. 깜빡 잠들었다가 네 시간도 못 자고 잠에서 깬다.

뒤 뜰에 심은 울릉도 취와 어제 뜯어 모은 햇잎을 삶아 들기름과 소금 넣고 무쳤다. 햄도 하나 굽고 달걀에 명란젓과 달래를 고명으로 넣고 둘둘 말았다. 배낭에 준비한 도시락을 넣고 원통 도착하고 보니 아직 아무도 안 나왔다.

조금 있으려니 어디서 본듯한 한 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온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찬 바람만 스산히 피어오른다. 왜 안 오나 전화를 하니 금방 나온다고 그러더니 한참 후에야 나타나며 내 쪽으로 손을 흔들더니 또 누군가에게도 손을 흔든다. 알고 보니 언제였나 박물관에서 본듯한, 그래서 눈에 익었나보다.

서로 인사하고 차 태워다 줄 분을 기다렸다.

산길을 걸으며 징검다리 냇물도 건너뛰고 나뭇잎이 잠긴 물가를 오르며 길옆 야생화의 웃음도 받고 진달래 생강꽃이 반기는 산길을 흥얼흥얼 콧노래 하며 걷다 보니 누군가 동백과 산수유 꽃의 다른 점을 뭘 보고 아느냐고 묻는다.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평소 관찰했던 모양을 말했다.

동백은 가지에 꽃이 붙어 피고 산수유는 가지에서 조그만 가지가 1.5cm 쯤 벌어져 핀다고 했다. 내가 처음에 생강꽃과 산수유를 몰라 다른 점을 찾느라 무척 신경 썼던 일이 생각났다.

힘든 계곡을 타고 오르고 또 오르며 다리의 근육도 풀릴 대로 풀리어 휘청해지는 걸음 조금도 더 못 갈 것 같은 생각에 앙살이라도 부려보며 힘과의 전쟁 같은 싸움 하며 도착지에 다다랐다.

그 옛날 화전민이 살았던 흔적에 지금은 두채의 집에 사람이 살고있다.

이 험한 산속에서 무얼 먹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파란 지붕이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 하게된다. 이곳에 있으니 세상 밖에선 난리가 나도 모르고 지낼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조용한 곳에서 산을 벗하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습 하는 분들일 것이다.

드디어 점심시간 돌아앉아 점심 먹을 자리를 동료들이 만들고 한편에선 버너에 불을 붙여 뭘가를 끓이려는 듯 물 끓기를 기다리고 가지고 온 각종 먹거리를 내놓아 풍요한 밥상이 차려졌다. 누구 할 것 없이 허기진 속 채우느라 정신없이 퍼 넣고 나니 숨이 돌았나 보다.

장기 자랑에 마장터 숲 해설에 새이령(새령)에 대하여 이야기 들려주는

이봉재 선생님의 구수한 입담을 녹음도 하고 질문도 하고, 소나무 화가 이시고 고향이 그리워 마장터 아랫마을로 홀로 내려오신 선생님은 소나무 그림에 직접 소나무 껍질을 접목하여 실감나는 소나무 향취에 들게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창의력을 돋보이게 한 분이시다. 이 선생님의 쉬었다 가는 마장터의 이야기는 절정을 이뤘다.

무엇보다 다시 내려가야 할 걱정이 앞서는 난 아무래도 남보다 몇 분이라도 앞서 떠나야 하기에 주섬주섬 보따리를 챙기고 앞서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먼저 갈 사람 따라나서라고 했다. 춘천서 온 젊은 엄마가 선뜻 나

서기에 들은 이 얘기 저 얘기하며 춘천 공부방에서 나의 시도 가끔 문제로 공부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볼겸 왔다고 했다. 오르막 내리막길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도 주고받고 했다.

허리가 신통찮은 난 고도일 정형외과에서 시술받은 얘기며 그동안 몸이 안 좋아 고생한 이야기기를 했다. 그뿐인가 수많은 나의 병가 일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춘천 정형외과에서 두 달 동안 입원해 치료받고 인천 운동원에서 허리교정으로 두드려 펴든 일이며 양평 국립재활병원에서 주사 맞느라 6, 70대 맞아가며 치료받던 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신경 치료받고 배가 부기로 차오르던 고통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5시경 피곤한 몸을 씻고 누웠다. 10분도 못 되어 다리에 쥐가 오르고 누워 있을 수가 없다. 예상한 일이지만 어찌하랴 우선 통증을 다스려야 하기에 우선 일어나 살살 다리를 달래가며 조금씩 걸어 보았다. 그래도 참을 수 없는 허리 다리 통증 어찌할까 울고 싶은 몸이 마음도 울린다.

중증 통증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랬지만 도저히 참기 힘들다. 추석에도 너무 아파 밤에 홍천 응급실에 가서 주사 몇 대 맞고 왔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내가 좋아 떠났던 등산이니 신랑한테 말도 못 하고 조금 아프다고 다리만 주물러 달라 했다.

이제 다신 산은 가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그래도 누가 가자면 그 유혹을 어찌 뿌리칠까 모르는 일 장담은 못 한다. 산이 좋고 숲의 풀잎 스치는 소리가 좋고 무엇보다 산나물 먹거리가 눈에 들어오는 산 숲. 그 숲을 어찌 좋아하지 않겠나. 허리가 안 좋아 몇 년 동안 등산을 못 했던 내가 아닌가. 그 그리웠던 산을 다녀왔다는 그 기분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다.

내 영혼이 맑아지는 숲.

산속에 아담한 집을 짓고 꽃을 심고 산나물을 뜯어 밥상 위에 올리며 하루의 행복을 찾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하루만이라도 산 숲 공기를 마시며 즐거워했던 날을 또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고 오늘의 행복이 모두 다 내일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머니와 찰옥수수

원종문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단둥 항을 거쳐 백두산 서파코스스로 이동했다.

버스로 꼬박 이틀을 달려야하는 긴 여정이었다. 압록강 변을 따라가는 차창 밖으로는 옥수수 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까마득하게 펼쳐지는 옥수수 밭은 우리 농촌풍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커다란 하나의 평원으로 보였다.

기온의 차이 때문인지 유월의 초인데도 한 뼘보다 조금 더 자랐다고나 할까? 바람에 팔랑이는 옥수수 잎이 소양호 넓은 호수에서 일렁이는 물결을 연상케 한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연녹색 너울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고, 여기에 심취된 내 마음은 그동안 일그러지고 찌그러졌던 속내를 시원스럽게 털어버린다.

옥수수 밭길 사이를 달리던 버스가 어느 도로변 간이매점에 잠시 멈추어 섰다. 피로도 풀고 화장실에도 다녀와야 하겠다.

매점이라고 있기는 하나 비닐하우스 파이프에 천막을 덮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촌스러운 시설이었다. 빙과류·음료수·캔맥주·동동주도 있었다. 안주로는 홍어무침이 있었으나 가오리 몇 절음에 야채만 뒤섞은 푸성귀나 다름없었다.

또 저쪽 한 모퉁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양은솔이 화덕위에 올라앉아 있다. 찰옥수수를 삶아내는 솔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해 따낸 옥수수가 분명하다. 냉동 보관시켰다가 관광객에 판매할 요량으로 지금 삶고 있는 듯했다.

결에 있던 아내가 우리도 하나 사먹어 보자고 졸랐다. 올해 새로 키워낸 옥수수도 아니고 냉동시킨 묵은 옥수수를 여기까지 와서 사먹어야 하는가? 통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보니 아내가 늘 옥수수를 좋아하던 일을 깜박 잊고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옥수수 한 통을 사기위해 술 옆으로 바짝 다가갔다. 아니 같이 온 일행에게도 하나씩 사주어야 하겠다.

“사장님 옥수수 좀 봅시다.”

“예에 두 개에 천원이에요.”

술뚜껑을 열어젖히자 뜨거운 김이 솟구쳐 올랐다. 안경에 김이 서려 희뿌옇게 보였다. 안경을 벗어 들고 술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가지런히 정렬된 옥수수가 눈에 들어왔다.

이 모락모락 오르는 모양이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주보지 못하던 옥수수였다. 우리가 평소 먹어보는 미백(품종을 개량한 현재의 찰옥수수)의 흰 찰옥수수와는 많이 달랐다.

줄과 틈 사이 여기저기에 자주색 알갱이가 드문드문 박혀 있지 않은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옛날 강원도 인제 땅의 순수한 토종 찰옥수수였다.

그 순간 팔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각이 떠올랐다. 가슴이 뭉클해 오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져 왔다. 오른쪽 볼 밑에 조그마한 살 혹이 붙어있던 어머니가 눈앞에 자꾸만 아른거렸다.

키는 자그마하나 생활력이 남보다 강하시던 우리 어머니!

사남매를 키우시느라 변한 날 한번 못보고 일생을 사시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을까?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움찔 물러섰다. 눈시울이 뜨거워 계산조차 할 수가 없었다. 지갑을 꺼내어 아내에게 건넸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어 말리고, 여름이면 옥수수를 팔러 다니시던 어머니시다.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무덥고 뜨거운 날에도,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도 가리지 않았다.

어려웠던 시절의 이런저런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할까 민망스러워 버스 뒤로 몸을 피해야 했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 내어 목 놓아 불러보고 싶었다. 살아생전의 어머니가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살며시 다가오는 듯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이와 똑같은 옥수수를 인제 원통시장의 한 모퉁이서 팔아가며 내 교통비를 마련했다. 차비는 하루에 10원, 편도 5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지금의 액수로는 돈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60년대 중반의 가치로는 그리 적은 돈은 아니었다.

시장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촌 동네 옥수수를 사달라고 말을 붙이던 어머니는 날이 어둑해 질 무렵에야 시장을 나와 바빠 집으로 걸음을 옮기시곤 하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옥수수 함지를 머리에 인 채 이십 여리의 신작로를 걸어 다니셨다. 이따금 군용차만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기어 다닐 뿐 트럭 한대도 보기 힘들었던 개미니 시골길이었다.

그야말로 버스조차 탈 수 없는 촌 동네에서 살던 우리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집안일을 돕느라 무척 바쁜 날들을 보내야 했다. 그중에서도 옥수수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지계에 소쿠리를 걸쳐 메고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비탈진 밭에 어김없이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다. 진한 가지색의 보기 좋은 수염은 설익은 옥수

수요. 다 말라비틀어진 수염은 따서 먹게 된 옥수수였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오동통한 감촉이 전해오면 적당히 살이 오른 잘 익은 옥수수를 골라 딸 수 있었다. 갓 따낸 옥수수는 바로 솥에 넣어 삶아야 하며 마른 솔가지로 은근히 불을 지핀다.

다 익기 전에는 절대로 솥뚜껑을 열어서도 아니 된다. 바람이 들고 김이 새면 제 맛을 내지 못할 뿐더러 날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삶아낸 옥수수는 피나무 함지박으로 옮겨 담는다. 소창으로 만든 보자기로 겹겹이 덮어두면 봄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김을 올리며 따끈함을 유지하던 찹옥수수였다.

마당 한 끝자락에 놓여있던 반들반들한 무쇠 솥 뚜껑의 신기한 윤기와 농목(1년치 땀 나무를 미리 준비해두는 풍습)으로 일 뿡아놓은 묵은 나뭇가지들도 이제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이야기일 뿐이다.

들척지근한 옥수수 대를 씹어대며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때도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이어졌던 내 생애의 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고생 하시던 어머니의 기억을 자주색 알갱이가 박힌 바로 그 토종의 찹옥수수에서 느꼈는지? 왜 하필이면 이국땅 중국에서 그토록 어머니의 생각이 되살아났는지? 그리고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 옛날은 모두가 아주 어렵게 살던 시절이다.

촌 동네에선 한 마을에 두서넛 명 정도나 중학교에 갈수 있었다고나 할까? 중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중학교에 입학 시켰다.

매일 매일 챙겨주시던 차비 속엔 옥수수 판돈이 묻혀 있었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었다.

가끔은 옥수수를 팔아 생 오징어 한 두름이라도 사올라치면 온 식구가 화덕불 앞에 모여앉아 게걸들린 듯 먹어대던 어려웠던 시절!

아마도 그때의 생각이 가슴깊이 남아 있었기에 그 옥수수를 보는 순간

지극했던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진 모양이다.

벌써 내 나이 육십이 다되어간다. 한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백두산은 꼭 봐 두어야 하겠다고 떠났던 봄날의 여행길에서 백두산의 등정 보다 더 값진 의미를 얻었다.

자식 잘되라고 고생을 팔자로 떠넘기며 마음조리고 애쓰시던 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 있었다.

잊혀져가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열정과 모정을 다시 깨달았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왠지 부끄러움이 앞서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에 미련이 남는다.

나도 미국에 가 봤다?

華燾 정순덕

우리 마을에 장로교회가 있었답니다.

장로목사님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고운지 어린 나이에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요. 여성스럽고 친절하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제주도 많으셨던 분이라고 기억됩니다.

목사사모님이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 1회랍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가 제나이 5살이었고 나는 그 때 미국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이유는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를 위해서였고 많은 미국사람들 앞에서 고전 무용을 선 뵈어서 박수도 많이 받고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 도중 빌려간 요정 ‘두꺼비집’ 언니의 귀걸이를 잊어버리고 징징거리다 애써 화장한 얼굴이 엉망이 되었고, 난생처음 먹어 본 바닐라향 아이스크림은 타고 있지도 않은 차멀미가 나는 듯 해서 못먹고 초코 아이스크림과 맛있는 케익, 비스킷, 사탕 등 처음 보는 과자를 많이 먹고 코 큰 아저씨들이 우리들을 번쩍 안아 군용 트럭에 태워주고 바이바이- 하던 기억이 나이 50이 가까워도 잊혀지지 않는 답니다.

점심 먹고 이집 저집 언니들이 화장도 해주고 머리에 온갖 구슬로 장식도 해주고 군인트럭이 와서 우리들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한 참을 갔는데 길가에 나무들도 따라오고 둥근 달도 따라 왔습니다.

얼마나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 왔다고 군인아저씨들이 우리를 내려 주었지요.

잠에 취하고 멀미도 나고 하는데 둘러 보니 온통 코가 크고 파란눈의 미국 사람들이 쉴라쉴라 하는 미국에 내가 와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미국이구나!

우리나라에서 낮에 출발을 했는데 미국은 한밤 중이었습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차례로 준비해 간 여러가지 공연을 하는 동안 박수도 많이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시 군용트럭에 태워져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졸면서 자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왔다, 내리자” 하는 소리에 깨어나 차에서 내리는 우리들을 아버지 엄마가 반겨주시는데 내리면서 보니 우리나라는 아침 새참 때 즈음이었습니다.

와- 미국에서 밤에 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침이구나! 친구들에게 사랑을 막 했지요. 믿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미국 아저씨가 선물로 준 미국 과자들을 자랑하면서 “나 미국 갔다왔다”고 사랑을 많이 많이 했어요.

그 때 우리 동네 또래들이 몇명이나 우리 이야기에 속았을 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나는 틀림없이 미국에 다녀 왔다고 믿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옷을 입이지요.

그 뒤 얼마나 자라서 신남 쯤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어린 날의 일정을 떠올려 계산해보고 요리조리 맞추어 보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미국에 갔다왔다는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고 그 자리에 유치원생이 군용 트럭을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미군들의 초청으로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위문공연을 원장님이 주선해서 갔는지 하는 추억이 있었다는 것과 최초로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속을 울렁거리게 했다는것, 잃어버렸던 요정집 언니의 호사스러운 귀걸이는 버선땀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 등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때 누구누구에게 내가 미국 갔다왔노라고 공갈을 쳤는지는 기억에 없고 그저 내가 미국에 갔다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기억과 내 앞을 내달리

던 둥근 그 달이 왜 나를 앞서 갔는지, 나무는 왜 한사코 내 뒤를 따라왔는지 그런 상황을 떠올리고 요정집 언니들이 서로 데려다 무릎에 앉히고 화장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던 기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나는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없는데 5살 어린 나는 미국에 갔다가 왔습니다.

한국은 대낮이었는데 그 곳은 한 밤중이었고 그곳은 어스름한 새벽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침 반나절은 되었던라니까요.

어떻게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노을을 사랑하자

한명숙

세상은 온통 메꾸어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지난 계절 동안의 연민으로 서럽게 다가선다. 홀로서기를 꿈꾸던 열정들이 두껍게 말아 올린 더위 여과되지 않는 빛 사이 한 생이 버렸음직한 몽툰한 삶이 내려앉는다. 초록이 무섭게 아우성치는 비릿한 땀 내음, 제 몸에서 나온 수고로움이 이물질처럼 다가선다.

문득 가슴을 저미는 아픔! 진한 그리움으로 다가와 찢레 가시처럼 여며앉아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소홀했던 시간 들이 아쉬움과 후회로 남아 살아 꿈틀거림을 시작한다.

늦둥이 작은아들이 군대를 갔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넉넉하지도 못했고 스스로 잘 알아서 해주었기에 고맙다 생각하면서도 살갑게 챙겨주지도 못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 옆으로 직장을 옮겼지만 다시 대학을 다니느라 멀리 떨어져 생활하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다.

가진 것 없고 학연, 지연 없는 곳에서 장애인인 엄마가 아이와 둘이 살아야 했기에 삶은 늘 곤고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며 도전하고 투쟁의 연속이었던 삶이었다. 이다음에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산골에서 된장 담으며 텃밭에는 오이도 심고 들장미로 울타리 엮어 하늘별 친구삼아 살아야지, 아이가 세 살 때 홀로서기를 하며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기만 한 꿈을 향해 쉴 틈도 없이 달려왔다.

아이가 군대 가기 전 날에야 겨우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가 군대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와 훈련소로 출발했다. 아이는 걱정 한뼘 그동안

의 쌓였던 서러움들을 토해냈다.

생활비 아끼느라 다니고 싶은 학원도 더러는 포기해야 했으며, 엄마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엄마를 보며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아프다 한 번 말한 적이 없었다. 메이커 옷은 별로 관심 없다며 거절을 했고 엄마가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시간에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혼자 있어 외롭다 말하지 않았다.

엄마도 힘들었지만 아이도 스스로 잘 견디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도 엄마를 응원해주었다. 그런 아이는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시간에 누구 하나 아이가 군인이 되어서 살아 나가야 하는 시간 들을 응원해주지 못했다.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설레기도 했으리라, 자랑스럽다 말을 듣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멋지다는 말을 듣고 싶기도 했으리라. 그런 아이의 바람은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아이는 군대 가기 몇 시간 전에야 울음으로 엄마에게 모든 걸 토해냈다.

뒤늦게야 아이의 아픔을 오롯이 알아챈 엄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도 아이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늘 숙제를 안고 살았던 시간이 이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돌아오는 시간….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 무엇인가 쫓기듯 불안하고 허무해지며, 지나치게 우울해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한다. 삶은 이따금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것이 무모한 도전일 경우도 그러하지만 놓치기 싫은 것을 단념해야 할 때 특히 그러할 것이다. 운명이 늘 자기편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세상 살아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야 뭐가 문제이겠는가?

하나하나 계획 세워놓은 일들이 걸림돌이 많아 계획에 차질이 생겨 더디게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을 땐 더 많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아이가 군대 가면서 토해낸 서러움들이 비수가 되어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했는데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아파했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미련스런 엄마는 아이가 세 살 때 꾸었던 꿈을 향해 열심히 살기만 했지 아이도 아파했고 그 꿈도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바쁜 날들은 오로지 내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많은 아픔들을 안고 군대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엄마에게 아들은 틈만 나면 전화를 한다.

이왕에 군대 가는 거 제대로 할 거라면서 GP지원을 하여 자주 전화 통화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게 만족하다며 엄마를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엄마 너무 힘들지 않게 앞으로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단풍만 붉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지는 노을도 붉게 타오른다.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붉게 지는 노을을 사랑하자, 아이가 휴가 나오면 그날의 못했던 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밤새도록 해 주어야겠다.

내 티눈 가져가라

한명숙

비가 오는듯하더니 천둥소리만 요란스럽게 남기고 하늘이 맑다. 400여 평 되는 텃밭에 이런저런 작물들을 심어 놓고 애타게 기다린 비였건만 내 맘 같지가 않다. 사는 일도 그러하리라. 재작년 작은 아이를 인제에서 홍천고등학교로 보내놓고 늘 마음 졸이고 미안하여 아이 곁으로 갈 수만 있으면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노인요양원 원장으로 오게 되었다.

지역은 다르지만 전에 살던 데서 넉넉하게 운전을 해도 40분 거리어서 처음에는 출퇴근하면서 천천히 이사를 해야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서인지 요양원이라는 시설 근무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입사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르신이 다치는 일이 생기고 노인 학대, 직원, 요양보호사들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안과 마주해야 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40분 거리 직장이면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도 않을 테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 우선 지역이 달라지고 활동분야도 달라진다.

직장을 옮길 때부터 앞으로의 삶은 최소한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움, 그것도 조금, 좋아하는 농사나 지으면서 직장 생활,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하여 살리라 마음먹었었는데 직장 초기부터 일지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의도하지 않게 부랴부랴 이사부터 해 놓고 적응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이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며 위로를 하지만 50대 중반에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괜한 용기를 부렸나, 잘 견디어 낼 수 있을까? 아이한테 멋진 엄마여야 하는데…. 수많은 갈등은 조바심을 내게 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매일 매일을 신고식을 하는 마음으로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선의의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소한 애깃거리로 몇 십분 동안 인내를 갖고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엉뚱한 말에도 채치 있게 넘기는 채주도 생겼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리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라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더러는 치매 때문에 때로는 병으로 인한 2차 합병증 때문에 인지가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라 예기치 않는 행동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곤 한다.

매일 아침 3층, 2층 라운딩이 끝나면 2층 거실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쇼파에 앉아 TV 연속극도 보고 추울 때는 베개를 같이 베고 바닥에 드러누워 말도 안 되는 대화지만 어르신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늘 하듯이 어르신 두 분 사이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치매어르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눈을 비빈다.

“어르신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놀라서 얼른 어르신을 살피는데 “까치야, 까치야, 내 티눈 가져가라.” 능청스럽게 허허 웃는 어르신을 바라본다. 아이 같기도 하고 청순하기도 한 어르신을 보며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쓰러 내린다. 엇그제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아픈데도 죽지 않는데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이 아플까?’ 하시던 어르신 모습이 떠올라 놀랐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또 마음이 애잔해 진다.

사실 요양원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와 같다. 예측할 수도, 사고의 경중도 가늠할 수가 없다.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때론 그런 사소한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노인학대로까지 와전이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의 가방에 인내(忍耐)를 하나 가득 넣는다.

사회복지사의 길 20년,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인업무를 시작으로 자활, 재가복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인업무에 종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어쩌면 직장생활의 마지막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였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녹록하지마는 않다.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정확히 해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과 같이 지내면서 사회복지사가 가야할 길, 이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면 겪어야 할 미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앞으로 나에게 행운이 따라준다면 정년까지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울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싶다. 사회복지사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싶다.

“까치야, 까치야, 그동안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모두 가져가고 우리 어르신들 아프지 않고 직원들 모두 행복하게 해다오”

낙엽의 想念

한용운*



낙엽!

낙엽은 이울어가는 계절, 이 가을의 마지막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니 먼 가냘프게 흔들리는 바람결의 아름다운 몸짓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저 청량하기만 합니다. 한 잎, 두 잎, 셋 잎……. 그렇게 떨어지는 낙엽은 보기만 해도 가슴으로 눈물겹도록 천연한데……. 한 해 동안 그 토록 눈 부셨던 연초록의 그 진한 삶을 마감하며 한 줄기 찬바람 앞에 제 몸을 스스럼 없이 내 맡기는 나뭇잎 그 잎들…….

그 사무치는 먼 세월의 동경세계 그 너머에는 반드시 가야 할 때를 알고 그 생에 대한 애착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자연의 이치만은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내린 문학회 회장, 한국문협 강원지회 이사 및 인제 지부장

* 만해(죽전) 시인학교 고문

* 만해죽전 부 대회장, 만해죽전 백일장(일반부) 심사위원

* 세계 모던포엠 작가회 고문, 월간 모던포엠 강원 지회장 및 신인추천작품 심사위원

* 전국 사투리 발굴 보존회 상임 부회장

* 흥성사 작품공모 우수상, 한맥문학 신인상 수상 (1991년도 등단), 인제 군민 (문학) 대상 수상

* 초허 (김동명) 문학상 대상 수상, 세종문화 아동 문학상 수상, 새 밝 문학상 (본상) 수상

* 삼포문학 아동문학상 대상 수상, 2020 현대문학사조 문학작품상 대상 수상

* 새마을 美談像 (미담상) 수상,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근정포장 수상, 삼성 문화재단 효행상 수상

* 고향재단 밝은 사회 선행 모범가족 금상 수상

* 초록우산(한국 어린이 재단) “명예 전당” 후원자

* 인제군사(郡史) 집필

* 저서 : 깊은 마을의 메아리, 한 사공 그 세월

* E - mail : han-sagong@hanmail.net

* 주소 / 전화번호 : 강원 인제 인제읍 인제로 228번길 6 102동 403호 (내설악 A) / 010-5705-2623

옛적에 어느 문인은 “가을의 낙엽은 한 생명의 쇠락(衰落)이며, 허무를 깨닫는 인생과 흡사하다고, 그러나 그 쇠락은 또 다시 찾아오는 새 봄의 찬가요, 긴긴 겨우내 언 땅을 밟고 새로이 일어서는 약동을 위한 생명의 기약이며, 희망이기에 결코 인생은 그저 헛하다, 허무하다,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낙엽은 오직 생명인 것이다.” 라고 그의 저서 “생명의 찬가”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납니다.

스산한 바람 따라 낙엽 길 따라 어디론가 멀리 나그네처럼 떠나가고 싶은 날, 낙엽 흩날리는 길 위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워서 또 이 가을에 애절한 마음, 그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기약도 없고 번지도 모르는 먼 하늘나라의 편지가 아십니까? 성혼을 앞둔 그 나이의 그 때에도 가을이면 낙엽이 유난히도 좋다고 하시던 당신! 일기장 갈피갈피마다 샛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잎을 가득히 채워놓으셨다고 사랑의 편지를 주시며, 청색, 홍색실로 두 개의 나뭇잎을 포개어 묶어 보내신 그 의미를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늦가을 구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원주 기독교병원 307호 병실에서 필자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당신이 운명하실 때, 창 너머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그저 하염없이 눈물지으시던 당신! 당신의 무남독녀 윤선이가 유품이라며 건네준 일기장, 그 안에 절절이 피 눈물처럼 써놓은 내용을 알고서야, 왜 내가 그처럼 미련했을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바보천치였구나! 막심한 후회를 했었지만, 이제 와서 이미 건너 오가고 할 수도 없는 세월을 어찌 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림다는 생각에 묻혀 먼 하늘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쓸쓸한 어깨 위를 토닥거려 주는 가냘픈 여인의 손길, 새색시처럼 꿈 많던 소녀시절의 일기장 책갈피에 곱게 꽃혀 있었던 샛노란 추억의 그림자 같은 낙엽의 잎들이 아슴아슴하게 아른거릴 때면 그 어릴 적 그리움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시간도 정제된 듯 무수히 쌓이는 낙엽, 이 가을의 햇살에 신기한 조화를 이루는 사색은 고사하고 낙엽이 그리는 멋진 가을의 소요도 고이 접어 놓은채, 무심한 환경미화원의 마구 휘두르는 빗자루 끝에 아름다움의 미적 스타일을 구기며 쓰으속 쓸리어 가는 안쓰러움이 가슴속에 아프게 멍울이 집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낙엽은 눈 시린 가슴에 소리 없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바쁜 일손을 멈추고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듯한 착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소중한 꿈과 그리움으로 몸 둘 바를 몰라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낙엽은 계절의 정표이자, 매년 봄을 찬란하게 맞자는 약속이라지만, 아무리 다시 만나자는 굳은 맹세가 있었을지라도 낙엽은 마냥 서글픈 것, 그 낙엽의 정서에 그렇게 매달려본들 결국은 허무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웬지, 울적했다 봅니다. 자구만 말 수가 적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하릴없이 요즘도 거울을 들러다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작년 이맘 때 보다 다소 여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보다 조금 더 늙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그렇지”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수(秋水)”란 말이 있지요. 그걸 잊고 살았다고 하니, 참 한심하지요! 가을이 되면 산은 산대로 그 몸속에 품고 있던 물기를 모두 밖으로 아낌없이 내 보냅니다. 이것을 가르쳐 추수(秋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 많은 산과 들의 나무들이 앞 다투어서 추수를 하다 보니 이산 저산 할 것 없이 단풍이 들고, 그 단풍잎들은 얼마 못가서 모두 낙엽이 되어 이 땅위에 무수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온 산과 들을 단풍으로 물들이므로 만인의 눈을 호강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모든 잎들을 무자비하리만치 떨어뜨리는 그 운치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한껏 서글프게 합니다.

그리고 날로 가을이 더 깊어 가면 깊어갈수록 일조량이 적어지고, 기온

마저 떨어지게 되면, 나무는 겨울의 추위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그 대비를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비도 아주 적게 내리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와 잎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무는 그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기와 잎이 붙어 있는 부분에 “이층(離層)”이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층을 형성하며 불필요한 잎은 전부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왜 낙엽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시기로 사람의 뇌기능을 자극하는 세로토닌이나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등의 전달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낙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많은 여성(女心)들과, 40 - 50 대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해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을”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을 동시에 받아 스스로를 낙엽에 “이입(移入)”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비록 한 잎, 두 잎, 셋 잎…….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이라 할지라도 이는 우주의 신비한 법칙으로서 온 천하 만상(漫想)이 가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소곳이 가슴을 저미며 바람결에 미련 없이 흩날리는 낙엽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만,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엽이 속절없이 집니다. 슬픈 음악처럼 퇴색한 생명의 조각들이 지난 봄, 여름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간직한 채 아쉬움 속에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우리네 나그네 인생 같은, 영원하지도 않는 그 인생들의 생명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는 듯한 낙엽이여!

그 낙엽이여!

원앙지계

한용운

부부가 서로가 의리와 믿음으로 친숙하고 애듯한 사랑을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서로 화합을 아주 원만하게 잘 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마치 한 쌍의 원앙새처럼 금실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앙지계(鴛鴦之契)”라고 한다.

그 유래는 중국의 고서 “수신기(搜神記)”에 나오는 고사성어이다. 전국 시대 송나라의 강왕(康王)은 폭군으로 그는 신하 한빙(韓憑)의 아내 하씨(河氏)가 절세미인인 것을 보고 애첩을 삼았다. 그리고 한빙이 원한을 품게 되자 왕은 그를 변방 수비를 하면서 성을 쌓는 형벌에 처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한빙은 결국 자살을 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씨도 상왕과 함께 성벽에 올라갔을 때 몸을 성 밖으로 던져 죽었지만, 그녀의 유언은 남편과 함께 묻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왕은 두 사람의 무덤을 마주 보게 묻고는 “죽어서도 서로 사랑 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두 무덤을 하나로 해 보시지?”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 두 무덤 끝에서 가래나무가 솟아나서 서로 가지와 뿌리가 뒤엉켰다. 또 그 무성한 나무 위에는 원앙새 한 쌍이 늘 서로 목을 휘감고 언제까지나 구슬프게만 울었다고 한다.

그 후로 송나라 사람들은 두 사람의 넋을 가엽게 여겨 그 나무를 상사수(相思樹)라 했다. 그리고 원앙새는 그들 한 쌍의 부부가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었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정네는 그 누구인가? 이는 아마도 제일 어진마음을 가진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일 것이다. 그 누군가 그와 같은 어질고 현명한 아내와 살고 있을까?

아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 이 세상에 아내라는 말처럼 정말 정겹고

또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아늑하고 평화로운 그 같은 이름이 또 그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주 먼 옛적부터 우리네의 선조께서 살림살이가 매우 구차스럽고 천박하게 살 때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디딜방아를 찢어주고 거기서 얻어오는 거친 겨를 가지고 보리개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고생만 죽도록 했었던 그 본처의 아내를 일컬어 조강지처(糟糠之妻)라고 했었다.

옛날 중국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누님 호양(胡陽) 공주는 미망인으로서 그 당시의 대사공(大司空: 요즘 법무장관)이었던 송홍(宋弘)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황제는 송홍을 은밀히 내실로 불러놓고 자기의 누님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았다. 황제가 말하기를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갈아내고, 돈이 많이 생기면 처를 바꾼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대 귀공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홍이 대답하기를 “가난하고 천박했을 때의 친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지게미와 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내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후한서(後漢書)의 송홍전(宋弘傳)에서 나온다.

〈謂弘曰，諺言貴易交，富易妻，人情乎，弘曰，臣聞貧賤之交不可忘，
(위홍왈, 언어귀역교, 부역처, 인정호, 홍왈, 신문빈천지교부가망,
糟糠之妻不下堂)
조강지처부하당)〉

그 후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에야 광무제는 그의 누님 되는 호양 공주에게 “만약에 송홍이 부마도위가 된다면 누님이 그의 정실로 들어왔게 되고 그의 본처는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내치게 되므로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누님을 설득했다는 고사가 전해 오는데, 이것이 조강지처의 본말인 것이다.

아내가 실제로 너무 좋고 귀여우면, 그의 주변에 있는 보잘 것 없는 것 까지도 모두가 좋게만 보이기 때문에 옛 속담에도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래서 아내를 잘못 맞으면 평생을 그리치게 된다는 뜻으로 “아내 나쁜 것은 백년 원수요, 된장 신 것은 일년 원수”라는 속담도 있는 것이다.

구약 성서인 시편 128편 3절에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러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드.”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현숙한 아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다. 중동지방에서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매우 건조한 지방이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그 주민들에게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의 나이도 어연간 세상살이 나그네 길에 70고개를 넘어서 멀리 쫓 가고 있다. 나의 나 됨됨과 인생역정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자 하다 보니, 먼저 한평생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못난 남편을 만나서 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한 모양으로 박봉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을 지성으로 섬기며 1남 3녀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그들 모두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배출케 한 사랑의 아내, 그를 팔불출처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크게 성장한 자녀들로부터 그 섬김에 마음 안 쓰며, 비록 많지 않은 연금이지만, 그것으로 자족하며, 마치 한 쌍의 다정다감한 원앙새처럼 단둘이 사랑의 손꼽동무인양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필자의 아내는 미인도 아니요, 그저 여자 같은 여자로서 촌부중의 순수한 촌부에 지나지 않는다. 외모는 이렇진대 신앙심만은 결코 남에게 조금만치라도 뒤지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또한 곱고도 너무나도 고운 비단결이다. 항상 이웃을 내 몸같이 깊이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 실행함에 온갖 힘을 다한다. 오죽하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베풀다고 해서 이웃들로부터 “퍼 퍼대기 권사”라는 닉네임까지 붙었을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행복을 누릴만

한 인격과 양식 등, 그에 걸 맞는 인격적인 양심과 자격을 갖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오는 분깃이 비록 보잘 것 없고 작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의 근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정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가정은 생(生)의 안식처요, 마음평안의 보급자리다. 가족과 친, 인척간의 서로 이해의 따뜻한 정이 흐르고, 화목의 훈훈한 인간미가 넘치며 애정의 행복한 삶의 원기가 샘솟는 그러한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식처에서 우리의 피곤한 삶은 새로운 원기를 얻어 일상생활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오직 행복이란 나 자신의 마음과 가정의 안정과 화평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활과 사고방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있고 안정감이 있다면, 세상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요, 이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 가운데 내 사랑하는 현숙한 아내가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며 느끼는 필자는 바보 중의 바보천치처럼 그저 행복 할 수 밖에 없노라고 고백을 한다.

굳이 원앙지계(鴛鴦之契)라고 그렇게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라덴말이야, 학교는

최광윤

제 4 장

특별기고

라덴 말이야, 학교는

향토소설가 최광윤*



가을이 하도 맑아 오후 4시쯤 인제 시내를 걸어보았다. 삼삼오오 학생들이 재잘거리며 하교하는 모습이 보인다. 내 학창시절이 문득 떠오른다. 옛 학교와 운동장, 선생님, 그리고 학우들이 그림자. 박인환 시인도 “사랑은 가도 과거는 남는다” 하셨기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 나는 인제국민학교(인제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내 기억으론 학교는 긴 언덕 위(현 인제교육청자리?)에 죽데기로 벽을 만들고 가마니를 깐 곳이었다. 고맙게도 우린 미군들이 나눠준 학용품으로 학습을 하었는데 어쩌다 그걸 분실하는 날엔 며칠을 필기나 그리기를 멈춘 채 우두커니 선생님 얼굴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나는 원 아무개라는 예쁜 여선생님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하루는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 책보를 쌀 때 옆자리 친구와 한 자루의 연필이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다투다가 둘이 엉켜 언덕을 구르며 주먹질을 하기에 이르렀다. 운 좋게도 나는 그 함 아무개라는 상대 친구가 흘린 코피로 말미암아 승자가 됨으로써 간신히 체면은 유지했으나 눈물로 범벅이 된 친구가 안 돼 보여 통 크게도 연필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잘 한 일이었다.

* 김유정 추모 문예작품 공모대회 장려상(산문)

* 전국 부여 관광 수기 공모 우수상(부여군청)

* 수필 문학상 동상 수상 (공무원 연금지)

* 소설 등단(한국문인)

* 단편 소설집 ‘갈대 등지위의 사람들’ 출간(2008)

* 장편소설 ‘금빛낚새’ 출간(2009)

* 전자 단편 소설집 ‘그 아이의 휘파람 노래’ 출간(2016)

어언 나는 그 죽데기 학교에서나마 일 년을 보내고 이학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낯설었다. 하루 등교 하루 결석을 반복하다가 아버지께 지계를 걸어주면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와 땀감을 해 오겠다 때를 써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불호령일 밖에.

삼학년이 되면서 우리 학교는 현 인제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였다. 교문을 들어서면 기룡산 동쪽에서 발원한 ‘합강냇물’이 운동장 남쪽 자락을 꿰고 흐르고 그 위로 작은 콘크리트 다리가 짧게 놓여서 우린 냇물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운동장을 들어서게 되고(그러나 그 다리는 우리가 졸업 후 언젠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계단을 타고 오르면 돌과 시멘트를 섞어 벽을 하고 거기다 일정한 간격으로 외벽 창문을 낸 마치 기차처럼 보이는 교사(校舍)가 가로로 서 있었는데, 혹 창문을 닦아야 하는 때엔 낙상할까봐 맘을 졸이곤 했어도 누구하나 투덜대는 학우는 없었다. 새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교사(校舍)를 새로 짓고 학기 초에 여러 선생님들이 전입해 오셨다. 우리 반은 홍순형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 갓 사범학교를 졸업하신 활기 넘치는 분이였다. 이 선생님이 들려주신 황금알이라는 동화는 어찌 그리 재미있었는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그 동화 속 교훈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됐으니.

한 번은 이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나는 속으로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홀아비이신 아버지가 부엌에서 검뎁을 뒤집어쓰고 아궁이를 고치시던 중이였다. 내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담임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버지는 그만 뒷문으로 급히 몸을 피하셨다.(조라한 당신의 모습과 가난을 오죽이나 보이기 싫으셨으면 그리 하셨겠나 싶어 어린 마음에도 나는 아버지 심중을 충분히 헤아렸다) 부엌문밖에 서 계시던 선생님께 아버지가 외출 중이라고 아뢰는 순간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선생님을 외면했으니. 그 후 두고두고 선생님께서 죄송하여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결과 마침내 학년말 수료식에서 우등상

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우등상이 촉진제가 되어 중고등학교 내내 우등상과 개근상을 수상하였고 나아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도 성적우수자로 빠짐없이 장학금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으니 이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니겠나?

4학년에 올라와서는 강릉 어느 학교에서 새로 전입 오셨다는 박영래 선생님을 만났다. 표정으로만 기능해도 한 치 빈틈이 없는 데다 매사 정확한 분이다 보니 호명만 받아도 여간 긴장이 되는 게 아니었다. 4월 어느 화창한 날의 음악시간. 때맞춰 선생님은 동요 ‘푸른 잔디’(유호 작사. 한동희 작곡)를 가르치고는 느닷없이 나를 지명하여 노래를 청하셨다. 평소 노래부르기를 싫어하는 데다 당황한 나머지 음정 박자가 맞을 리 없었다. 그 학년도 ‘학생생활 통지표’에서 내가 읽은 음악과목 평어는 ‘감상-양’ ‘표현-미’ ‘이해-양’(당시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평점)…. 그리고 가정통신란에는 “평소 태도가 좋고, 학과 성적도 우수하며 타 학생에 모범이 되나 음악공부에 힘써야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도 누가 ‘노래방’ 말만 꺼내도 주눅이 되는 건, 핑계 같지만 그때 받은 충격이 아닐는지.

어느새 5학년이 되고(담임은 홍종복 선생님) 뛰놀기 좋아하는 나를 더욱 신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황해진 교감선생님이 몸소 나무를 다듬고 자동차 페타이어를 쪼개서 운동장 가장자리에 놀이기구를 만들어 세우신 거였다.

생전 처음 시소(seesaw)를 타고 ‘말타기 놀이’에 재미를 들이던 동안, 슬그머니 6학년이 돼있었다. 학생들 사이에 엄하기로 소문난 신수남 선생님이 담임이 되어서 학년 초부터 소위 입시공부(당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시험 선발제)가 시행되었다. 우린 정규수업이 끝나고도 1시간씩 입시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인제중학교 입학시험에서 기린국민학교 출신의 김○배가 1등을 하고 나는 겨우 2등을 하여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건 그렇다 쳐도 담임선생님의 실망은 어찌랴!

중학교를 들어가자 모든 것이 신기해 보였다. 교복을 입어야 하고 모자에 모표를 부착해야 했다. 낯설로 된 시슴 뿔(한문 ‘麟蹄’에서 기린 ‘麟’자를 시슴뿔로 의미화 한 것) 속에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쓴 모표, 그걸 우

린 광이 나게 닦아뒀었다. 그리고 동.하복을 막론하고 왼쪽 옷깃에는 학교 배지(타원형 남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중’이라 새김), 오른쪽은 학년을 표시하는 로마숫자를 달고, 가슴에는 이름표를 붙였는데 학년마다 바탕색이 달랐던 적도 있었다. 이런 부착물들이 제 위치에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한다는 구실로 규율부 상급생이 수시로 교실에 입실하여 복장지도를 했으며 책가방 검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이 추가되고, 학과 명칭도 산수가 아닌 수학, 보건의 아닌 체육으로 개명되어 같은 학과라도 무게감을 더했다. 여러 학과목들 중에서 특히 영어는 전공 선생님이 워낙 귀했는지 어쩌다 부임하는 분이 계셔도 어느 결에 학교를 떠나시고 급기야는 교장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야 하던 때도 있었으니, 우린 매년 교과서(유니온?)를 받도 배우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여야 했다.

그런 와중에 유이균 선생님(직책은 강사?)을 2학년 1학기 동안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한 결 같이 문장암기를 과제로 제시하고 벌을 곁들여 철저한 점검을 하시기에, 영어시간만 되면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를 참지 못하고 어떤 내 학우는 숙제를 미루다가 벌 받을 일이 두려운 나머지 학교 가는 체 집을 나와 강에서 고기나 잡고 놀았다나.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바로 그날 선생님이 나를 앞세워 가정방문을 하셨고…. 마루 위로 선생님을 모신 어머니께서 “아직 아이가 귀가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씀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 학우가 책가방을 들고 마당을 들어서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만 그는 아연실색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후로 이 친구는 몇 번이고 무단결석은 엄두도 못 낸다, 쓴웃음을 짓곤 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중학교도 몇 번의 개축을 거쳐 현 모습으로 변했다. 변하지 않은 건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양쪽에 심은 무궁화 나무들, 그루터기만 남았으나 올해만 해도 거기서 움이 터서 몇 송이 꽃을 피웠다.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이유를 알 것 같다.

어쩌다 중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보면 축구하던 내 까까중 학우들의 아우성이 서성인다. 그 넓던 직사각형 운동장은 왜 이리 협소해 보이는가?

아무리 색깔 맞춰 치장을 차려도 뭔가 아쉽기만 하다. 서쪽으로 향교에 땅을 내준 걸까? 아니면?

이리 주절거리다 보니 어느새 고등학교 이야기로 넘어갈 때가 되었나 보다. 1963년 나는 인제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다. 정으로 쪼고 망치로 다듬은 사각형 석재(30cm×20cm 정도의 돌벽돌)로 지어진, 지붕이 붉은 아담한 집. 그리고 거기 중앙 현관을 들어서서 동서로 긴 복도를 이어가며 들어앉은 마루 교실들. 그 안에서 3년의 긴 세월을 하루같이 얼굴을 맞대고 키득거리며 키운 우정. 이 학교의 9회 졸업생이 되기 위해 힘껏 공부하며 때때로 돌을 치우고 지면을 다듬어놓은 운동장. 사제동행으로 심어놓은 교정의 나무들. 나는 우리 학교가 오래도록 그렇게 서서 언제나 우릴 맞아줄 줄 알았다. 한테 철거라니. 더구나 이 학교의 선생이 되어 내 육안으로 철거현장을 보게 될 줄이야. 주체하기 힘들었던 서글픈 심정을 아래 졸작 시 한 편에 담아보았다.

숙직하는 밤

팬스레 개가 짖더니
 처량한 소쩍새 울음소리,
 저 미륵천 강변에
 야영(野營)의 등불마저
 시름없이 꺼지고
 서쪽으로 줄달음치던 반달은
 늙은 백양나무 가지에 걸려
 옆구리가 터져 주저앉은
 우리들의 옛 교사(校舍)를
 하염없이 내려다본다

기껏해야 며칠 내로
 포클레인의 굉음에 실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돌집의
 마지막 황량한 물골을 지켜보며
 왜 하필 나만이 불면의 밤
 숙직의 밤을 보내야 하는 건지,

가물거리는 학창의 추억 너머로
알 수 없는 촉촉한 비애가
어스름 달빛 속을
안개처럼 배회한다
가슴이 쓰라려 온다
- 1989년 07월 16일 23시. 허물어진 내 옛 배움터의 숙직실에서 -

내가 공부하던 시절의 학교건물이 어떻게 수업내용이 이러저러했다는 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그 보다는 한 학급이 70명을 넘던 학생 수가 지금은 20명도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 모교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봐 그게 큰일이다. 그렇다고 한탄으로 될 일은 아니기에 맥 째게 적어본 시 한수로 애써 걱정을 지우려나. 학창이여!

동기 동창생

팔월이 구름을 안고 흐를 때
너희들은 바람처럼 싹 몰려왔다.
옛날 물비린내 나던 볼에는 향수 냄새 짙고,
성탄절 날에 받은 노란 카드 한 장이
추억의 밀어를 탈출하여 화제에 오른다.

영철이는 서리 맞은 머리카락 뽑아들고
눈가에 주름 잡히니 웃지 말자 한다.
영순이는 50살 서러운 나이 손가락으로 세고는
우리가 살날은 온 길보다 짧다며
어느덧 딸아이 출가 얘기 퍼놓는다.

거침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술로 구겨진 몸은 아랑곳없이
나는 너희들에게 길게 비애를 말한다.
우리들이 치켜든 마지막 술잔에는
아쉬움만 서리서리 가득하다.
- 1990년 08월 19일 14시 30분. 서울 친구들이 몰려와서 과음하고 -



제20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제27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제 5 장

백일장 입상작품

「제20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대상

논두렁

김 순 영

약속된 시간이 남아있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우연히 길모퉁이에서 논두렁이란 상호를 본 순간 스파크가 일 듯 푸근함과 그리움으로 지나간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고향집 언저리에 있는 논배미마다 구불구불 길게 누워있던 논두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한동안 잊고 지냈다. 시내에서 간판으로 내걸린 논두렁에서 숨어있던 술한 애기들이 몽글몽글 솟아나고 있다. 발걸음은 약속 장소로 향하고 마음은 어느새 고향 논두렁으로 들어섰다.

산에 화살나무 잎이 퍼드러지기 시작하면 논두렁 태운 재를 비집고 뽕족뽕족 돌나물이 올라왔다. 너무 어린 것을 뜯으려면 손끝에서 으스러지기도 하는데 양지엔 제법 자란 것도 있어 바구니를 소복하게 채울 수 있었다. 꽃샘바람에 손등이 트고 질척한 논바닥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물웅덩이가 있는 곳엔 미나리 싹이 잘 자라 있었다. 횡재라도 한 듯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재잘거리고 웃다보면 어느새 봄날 하루가 다 갔다.

논에 물이 찰방찰방하게 고이면 아버지는 벼씨를 뿌리셨다.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로 변해가면 모내기 준비로 바쁘셨다. 그 전에 삼으로 흙을 펴 올려 논둑을 두둑하게 만들고 메뿌리 캐느라 파헤쳐진 곳곳을 메워 논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못짐도 미리 지게로 날라 모내기할 논에 넣고 나머지는 논두렁에 놓아두셨다.

모내기하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씨레질이 잘되어진 논에 품앗이로 모를 심었다. 흥겨운 노랫가락을 이어 부르며 지루함과 고단함을 달랠고 새참에 먹는 막걸리로 갈증을 풀기도 했다. 논두렁에 점심이 푸짐하게

차려지면 죽 돌려 앉아 재치있는 입담과 웃음꽃을 피우며 수저를 들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 함께 했다.

매미와 개구리 소리 요란한 여름이면 논물을 보러 다니셨는데 이른 아침 풀 섶을 걸으신 아버지 바짓가랑이는 이슬에 흠뻑 젖어 물이 흐르곤 했다. 장마철에는 더 자주 다니면서 물꼬를 트고 막으며 논물을 조절하셨다.

뜨거운 여름 햇빛이 벼 포기를 튼실하게 키웠고, 논두렁에도 풀들이 자라 아버지는 풀을 베어 지고는 힘든 걸음을 옮기시기도 했다. 벼포기 사이로 자란 ‘피’라는 풀을 뽑다가 굽은 허리를 논두렁에 앉아 펴시곤 했는데 난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돼 도와드리지 못했다.

여름이 깊어 가면 벼꽃이 피어난다. 하얗고 조그마한 벼꽃은 눈길을 잘 받지 못하지만, 양중맛고 귀여웠다. 벼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어 바람에 일렁이면 밤송이도 알밤을 논 귀퉁이에 떨어뜨려서 벼포기를 들춰가며 줍곤 했다.

추석 무렵이면 아버지는 말끔하게 논둑을 깎으셨다. 이발한 듯 산뜻해진 논두렁엔 서리태 꼬투리가 여물어 가는데 어머니는 송편에 넣으시기도 했다.

따가운 가을볕에 벼 포기 사이로 숨은 메뚜기를 잡으려다 미끄러져 신발과 옷을 버리기도 했지만, 잡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말랐다. 무논에서 벤 벼는 묶어 논두렁에 말렸는데 메뚜기 잡을 때는 그 벼단들을 넘어 다녀야 했다. 서리가 내리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메뚜기가 제대로 날지 못해서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추수가 끝난 논 물웅덩이에서 가끔 아버지는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잡아 오셨는데 우렁이는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맛있었다. 미꾸라지는 지렁이 같아 잘 먹지 않으면 어머니는 푹 고아서 형체도 없이 맛있게 해주셨다.

한동안 논바닥에 떨어진 벼 이삭을 주워오라는 숙제도 있어 줍다가 다 못 채우게 되면 벼단에서 슬쩍 잘라 학교로 가져가기도 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빈 눈에 물을 얼려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 동네 아이들과 땡이를 돌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얇은땡이 스케이트도 탔다. 가끔 얼음이 깨지면 옷과 신발이 다 젖어서 아이들과 논두렁에서 불을 피워 말리곤 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신고 논두렁을 붙잡고 일어서려는데 균형을 못 잡아 얼음판에 사정없이 내동댕이쳐졌다.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친구들이 볼까 봐 빨리 일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넘어지는 바람에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다.

구불거리며 비스듬하게 누워있던 논두렁도 변화의 물결 속에 얹아지고 곧추세워지고 있다. 쓸모없이 넓은 몸집을 줄여서 한 뼉이라도 논을 더 만들려는 세월의 잇속이다. 기계 영농화로 논두렁에서 쉼 일도, 밥 먹을 일도 별로 없고 벼 베면서 탈곡도 되기에 벼 말릴 일은 더더욱 없어졌다.

농약으로 메뚜기도 귀해지고 쭉과 나물도 뜯을 수 없어 건강한 먹거리도 차츰 줄어든 것 같다. 벼를 ‘쌀나무’로 알고 밥 대신 빵을 먹는 요즈음 세대가 어찌 논두렁을 알랴. 갈수록 변해가는 푸근한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마을을 세월 더 가기 전에 박제라도 해놓고 싶은 심정이다.

춘궁기에 양식 보태라고 메 뿌리와 쭉, 나물들을 철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고 쉼 자리와 말릴 자리도 되어주던 논두렁. 세월은 시간을 굴리며 떠나가고 켜켜이 쌓여간 추억들, 걸어서는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그곳. 그리움만 차오른다.

장맛비 이어지는 여름날이면 물꼬 트려고 삽자루 둘러메고 걸으시던 아버지, 장화 발로 터벅터벅 논두렁을 돌아 다시 나오실 것만 같다.

긴 세월 정감 있는 많은 얘기를 품고 온 논두렁은 추억의 단어이자 그리움의 언어이다.

장원

가을 소묘

정애정

누렁이는 현관 계단 밑 그늘에 엎드려 고추잠자리가 뱅뱅 날아다니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조금 전 주인 송이가 놀이터에 가는 것을 따라간다고 했다가 야단을 맞은 누렁이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 때 방울이가 아파트 놀이터 빨간 벽돌담 위로 사뿐 올라앉는 것이 보였다.

방울이는 한 달 전 누렁이네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찬이네가 이사를 가면서 버려졌다. 하루아침에 들고양이가 되어버린 방울이는 아파트 주차장을 맴돌며 아이들이 건네주는 빵이나 과자조각 같은 것을 얻어먹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방울이가 나타나면 무서운 전염병에 걸릴까 놀라 소리를 치거나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경비실을 찾아가 화를 내며 방울이를 잡아달라고 했다. 결국 방울이는 아저씨가 놓은 참치 미끼에 걸려 경비실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몰래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치던 방울이는 찌그러진 문에 꼬리를 다쳐 뭉툭한 방망이 모양의 꼬리를 갖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방울이를 사납고 못된 들고양이라고 불렀다. 또 아파트 주차장 수도에서 나오는 신선한 물도 마실 수 없었다. 그러자 매일 오후 아파트 뒷산 골짜기에서 조금씩 흘러 내려오는 물을 먹으려고 누렁이네 콩밭을 지나가야 했다. 누렁이는 마침 잘됐다고 생각하며 콩잎 위로 나비 처럼 뛰어 내린 방울이에게 다가갔다.

“물 마시러 가니?”

“응. 왜?”

누렁이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처럼 “으음!” 하고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부터 이 콩밭을 지나다니려면 허락을 받아야 해. 참치 정도면 통과할 수 있어. 아니면 빵이나 과자도 괜찮아.”

누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울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특유의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순간 누렁이도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곧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는 공격 준비를 취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방울이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옛 주인 찬이가 있었더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옷자락을 물고 누렁이를 혼내주라고 했을 텐데, 방울이는 누렁이가 알뜰기만 했다.

누렁이는 웬지 모를 자신감에 턱을 치켜들고는 방울이를 내려다보았다. 방울이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랐지만 따가운 햇님 탓인지 콩밭에도 놀이터에도 방울이를 구해 줄 구세주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놀이터에서 누렁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송이였다. 누렁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눈빛이었다. 방울이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몸을 돌려 뛰었다. 밭을 빠져나가 골짜기로 가는 오솔길에 도착하자마자 다리를 쪽쪽 뺐어 더욱 빠르게 달렸다. 누렁이는 방울이를 따라가다가 멈칫하더니 놀이터로 방향을 바꿨다. 골짜기에 도착한 방울이는 숨을 가라앉힌 뒤 맑고 시원한 물을 마음 놓고 먹었다. 그리고 바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1층에 살고 있는 단발머리 여자 아이가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 아빠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새 주인만 생긴다면 누렁이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거야. 사람들도 나한테 돌을 던지지 못하겠지?’

다음 날 오후 송이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신이 난 송이와 친구들의 목소리는 까르르 까르르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심심해진 누렁이는 자신의 꼬리와 잡기놀이를 하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가 싫증이 나면 앞밭로 돌멩이 하나를 찾

아 이리저리 굴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축 늘어져 서는 가끔씩 얼굴로 달려드는 파리를 쫓아내는 걸로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면서 누렁이는 방울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파트 담 위로 사뿐히 올라갔던 방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이지 않았다. 누렁이는 방울이가 궁금해졌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 몇이 지나가면서 나누는 얘기가 귀에 들어 왔다.

“어제 또 길고양이를 치고 갔다며?”

“불쌍한 것들. 얼마 전에도 죽어 있는 걸 이장님이 치웠다잖아.”

누렁이는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1년 전 누렁이 엄마도 병으로 죽음을 맞았다. 엄마가 죽은 후 누렁이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싫어서 몇날 며칠을 울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렁이는 차츰 혼자 있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누렁이는 아침을 먹고 나면 빨리 점심이 오길 기다렸다. 또 매일 아침 송이가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부터 기다렸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어두워지면 조용히 별과 달이 뜨길 기다렸다가 잠이 들었다.

누렁이는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기다리는데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어쩌면 방울이에게 심통을 부린 것도 그래서였는지 몰랐다.

아파트 뒷산 나무들이 잎 잎마다 색을 칠하고 있을 때 누렁이는 송이가 깔아 준 폭신한 담요에서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아득히 멀어져 가고 놀이터 빨간 벽돌담도 희미해져 갔다. 누렁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방울이는 예전처럼 놀이터 담 위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놀이터에서 ‘방울이다, 방울이!’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었다. 누렁이는 화들짝 놀라 두 귀를 종긋 세우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누렁이는 꼬리까지 흔들어 보았다. 하지만 방울이는 본체만체 아파트로 사라져 버렸다.

누렁이는 방울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1층 밑에는 버려진 나무와 공사 쓰레기, 종이상자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땅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났다.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을 무렵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누렁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서너 발 쫓았을 때 갑자기 아기고양이 한 마리가 흙투성이 비닐 속에서 쭈욱 머리를 내밀었다.

“안녕?”

누렁이가 아기 고양이에게 인사했다. 갈색 점박이가 많은 아기고양이는 모두 세 마리였다. 엄마고양이는 제일 안쪽에 있는 낡은 종이상자 위에 누워 있었다. 낯선 누렁이의 출현에 쉼 목소리를 내며 경계의 소리를 냈다.

누렁이는 꼬리 모양을 보는 순간 엄마가 방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방울이도 누렁이를 알아볼 만큼 둘 사이는 가까워졌다. 방울이는 말없이 누렁이를 쳐다보기만 했고 배가 고프는 아기 고양이들은 흙을 뒤지거나 종이 상자를 뜯어 씹었다가는 뱉어냈다. 누렁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기 고양이의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물고는 한 마리씩 집으로 옮겼다. 방울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런 누렁이가 믿음직스러웠다.

마침 방금 물든 단풍잎 하나가 아장아장 누렁이 머리 위로 와 앉았다. 평소 같으면 입을 내밀고 푸푸거리며 떼어내느라 온 마당을 돌았을 누렁이. 하지만 오늘은 단풍에 스며든 가을 햇님의 냄새가 싫지만은 않았다.

다음 날 송이 아빠는 똑딱똑딱 누렁이와 방울이가 살 새 집을 만들었다. 송이는 새 가족이 생겼다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집이 완성되자 아기 고양이들은 폭신한 담요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몸을 빌려줘 가며 쉼근쉼근 잠이 들었다. 누렁이도 그날 밤 방울이와 아기 고양이들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별도 달도 기다리지 않고 오랜만에 일찍.

장원

가을 시위

노혜숙

도로가 뚫리면서
갈 곳이 없어진 단풍나무
입이 타는 듯 이파리만
동그랗게 말며 묵언 투쟁을 하고 있다
빨간 머리띠에 어깨 띠 두르고
한적한 시골 마을 자전거도로 곁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장보다 많이 아는 대소사
단풍나무가 연을 맺어준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고
가을의 화석처럼 누워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내 책갈피 속에서 부서지고 있다

계절의 변화로
세상도 마르고 내 입술도 말라가도
해마다 의연하게 붉은 깃발을 들었다

재고의 기회도 없이 진정서를 낼 사람도
취하할 사람도 없는 외로운 투쟁은
당분간 계속 될꺼다

차상

가을 소묘

최현주

창가에 가득한 별들
봉숭아처럼 붉그레해진 얼굴이 가슴에 들어온다

녹음 짙은 설악산
오방 한복 갈아입고
바람결에 오라고 소식 전한다

떠도는 뭉개구름 부러워
질투하는 멍든 가슴
깊고 파아란 하늘우물이다

노란 들녘 도리깨질 소리
흐르는 땀방울만큼 수확의 기쁨 공존하고
부끄러운 내 마음
윤슬에 흘려보낸다.

차상

가을 소묘

김 난 계

가을 밤엔
나무에서 내려와
바람이 주고 가는 말
줍느라 바쁘다

노란 은행나무 벤치에
구부정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잊고
파란 하늘을 본다

붉은 단풍 물들면
연인이 꽃이 되어
추억을 담근다

빗방울이 내리고
다시 올 것처럼
사라지는 너를
저만치 두고 보았다

차상

설레는 오일장

김 영 연

노릇노릇 국화빵 한 입 가득
아빠 엄마 손 꼬옥 잡고
시장 한 바퀴

오늘은 이것, 다음엔 저것도!
내딛는 걸음걸음 이끄는 고소한 내음
내 마음 5일마다 두근거리네

가마솥 안 보글보글 따뜻한 국밥
바구니 안 가득가득 싱싱한 과일
‘뽕이요!’ 한마디에 몸집을 부풀리는 뽕튀기

양손 가득 집에 오는 길
반짝이던 해는 저만치 붉어졌네
시간아, 어디로 흘러갔니

붉은 노을 뒤로하고 북적이는 사람들
산과 바다내음 가득한 먹거리 속
정 넘치는 시간들 나를 부르네

차상

무너지지 않은 유년의 기억

배 은 선

아홉 살 때 키우던 개 ‘조니’는 돈이 될 만큼 자라자 팔려간 후 언니의 운동화로, 우리 집 연탄과 쌀로, 고기반찬으로 승화되어 우리 곁으로 왔다. 팔려가며 원망하듯 바라보던 조니의 눈빛은, 나도 새 운동화를 갖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흐릿해 졌다. 조니의 입에서 흐르던 침과, 흔들리던 꼬리와, 굳건했던 다리와, 실눈 뜨고 졸던 모습의 그리움은, 몇 푼의 돈으로 돌아와 가난한 생활에 꿀을 바르며 잠시의 배부름으로 채워졌다.

옆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는 -동네에서 몇 번째 ‘나비’가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름이 ‘나비’였다. 나비는 나비처럼 가만가만 걸었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밥 먹을 때 집으로 돌아왔다. 나비는 언제나 묶여 있던 덩치 큰 조니와 친했다. 어려서는 둘이 함께 잠도 자고, 장난도 치고 잘 놀았지만, 덩치가 점점 커진 조니는 줄에 묶여 있는 처지가 됐다.

나비는 밖에서 돌아오면 조니에게 갔다. 마치 밖에서 있었던 모험 이야기나, 어느 집 아저씨가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 혹은 고양이 말을 알아듣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나비는 가끔 조니의 등에 올라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비는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니가 팔려가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옆집 원숙이네 부모님께서 심하게 다툰 그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대문 바로 옆방에 사는 나보다 두 살이 어렸던 ‘아니’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병아리 한 마리를 사서 가방에 넣어 왔다. “삐삐삐삐” 소리가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외치며 대문을 들어서서 꼬맹이의 목소리와 섞여 들렸다. 소리를 듣고 마당에 있던 내가 물었다. “어? 야! 너 가방에 병아리 있어?”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응”이라고 말했다.

둥에서 가방을 조심스레 돌려 내리며 안에 있던 노란 병아리를 꺼내 보았다. 아주 작고 보드라운 노란 털을 가진 병아리였다. 병아리 소리에 아이의 할머니는 “에이그! 돈 주고 이런 걸 왜 사와! 금방 죽을 텐데”라며 핀잔을 했다.

할머니의 말과 달리 병아리는 잘 자랐다. 꼬맹이는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병아리를 돌봤다. 병아리가 자라 닭이 되니 이상한 기능이 생겼다. 지붕에서 날아 마당에 박혔고, 여기저기 푸득푸득 거리며 날아다녔다. 뭘 먹는지 마당에 부리를 찔었다. 힘이 넘치는 닭이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잘 자랐다. 너무 잘 자란 게 병아리에게는 불운을 가져다줬다.

조용하던 여름, 어느 날 아이가 마당으로 튀어나오며 울기 시작했다. “이거 빼악이지?(병아리 이름이었다.) 할머니가 빼악이 잡아먹은 거지?”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며 아이를 달랬다. “닭은 원래 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알도 못 낳는 닭을 어디에 써. 너도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달래려고 하는 말인지 울화통 터지라고 하는 말인지. 아이는 그 소리에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손에는 하얀 빼악이의 살점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울고, 할머니는 어여 들어가 먹자하고, 나는 마당에서 텅 빈 조니의 집과 사라진 나비를 생각했다. ‘빼악이도 사라졌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동네 집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산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을 찾았던 아저씨의 집도 사라졌다. 동생이 빠졌던 커다란 공동 화장실도 사라졌고, 죽은 뱀이 자주 걸려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도 뽑혔다.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2층 양옥집도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초록색 대문이 달린 집도 무너졌다. 마당에 있던 우물과 커다란 조니의 집과 그리고 내 유년시절의 시간이 계속 무너져 내리며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 시절은 무너져 내린 시간의 찌꺼기, 기억의 조각, 추억의 똥으로 채워져 남아있을 뿐이다. 기억 속에선 팔린 조니와 사라진 나비와 삼계탕이 된 빼악이도 다시 돌아온다. 다시, 또 한 번 무너진 그 시절을 재개발할 수 있더라도 할 것처럼.

차하

가을 소묘

이진여

가을의 또 다른 이름 구절초,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찢기고 파 헤쳐져 시내 주변에서는 만나기도 어려워진 이름이다

집을 지으면서 구절초를 들이기 위해 애를 썼는데 파는 곳이 없어 쉽지 않았다. 구절초나 할미꽃은 산에서 몰래 파와서 심는 사람들이 많아 수요가 없으니 꽃집에 들여 놓기가 망설여진다고 한다.

몇 년 전 지인의 산소에 들렀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다. 무심코 눈길에 닿은 곳에 자리잡은 설난(雪蘭) 한 포기 보고 깜짝 놀랐다. 붉은 별 하나가 땅으로 내려온 듯 환한 꽃송이를 숨털이 보송한 잎이 들어 올리는 모습과 야생에서 설난을 처음 만난 경이로움이 겹쳐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내 안절부절못하는 나를 보고 남편이 핀잔을 주었다.

“꽃이 뭐라 하나,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있나?”

“그게 아니고 누가 덤석 파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사람들의 왕래가 제법 있는 산길이라 나뭇잎으로 가려놓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내내 무거웠다.

산이나 들에서 살고 있는 꽃들은 그곳이 터전이고 그 자리에 있어서 빛이 난다. 울안에서 혼자 보겠다고 억지로 파내 옮겨오면 꽃들은 낯선 곳에 적응 하느라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 할 것이다. 어쩌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어느 산에서 가져 온 무슨 식물이라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법령을 어긴 사람들의 뉴스가 보도되는 모습을 간혹 보기는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멸종위기에 처한 귀한 품종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몰래 파서

흠쳐기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국립공원 관리인의 하소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아무리 엄격한 법령이라도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여겨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은 법 이전에 우리 마음부터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사다 심은 구절초 어린 모종들이 자라 일가를 이루어 이른 가을부터 마당가를 수놓은 지 십여 년,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은 꽃이 없지만 ‘구절초’는 이름만으로도 아련하고 내 눈에 밝히는 꽃이다. 우리 땅 산기슭이나 들녘에서 ‘들국화’라는 이름으로 피어 가을을 완성시키는 구절초……. 웬지 나는 그 이름을 부르면 힘들게 고개를 넘던 옛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어리어 있을 것 같아 마음 한 켠이 아려온다.

2010년 집과 함께 들어온 구절초들이 올 가을에는 터전을 옮겨 길 건너 몇 남지 않은 언덕을 환히 밝히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언덕도 실려 나갈 테지만 숨 막힐 듯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보면 거기, 몇 겹을 건너온 별빛처럼 반짝이는 구절초와 그렁그렁 눈물 머금은 언덕이 나를 내려다본다. 숨이 트이고 가슴이 데워져 지쳐 허물어 질듯 한 몸을 세우고 피폐해지는 정신을 가다듬는 순간 오롯한 나만의 가을 한 조각이 완성되는 것이다.

차하

오 일 장

박 경 숙

하이얀 바지저고리
옥색 조끼
목울대 아래까지 기른 턱수염에
눌리쓴 중절모
장날 나들이 복장으로
꽤나 멋스러웠던
산골 노인

내 유년
할아버지는
두메산골 끼고 도는 읍내가
소란스러워지는 장날이면
귀한 손님 맞듯
장터로 걸음 하셨다

해가 기울썸
새끼줄에 얹여
10여 리 길을 따라
소박하던 풀 밥상 위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던 간고등어

매일이 장날 같길
바랐던
비릿한 찐 내가
그리워지는 중년

아파트 앞
젊은 트럭 장수에게서 산
간고등어 구워
유년의 아릿한 마음
달래본다.

차하

가을 소묘

연혜정

가을을 닮아야지
후끈한 여름 숨가쁨의 끝에 찾아와
문득 이성을 차리라 알려주는
그 청아함을

가을을 닮아야지
노랑거니 빨강거니 도란대는
그 황홀함속에서 단아히 내려앉는
그 숙연함을

가을을 닮아야지
가지 끝에 대롱허니 매달린 홍시 하나
까치의 고운 밥이 될거라서
차마 돌아서지 않는
그 인자함을

가을을 닮아야지
너의 귀밑머리에 하얗게 떨어질
차가움을 맞이하면서도
끝내 서두르지 않는
그 고혹함을

차하

단풍나무

전 상 희

한겨울의 에린 바람에
온몸을 웅크려
다시는 기지개를 켜지 않을 듯하더니

어느새 훑날리는
달큰한 꽃향기를 맡으며
푸룻푸룻 잎을 띄워
당당함을 자아내더라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차마 뒤돌아서지도 못하는
그 수고로움을 돌고 돌아

초록 뒤 어디에 앙큼스레 숨겨놓았다가
빨강고 노란 보석을
몽울 몽울 훈장처럼 하나 가득 달았느냐

한 잎에 옛사랑과
두 잎에 그 추억과
세 잎에 나를 비취 담았더니

메마른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매달려
내 마음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고는

이내 또 바람에 손을 뻗어
하늘하늘 그 몸을 맡기노라

다시는 없다는 듯 화려했던 불을 끄고
스스럼없이 바스락 바스락 진다

그렇게 땅 위에 살포시 올라앉아
있는 듯, 또 없다는 듯
제 한 몸 썩어가며 죽어 가나

또 그렇게 어여뻐 스며들어
다시금 초록을 꿈꾸나니
죽었다고 한들
그 어느 누가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차하

오일장

강 미 숙

산다는 건 끊임없는 생멸의 반복이다
홍정이 대지 위에 빨간 리듬 타는 중에
소인이 안 된 입들이 무성하게 일렁이고

누군가의 장바구니 나누어 메워지는
색다른 풍경에 박혀 강물처럼 흐르는 속
한 세상 생사고락의 종합세트가 바로 여기

시방이 한 번 뿐인 길목을 지키고 앉아
욕망을 묶어 파는 주문을 채근할 때
확자한 장터의 끝은 떨어가 곧 답이다

금쪽같은 지폐 몇 장 돌돌 감아 손에 쥐면
뛰어와 와락 안기던 손자 녀석 눈에 밝혀
비탈진 목젓도 꿀꺽 허기마저 사라진다

차하

나의 새 운동화

전 선 옥

“엄마! 신발장 신발 정리 좀 해줘요. 신발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신발장의 70%는 엄마 신발이고, 나머지가 우리 남자 세 명 신발이에요~” 작은아들의 투덜거림을 뒤로하고 신발장으로 향했다. “히히 내가 봐도 신발이 많기는 하네…”

신발장의 신발을 정리하려고 신발을 한 개씩 들어보았지만 버릴 것이 없다. 남편이 늘 얘기하는데 “신발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는 무조건 버리라고. 그래야 정해진 공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고 묵은 과거를 보내고 현재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철학적인 언어로 말을 했지만, 어찌면 좋아 나는 왜 이리 물욕이 많은 걸까? 옷장의 옷들도 매년 두 번 정도 정리하지만 옷장에는 항상 옷들로 꽉 차 있어 제대로 옷을 찾아 입기도 힘들 정도이니. 안보이면 또 사고, 사서 입다보면 비슷한 옷이 옷장에서 튀어나오고, 나의 이 물욕이 왜 생긴 걸까?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내가 중학교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은 아빠의 노름빚으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 일곱 식구 (할아버지, 부모님, 오빠, 동생 두 명)는 어느 허름한 방 두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세 가구도 살고 있었으며, 담도 없는 아주 허름한 곳이었다.

방이 두 칸이라서 한 칸은 할아버지가 사용하시고, 나머지 한 칸은 우리 남매가, 엄마, 아빠는 포장마차를 하면서 포장마차 한쪽에서 생활하셨다. 엄마는 늦게까지 포장마차 장사를 하시고 새벽에 잠시 눈을 부치신 후 우리 남매를 학교에 보내려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다시 포장마차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시며 지내셨다.

중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우리 남매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셨다. 여유가 있어서 사주신 것은 아니고 학교는 가야 하는데 신발이 다 헤져서 시장 신

발가계에서 외상으로 오빠, 나, 여동생 운동화를 사오신거였다. 이 얘기는 나중에 엄마가 얘기해 주셔서 알았지만...

새 운동화는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좋았다. 내 운동화는 진한 파랑색에 하얀색 월드컵 마크가 새겨져 있는 운동화였다. 새 운동화를 받고 너무 좋아서 내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였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치 소풍 전날 밤 잠을 설치는 것처럼.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가는 날, 새 운동화를 신은 나는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고 즐거웠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딱 하루였다.

첫날 학교 갔다 온 후, 운동화를 우리 방 문 앞에 벗어놓았는데 밤 새 우리 남매들 운동화 세 켤레가 몽땅 없어져 버렸다. 담도 없는 집이니 밤새 누가 가져간 거였다.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나섰는데 운동화가 모두 사라져 버렸던 그 날의 먹먹하고 서러웠던 기억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앙금처럼 남아있다.

그 때부터인가? 나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 중학교 때부터 공납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이 자주 있었고 그런 날에는 화장실에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또한, 근시로 인해서 학교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을 구입하지 못해 늘 인상을 찌푸리면서 학교 수업을 듣곤 하였다.

오빠는 공부를 아주 잘 해서 대학에 합격 했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기에 나는 아예 대학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사고 집안에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 후에 공납금 납부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 까지 줄곧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 특히 실업계 과목이 나의 적성에 잘 맞아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할 수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메이커 운동화와 양말 등이 유행했었다. 특

히 프로스펙스라는 운동화가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나는 늘 비 메이커 운동화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신고 다녔다. 그때는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메이커 운동화가 얼마나 신고 싶었던지….

가끔 비싼 운동화가 학교에서 없어지곤 하는데 아마 나 같은 심정의 친구들이 참지 못하고 운동화를 슬쩍 하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나가게 되었다. 첫 취직 시험은 서울에 있는 삼성생명 사무직 이었다. 나는 성적이 좋아서 삼성생명에 합격했지만, 서울에 방을 얻을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의료원 원무과에 취업을 하였다.

첫 월급을 타자마자 내가 구입한 건 당연히 메이커 운동화와 양말, 그리고 세탁기였다. 물론 세탁기는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때만 해도 카드가 없는 상태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할부로 판매를 하였다. 운동화와 양말은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 내 월급으로 충분했지만, 세탁기는 내 월급에 5배는 넘었으니 나한테는 무리이긴 하였다. 세탁기가 집에 배달된 날 아빠는 취소하라고 야단을 치셨다. 우리 형편에 무슨 세탁기냐고…. 아빠의 호통으로 세탁기는 반납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빠의 호통은 가정 형편도 모르고 빨래를 편하게 하고픈 마음에 세탁기를 산 큰딸에 대한 호통이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 자신의 무능에 대한 호통이었을 것이다.

나와 내 여동생은 주말이면 늘 일주일 분 가족 빨래를 하였다. 엄마가 일을 나가셔서 집안청소며 빨래 등은 나와 여동생의 일이었다. 빨래와 청소를 할 때 여동생과 나는 서로 일을 미루느라 싸우곤 하였다. 우리의 싸움 소리를 옆집 아주머니가 자주 듣곤 엄마에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말씀하셨다. 엄마는 그때를 회상하며 ‘재잘대고 싸우던 애들이 벌써 시집가서 애들을 다 키워 놓았다고….’

그때의 싸움이 우리 자매를 더 돈독히 해주었는지, 지금은 서로의 고민거리 등을 매일 전화로 전하면서 지내고 있다. 엄마 또한 딸을 두 명만 낳은 게 아쉽다고 하면서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고 하신다. 엄마 마음속은 아들이지만.

올해로 직장생활 30년이 넘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딱 한번 직장을 옮긴 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나의 유년시절에 비하면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몇 배 나아졌기에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한다. 하지만 나의 물욕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난 왜 아직까지도 물건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큰맘 먹고 사지 말아야 하면서도 또 사는 나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마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마음의 풍요는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에 만족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나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에 부족한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궁핍하였던 지난 유년시절의 허전한 추억을 채우려고 악착같이 저축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에도 이제는 다정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싶은 거다. 그래 너 그 동안 많이 애썼다. 그리고 지난 날의 너도 지금의 너도 고마워.

지금은 나의 관점을 바꾸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가 하는 소비는 아주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소비라는 것을, 나의 물욕은 건전한 소비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지난날의 경험과 추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소비를 물욕으로 변질시켜 바라보고 있었던 나를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 것이다.

내 마음에 풍요는 물질의 소비로 채워지지 않고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 나를 따뜻하게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작은 노력이 나를 성숙시키고 아름다운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먼 훗날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애들아. “사람은 가슴에 영혼이라는 아름다운 별이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볼 수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연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인연이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오일장의 추억

임 창 선

오일장 날 학교 가는 길에는
 푸성귀 가득 실은 리어카와 동행한다
 무거운 바퀴를 살살 달래며
 힘껏 앞으로 나가면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함께
 책가방도 쭈랑쭈랑 따라 간다

야원 어머니가 끌고 가야 하는데
 어린 딸이 마음을 더하는 것은
 어머니 짐을 어떻게든 덜어주고픈 가녀린 마음에서다
 종일 팔아도 일곱 식구 반찬거리 살 정도지만
 어머니는 무능한 아버지 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룻길에 들리면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유난히 낮설어 보이는 어머니
 배고픈 딸에게 팔 칼국수 한 그릇 사서 먹으라고 한다

하루를 고스란히 판돈으로
 딸을 위한 어머니 마음이 순간 눈가를 촉촉이 적신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어머니 사랑이
 지금도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볼 수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린 어머니
 가난한 시절 서글프게 짓던 미소만 어렴풋이 생각나
 오일장을 지날 때마다 그리움에 젖게 한다.

장려상

설악산의 가을

김 영 연

산등성 가장 윗부분 자리한 풍성한 머리숱
오늘은 생기 가득한 붉은색 단풍
내일은 빛나는 노란색
너도 내 마음처럼 계절 따라 바뀌는구나?

붉은 옷 입은 널 보니
무더운 여름 이겨내고
겨울 오기 전 얼른 열매를 맺은 넌 참 기특하다

너도 나처럼 변하는 줄 알았는데
중심을 지키며 서있는 넌
어찌 그리도 한결같을까?

오늘도 내일도 넌 그 자리인데
네 품에 사는 노루는 벌써 저만치 뛰어갔다
내일은 반짝이는 저 해가 네게 좀 더 닿을까?

네 사이사이 보이는 하늘은 변함없이 푸른데
가나긴 시간 거쳐 돌아온 널 보니
내 마음에도 꽃이 핀다.

장려상

가을이 준 선물

배 관 순

잠시 멈추라고 하는 것인가
시간의 여유가 주는 외로움
무얼 하지?아하!
달콤한 초콜릿 소풍 도시락
배낭 메고 걷는다.

예쁘고 아름다운 대공원 숲길
파란하늘과 하얀 구름
울긋불긋 꽃단장 한 단풍들
노오랑게 물들인 은행나무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꽃비가 되어
내 머리에 앉는다.
그 사이를 사뻐사뻐 걷고 또 걷는다.

한해를 뒤돌아보는 이 가을
지나온 시간들이
아쉬움도 있지만 잘했구나.
미소 지어본다.

얼굴 표정을 앗아버린 마스크
하나 둘, 하나 둘
숨을 몰아쉰다.
자연을 눈에 담으며 가슴에 품었고
아름다운 가을이
선물로 나에게 왔다.

장려상

내린천 사계(四季)

한 은 정

봄에는
설레임 가득한
새 생명들의 밝은 기운을 품고 흘러간다
흐드러진 개나리의 수줍은 춤사위와 함께

여름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을 품고 흘러간다
첨벙거리는 아이들의 정겨운 얼굴과 함께

가을에는
울긋불긋 새 옷 단장한 산 그림자 품고 흘러간다
저 높이 한가로운 구름을 벗 삼아 함께

겨울에는
하얀 눈 소복히 맞으며
다가 올 싱그러운 꿈을 품고 고요히 흘러간다
두터운 얼음 속 새로운 희망과 함께.

장려상

은빛 물결

김 은 애

푸른 하늘과 구름 사이로
바람이 꽃잎을 안고 간다.

구름 속에 숨어있던 영롱한 비는
나무와 사이좋은 친구가 되고

메마른 대지는 달콤한 물줄기에
찬란한 춤을 춰 본다

밝게 빛나는 은빛 나는 자작나무숲
그 안에서 따스히 물들어 간다.

장려상

매남동 삼거리

강 신 월

엄마가 부아 난 줄도 모르고 동생들과 투닥거리다
등짝 두들겨 맞기 딱 십상인 날이었다

가마솥에 찐뜨물을 들이붓는 엄마의 양미간이 잔뜩 구겨져 있었다
뿌연 찐뜨물 가득한 가마솥에 김치 콩뎡이와 무 조각이 둥둥 떠 있었다

저녁내 아궁이 앞에 있어야 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침나절에 읍내 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삼거리 점방을 놔두고 꼭 그 옆 내 동무 집엘 갔다
매캐한 담배연기 가득한 방
초록색 새마을 모자를 꼭 눌러 쓴 아버지가
동네아저씨들과 함께 양은밥상에 앉아 있었다

뚝배기에 담긴 비지찌개로 저녁상을 받은 아버지
도통 일어서지 않는다
건조실로 부엌으로 외양간으로 분주할 어머니 생각에
막걸리만 들이키고 있는 아버지가 미워서 규자네 집을 나왔다

신작로엔 오고가는 불빛 한 점 없고 먹빛 하늘엔 별들이 총총했다
밤나무 마른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수수수 소리를 냈다
동그란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 터벅터벅 집으로 건다보면
빈 논에서 휘잉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귀신소리처럼 들리고

미루나무에 앉아있던 부엉이가 푸드득 날아가고
화들짝 놀라 정신없이 내달리다보면
어느새 저수지였다
휘이잉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방앗간 지나 용범이네 누렁이가 킁킁 짖어대고
그 소리 따라 동네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하면 무섭증이 가셨다

영희네 외양간에서 흘러나온 구정물에서
오줌지린내가 코를 찌를 때쯤
호박색 불 깜빡이는 우리집이 보였다.

장려상

오일장

고 은 조

오일차로 장이 서면
이른 아침
스피커에서
흥겨운 유행가 노래 흘러고
장마당 구경나온 이들
기웃기웃 살피며
천 원짜리 지폐
이손에서 저손으로
더리는 흥정하는
어머니들 정겹고
나름 무언의 구역 있어
언제나
사거리 그 자리엔
오텁, 떡볶이, 튀김
고소한 내음새
국민 간식이
웃음 꽃 피게 하네.

장려상

가을 소묘

-가을에 떠난 형님

장 점 옥

울집 옆은 양봉, 호두나무와 헤즐릿이라는 개암나무가 있는 밭이 있다.
밭이라고 할까? 아님 조금 더 넓은 텃밭일까?

나도 항상 궁금하다.

노후에 호두나무를 심어 덕 좀 보려고 하는데 가능이나 할까? 생각한다.
그리고 호두나무 사이에서 양봉이들이 살고 있다.

그 옛날에 영조 임금님께서 본인 사주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은 양봉일을 하는 촌로였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 그렇지 나도 영조 임금님처럼 왕 노릇을 하고 있을까? 아니지 서방이 봉이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있으니 봉이들 왕초다.

서방은 한 겨울 일월이 지나 이월부터는 봉이들을 흔들어 깨워 봉이들 키우기가 시작한다. 이른 봄을 알리기도 전에 봉이들은 주인 성화에 못 이겨 여왕은 알은 낳고 일벌들은 어디에선가 노란 화분을 다리에 달고 날아와 뒹뒹뒹 걸어서 제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하여 꽃 피는 봄이 오면 부지런하게 꿀을 물어 날라 주인님을 기쁘게 한다. 진달래, 개나리도 피고 나면 봉이들은 한층 더 바쁘게 움직인다.

참 말 부지런하다.

벚꽃이 피고 아카시아꽃이 피는 계절은 우리 봉이들에게 수확의 계절이 된다. 이렇게 한참을 지나 여름이오면 서방은 새로운 여왕을 탄생 시켜 다음 해를 위해 분봉을 하고 봉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려고 화분도 넣어주고 한다.

어느날, 도로변 공터에서 분봉시켜 놓은 봉이들과 놀고 있는 서방을 본

형님. 한 마디로 길옆에서 양봉과 놀고 있는 벌쟁이를 본 형님은 차에서 내려와 서방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에는 벌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부탁까지 한 다음 헤어져 간성 집으로 가셨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다. 우연하게 양양에 있는 양봉원에 볼일이 있던 서방은 그곳에서 간성 형님과 뜻하지 않게 조우함으로써 형님, 동생하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낙산 형님과 함께 양봉이아기를 한참 나누었고, 서방은 낙산형님 이름도 모른 채 그저 봉이의 의리로 형님, 동생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은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가 아닌 양봉원 봉이 결의로 삼형제 의형제를 맺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 세 사람은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고 폰으로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중 우리 서방이 막내라고 형님들을 깍듯하게 놀리고 편잔을 주면서 모시고 놀았다.

그렇게 만난지 어느 덧 몇 해가 지나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친형제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 역시 무소식이 회소식이라 했다. 불과 몇일전, 오늘도 서방은 봉이들만 챙긴다. 난 배추랑 씨름하고 있는데. 밭다, 무우도 뽑고 텃밭을 이리 저리 기웃거리며 망가진 배추도 툭툭 발로 밀어보고 한참을 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속초를 넘어 가 봐야 한다고 한다.

“왜?”

“낙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네…”

“그게 뭘소리여?”

그렇게 삼형제 중 한 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때서야 우리는 낙산 형님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누가 귀찮게 해서 형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버리신 걸까? 한마디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난 지금도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울 엄마가 무척이나 그리워진다.

찢힌 주황색으로 가득 담은 택배 박스가 무척이나 그림다. 그때가 그리워서 가을만 되면 감을 박스로 주문한다. 하지만 엄마가 보내주신 택배 박스가 항상 기다려진다. 한 번만 더... 나에겐 낙산 형님도 그런 존재였다. 자루에 가득 담은 밤 한포대. 주황색으로 가득 찬 감 한 자루... 이제 이런 기쁨은 더 받을 수 없겠지.

그래, 역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하나님은 사람도 수확하시나 보다. 오늘도 낙산 형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회상에 잠겨 본다.

「제27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학생부

대상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킨다.

원통초등학교 4학년 황주원

자연에게.

안녕! 나는 원통초등학교 4학년 꿈반 황주원이야. 나는 인제군 원통에 살고 있어. 우리 고장은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곤충이 많아. 나는 가을이 되면 잠자리, 사슴벌레 등 곤충을 잡으러 월하리 할아버지댁이나 용대리 자연휴양림에 간다. 그 곳에는 많은 곤충들이 있어.

보통 잠자리가 많이 보이고, 운이 좋으면 사슴벌레를 잡을 수도 있어. 그리고 관찰 후에는 꼭 다시 놓아주고 오지. 하지만, 올해는 잠자리 수와 사슴벌레 수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나는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환경오염 때문이었어. 그 후로 나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다른 기사를 확인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했어. 온도가 2도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20~30년 후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 등 환경에 대한 여러 기사를 읽고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졌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읽었어. 이 책을 읽고서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만약에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은 공기가 안 좋아져서 모든 사람이 방독면을 쓰고 나무와 동물이 사라져서 지하 공간에 식물을 심고, 음식이 없어서 냉동 식품을 먹고, 돈으로 깨끗한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어.

우리의 후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은 쓰지 않기, 물건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등 간단하게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꾸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지. 건전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발명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연과 인간은 하나야. 이 둘 중 하나라도 다치면 둘 다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올수도 있대. 왜냐하면, 자연이 환경오염으로 악화되면 인간이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하는 이유가 이것이야. 그래서 나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급식도 남기지 않고 다먹고 있어. 나처럼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연이 잘 보존됐으면 좋겠어.

올해 9월에 우리 동네 앞강에서 쏘가리 치어 방류행사를 했어. 나는 거기 참여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통발을 놓아 앞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볼 수 있었어. 통발에는 겨우 몇 마리만 잡혀 있었어. 이 행사를 시작한 이유가 앞강을 깨끗하게 하고 생태계를 보존 시키려고 한 거 같아. 앞으로 이 행사가 매년 열려서 앞강이 더 깨끗해 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협동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 협동하면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연아! 나도 너를 잘 지켜줄게.

그 동안 힘들어도 잘 지내야 한다. 사랑해.

2021년 11월
자연을 사랑하는 황주원이가

장원

반갑게 만나요

원통초등학교 2학년 박승아

예쁜 꽃 가져가자
여린 가지 꺾는 그 손길
반갑지 않아요

담배 참지 못해
불씨 채겨 오는 그 손길
반갑지 않아요

가져가면 귀찮다고
여기 저기 버리는 그 손길
반갑지 않아요

싱그러운 풀잎들도
향기로운 꽃잎들도
알록달록 단풍들도
모두 모두 보여 줄게요
아낌없이 보여 줄게요

반갑지 않은 그 손길은 두고 오세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 오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 언제나 반갑게 만나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건강한 자연으로 저를 만나러 오세요
반갑게 만나러 오세요

장원

맛 없는 마시멜로

토성초등학교 4학년 정도규

“와~ 마시멜로다!”

차를 타고 가던 중 동생이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곳에는 진짜 마시멜로처럼 생긴 커다랗고 흰 물체가 있었다.

“엄마, 저기 마시멜로처럼 생긴 흰 물체는 뭐예요?”

“어, 도규야. 그건 소의 먹이로 쓰이는 벼짚을 비닐로 묶어놓은 거란다.”

난 정말 신기했다. 왜냐하면 저렇게 커다란 벼짚 덩어리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기해하다가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논에 있는 마시멜로’라고 검색을 해보았다. 엄마 말씀대로 논에 있었던 마시멜로는 벼짚 덩어리라고 나와 있었다. 정식 이름은 ‘곤포 사일리지’였다.

논에서 추수를 마치고 나온 벼짚에 영양분을 섞어서 묶어두면 소들의 맛있는 먹이가 된다고 한다. 곤포 사일리지는 정말 농부아저씨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같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벼짚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벼짚을 소의 먹이로 팔면 농부아저씨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니 자연에게는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벼짚엔 영양분이 들어있어 땅에 그대로 두면 땅을 기름지게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 철새들이 왔을 때 철새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데 벼짚이 사라지면 벼짚에 붙은 낱알을 먹는 철새들의 먹이가 없어져 철새들 또한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철원은 철새가 정말 많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그 많은 철새들의 먹이가 사라진다니 걱정이 되었다. 결국 벼짚은 그대로 땅에 두었을 때 자연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말 자연 속에서 쓸모 없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마시멜로가 주는 피해는 또 있다. 마시멜로처럼 보이게 하는 하얀색은 벚짚을 감싸고 있는 비닐이다. 비닐을 재활용하면 좋지만 접착성분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결국 쓰레기장으로 가서 자연을 아프게 할 것이다. 가끔씩 몇몇 사람들은 그걸 처리하려고 불을 피워 태우기도 하고 그 연기는 공기 중에 흩어져 공기를 오염 시킬 것이다. 생각해보니 학교 가는 길에 연기가 많이 나서 불이 난 줄 알았는데 농사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자주 있었다. 혹시 그 속에 비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환경을 오염 시키는데 철원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을 보면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공기가 나빠져요. 그러니 쓰레기는 태우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주시면 자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라고 용기 내서 말하고 싶다.

농부아저씨에게 달콤했던 눈 위의 마시멜로는 땅과 철새와 공기에게는 맛있는 마시멜로이다. 자연을 힘들게 하는 마시멜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마시멜로를 먹으면 꼭 이를 닦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농부아저씨도 약속했으면 좋겠다. 마시멜로 대신 벚짚을 눈에 뿌리고, 비닐은 재활용하고 몰래 태우지 않겠다고. 그러면 자연은 건강한 땅과 멋진 환경과 맑은 공기로 우리 옆에 있어주겠다고 약속 할 것이다.

차상

나의 소중한 자람터

기린초등학교 4학년 박비주

내가 여덟 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강원도 인제군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으로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우리는 금방 적응해 나갔다.

이곳의 봄은 도시에 비해 매우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길가에는 이름모를 들꽃들이 가득 피어나고, 민들레 씨앗들이 봄바람을 타고 날아다녔다. 나와 내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에는 주말마다 근처 계곡에 자리를 깔고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관찰하며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집집마다 텃밭에 옥수수가 내 키 보다 크게 자라 있었는데, 그 덕에 강원도 옥수수를 실컷 맛보았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인제의 가을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다. 울긋불긋 단풍나무들은 내가 살면서 본 가장 멋진 풍경을 선물해 주었다. 가을 끝무렵에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설악산은 마치 녹이 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겨울은 어찌나 추운지 내린천 강물도 꽁꽁 얼어붙는다. 눈이 펄펄 내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손발이 얼고 볼이 빨개지도록 놀고 나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 그야말로 꿀맛이다.

곧 있으면 우리 가족은 다시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한다. 아직 열한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앞으로 강원도에서의 추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맑고 시원한 공기와 개구리, 풀벌레 울음소리, 투명해서 속이 훤히 보이던 내린천 강가도 마음에 묻어둔 채로 살 것 같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연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나중에 쭉쭉 자라서 사랑하는 인제의 이 멋진 모습을 다시 보기 위해 마음속의 약속도장을 꼭 찍었다.

차상

자연을 위한 백신

원통초등학교 4학년 박승주

코로나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숨을 쉬고 여행이나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는 코로나 전처럼 즐기기가 어렵다. 아빠가 저녁마다 즐겨보는 뉴스에는 장사가 안돼서 문 닫는 가게가 많아져 간다고 한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불안과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히는데,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온 몸이 아픈데다 마음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부지런히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만들어 코로나를 이겨 내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세상 속 자연의 이야기는 다르다. 사람들은 마스크도 있고 백신도 있지만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만든 셀 수 없이 많은 마스크들이 쓰레기가 되고 심지어 마스크 끈조차 동물들을 괴롭혀 못살게 군다.

감염을 줄이려고 쓰는 일회용 컵들, 포장 배달 그릇들도 동물들에 몸에 쌓이고 우리 환경을 더럽혀 하루 종일 마스크 쓰며 답답한 숨 쉬는 우리보다 숨 쉬고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려 애쓰고 있지만 자연의 친구들(동식물들, 땅과 물과 공기)은 애쓸 방법도 없고 사람들의 코로나를 이겨내려는 방법으로 더 많이 아파져간다.

내가 당장 이 지구의 모든 아프고 힘든 자연의 친구들을 한 번에 도울 수는 없지만 엄마에게 가끔 조르는 배달 음식도 한 번씩은 참아보고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써서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여지도록 해볼 것이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쓸 때는 마스크 끈에 동물들이 감겨 괴롭지 않도록 마스크 끈도 꼭 잘라서 버리기를 할 것이다.

나의 다짐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다짐들도 늘어나고 또
늘어난다면 자연의 친구들도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은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오염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자연을 위한 백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백신이 되지
않을까?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말이다.

차상

우리는 사라진다

기린초등학교 4학년 권율

나무 한 그루 베어내면
한 송이 숨이 가빠지고

꽃 한 송이 꺾어내면
목이 아파진다

자동차가 움직이면
코가 따끔거리고

공장의 엔진소리에
내 눈은 뿌예진다

나무와 꽃이 적어지고
공장과 자동차가 많아지면

나랑 지구는 아파하고
나랑 지구는 병들어 가고
나랑 지구는
결국 사라진다.

차상

숲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란 말이야!

삼척 청아중학교 1학년 김시현

헉헉, 힘겨워하시면서
빠그덕 빠그덕 무릎도 안 좋으신데
“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이다. 그림이야!”
감탄 감탄하시며 끝까지 산 정상을 향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꾸꾸꾸, 어깨에 짊어진 배낭도 무겁고
어기적 어기적 걷는 우릴 다 챙기시느라 힘드신 데도
“우와, 저기 좀 봐봐. 정말 너무 너무 멋지지 않니?”
그렇게 산 자락을 끊임없이 늘어놓으시는 우리 아빠!

에구구 에구구, 힘들어 죽겠다며
통통하신 몸매로 엉기적 엉기적 걸으시다가도
아래만 내려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멋있다. 멋있어. 좋다. 좋아!” 하며 또 힘내서 올라가시는 우리 엄마!

숲에 가자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높은 산을 오르는 건 그저 그저 힘들기만 했는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숲은 정말 정말 비타민 같고 보물 같아.

어느새 나도, 오빠도
 피톤치드에 철철 취해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사랑하게 되었고

흠흠~이 좋은 향기는 어디서 날까?
 코를 간지럽히며 끝없이 유혹하는 것이
 보랏빛갈 꽃이 고운 칙 향기이고
 하얀 사위 질빵 들꽃 향기란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지.

와우, 숲속 사이사이엔 숨은 알찬 열매들까지!
 오늘은 반질반질 예쁜 도토리 몇 개 주웠다
 우리 가족 반겨주러 쫓르르 달려 나온 다람쥐 앞에 놓아준다.
 가족들 모두 불러 배불리 배불리 먹으라고!

아, 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모른 채
 숲을 제멋대로 깎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숲은 정말 정말 소중한 보물이란 말이야
 숲은 우리 가족의 천연 비타민이란 말이야.
 무릎 안 좋으신 할아버지도 찾아가게 만드는,
 건강 안 좋으신 엄마도 찾아가게 만들고
 산이라면 절대 가기 싫다고 고개 젖던 우리가
 이젠 먼저 “주말에 산에 가요.” 하는 멋진 곳이란 말이야.

차하

훨훨 날아라

토성초등학교 4학년 최은서

두루미야, 안녕? 나는 너희들이 겨울마다 찾아오는 철원에 사는 최은서라고해. 나는 너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어떤 여행을 통해서 너를 조금 이나마 알게 되었고 너를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나는 오늘 철원에 있는 토교저수지 하고, 국제두루미센터, 마지막으로 두루미 전망대까지 갔다 왔어. 우선 토교저수지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너를 보고 싶어서 계속 갔어. 토교 저수지 근처에서 채두루미를 봤어. 그 곳은 밤에 너희들이 잠만 자는 곳인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엄청 많았어. 거기는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해서 우리 가족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조금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아쉬웠지만 그곳에서 노는 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그 다음으로 국제두루미센터에 갔는데, 그 곳에서 두루미에 대한 영상을 봐서 두루미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알게 됐어. 두루미가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환경이 별로 바뀌지 않은 곳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두루미를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두루미를 찍어서 대상을 받은 사진들도 있었어. 만약 사진대회가 있으면 나도 두루미 사진을 찍을 거야. 그리고 국제두루미센터에는 박제된 두루미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생해서 신기했어. 나도 만약 죽은 두루미들을 만난다면 이곳에 전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소중하게 물어 줄 거야.

다음으로 간 곳은 두루미 전망대야. 그곳은 멀리서 두루미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두루미들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 속상했어. 하지만 두루미 세 마리가 훨훨 날아다니

는 것을 보고 기분이 그나마 나아졌어.

내가 사는 철원에서 이렇게 두루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철원이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았고 민통선 쪽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못해서 환경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이라고 해. 앞으로도 철원의 자연환경이 나빠지지 않고 미래에도 철원은 여전히 두루미를 오래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너희들을 보호 했으면 좋겠어.

오늘 두루미에 대해 많이 알았고 자연환경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이 점점 살 곳이 없어서 멸종 위기 동물이 되고 있는데 공장을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 그래서 두루미가 멸종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

두루미야, 우리가 잘 보호해줄게. 너는 그저 훨훨 날아라.

차하

우리 집 환경이야기

기린초등학교 4학년 강병현

우리 집 환경은
깨끗하고
멋땃한 환경

우리 집 모두는
환경지킴이

분리수거 해야지!
아빠의 버럭버럭
천둥소리

선풍기 그만 꺼야지!
엄마의 잔소리는
바람소리

천둥소리와 바람소리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작고 소중한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더 깊게 뿌리 내려
사랑 속에 쑥쑥 자라나는
우리는 작고 소중한 나무.

차하

자연에게 알려주는 가족이야기

기린초등학교 4학년 김하늘

자연아 안녕? 나는 기린초등학교에 다니는 하늘이라고 해. 내 이름도 자연을 많이 닮았지? 그런데 내가 정말 미안한 게 많아. 사실 너 요즘 사람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힘들지? 물도 오염되었고, 땅도 오염되었고, 이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 때문에 공기도 오염이 돼서 많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자연아, 우리 가족은 이제라도 너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고? 내가 알려줄게. 아! 일단은 우리 가족을 먼저 소개해줄게.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나, 동생이 있어. 이렇게 네 명의 너 지킴이가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줘. 자! 이제 진짜로 이야기해줄게. 엄마는 폐트병 라벨은 꼭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어. 이렇게 자원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한단다. 그리고 아빠는 캠핑을 갔을 때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탄소배출을 줄여. 그리고 차를 잘 관리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 마지막으로 나와 동생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필요 없는 쓰레기를 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 가족은 조금이나마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내 편지를 읽고 조금이나마 힘을 냈으면 좋겠어.

자연아,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은 아니어도 자연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내가 될게. 꼭 약속할게. 그리고 자연아, 난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너를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너도 힘내! 항상 고맙고, 사랑해.

차하

소중한 흙에게 약속해요

인제남초등학교 3학년 손지웅

자연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아파트와 길로
흙이 사라지고 있어요.

돌이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그 모래가 흙이 되기까지
오백 년이 걸린대요.
그마저도 지렁이 같은 작은 영웅이
도와준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줘야 해요.
흙이 사라지지 않게.

차하

내가 종와하는 내린천

기린초등학교 2학년 박대운

맑은 물 내린천에
수달이 풍당풍당

추운 겨울 내린천에
바람이 켜아 켜아

내린천은
예쁘니까

나는
내린천이 좋아!

장려

자연과의 약속

인제남초등학교 3학년 최혜리

자연과 약속을 했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쓰레기를 버리면
자연이 엉망이 되지.

공장 연기가 많으면 안돼
하늘이 무너져
우리 사는 세상도 오염이 되지.

이것이
자연과의 약속이야.

장려

슬픈 돌고래

인제남초등학교 3학년 전희담

엄마 돌고래,
아들 돌고래 찾아 헤엄치네
돌고래 아들
그물에 걸려
돌고래 엄마가 슬퍼한다.

옆에 있는 고래 아저씨
플라스틱 먹고 먹어
목숨을 잃고 말았어.

엄마 돌고래는 말한다.
“바닷가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줘요!”

슬픈 엄마돌고래.

장려

자연은 나의벗

양구초등학교 5학년 서민식

아침에 눈 뜨면
따뜻한 햇살이
내 뺨을 비추고

거리를 거닐면
쌀쌀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싸고

어두운 겨울 밤
빛나는 달빛이
내 길을 밝히네

내 발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와
내 옆을 지키네

고맙다, 고마워
나의 벗이 되어줘서
자연아, 고마워!

장려

여행 편지

토성초등학교 4학년 태운재

자연이 여행을 간다
공기가 탁해져서
가지말라고 해도
빠른 발걸음

약속 세 가지만 들어주면
안 간다는 자연
“그게 뭔데?”
“지금 말해줄게.”

공기가 맑아지면 올게
새싹이 돋아나면 올게
쓰레기가 줄어들면 올게

시간이 지나고
자연에게 편지를 쓴다.

“공기는 맑아졌고
새싹도 돋아났고
쓰레기도 줄어들었어
약속 지킨 것 같은데
다시 오지 않을래?”

장려

자연과의 약속

정라초등학교 6학년 김예림

안녕?

너는 오늘도 아프구나

걱정마, 너의 친구들은 안 아프게 내가 보살피 줄게

매일 물도 먹이고 사람들이 너의 친구들을 해치지 않게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도 힘을 내 우리 환경을 지켜줘.

내가 아프니

깨끗하고 쾌적했던 환경이 안 좋고

나쁜 환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자기네들이 손해인지 모르나봐.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하려고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없으면 우리는 살기 힘든데.

하지만 걱정 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그니까 넌 너의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너의 건강을 조금 더 들여다 봐줘.

너는 낫는 것만 집중해

너의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장려

나의 길고 긴 꿈

홍천초등학교 5학년 김주아

중학교 등교 첫 날 눈을 떴다.

“헉! 늦었다! 8시 50분이러니!”

늦어서 밥도 못 먹고 바로 씻으러 갔다. 양치 할 때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하는 게 더 빠르다. 집 앞 편의점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사서 아빠의 차를 타고 등교했다. 걸어도 10분이면 되는 거리지만,

‘바쁜 날엔 아빠 찬스다!’

‘지각을 해도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으니 그렇게 민망하진 않겠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나를 덮쳤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이게 말로만 들던 교통사고? 이렇게 나의 긴 잠이 시작되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 아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 맑은 공기와 푸릇푸릇한 식물들, 책에서만 보았던 멸종동물들도 내 눈에 들어왔다. 자동차의 연료는 음식물 쓰레기와 자전거 발전기로 만들었고, 이슬을 모아 마시거나 식물에게 주고 있었다. 미세먼지라는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 단 하나도 오염된 것이라고는 없었다. 마음껏 구경을 하다가 크고 아름다운 궁전이 눈에 띄었다. 그 곳에는 여왕이 살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나를 반겨주셨다.

오랜 여행에 지친 몸을 씻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시스템이 “전기를 다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저녁식사 시간에 여왕에게 초대되었다. 여왕은 내가 이곳에서 한동안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었다. 나는 이것저

것 불편한 점을 말했지만 여왕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니 아래 여섯 가지 규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첫째, 되도록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둘째, 물건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껴서 사용한다.

셋째, 버려지는 쓰레기는 충분히 재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안쓰는 전기코드는 뽑는다.

다섯째, 충동구매는 하지 않는다.

여섯째, 물을 아껴 쓴다.

다음 날부터 이곳에서 나의 친환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하루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알게 되고, 내 생활은 점점 친환경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여왕과 백성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이곳에 적응이 잘 되어 나 역시 불편한 점이 없었다.

오랜만에 여왕이 나를 다시 초대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곳에서의 생활대로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것만 잘 지켜도 네가 사는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이라 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실천해서는 해결 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는 돌아 갈 날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하루 뒤 나는 깨어났다. 울고 있는 엄마가 보였다. 우리 가족 모두가 날 안으며 기뻐했다. 매일 싸우던 언니도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언니가 가장 아끼는 스마트패드를 나에게 주겠다고 한다.

3주 뒤,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어젯밤은 기대가 되어 잠을 설쳤다. 지금은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밥을 먹고 양치할 때는 조금 귀찮긴 했지만 물을 컵에 담아 사용하고 머리를 감은 뒤 드라이기를 사용 후에는 전기코드도 뽑았다. 물은 보온병에 담고, 학교 갈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가는 길에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누를 뻔 했지만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패스했다. 이렇게 학교에 도착해 교실로 들어가니 친구들의 퇴원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꿈에서 만난 여왕님께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

장려

나무를 지켜라

상남초등학교 1학년 이하은

나무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느라 고생했어.
넌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안된다고 말해줄게.
내가 대신 너에게 미안해! 힘내 나무야!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게 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가을나무야! 너는 참 예뻐!
겨울이 와도 씩씩하게 있어줘.

나무야!

종이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너는 종이를 만들면 없어지지만
넌 참 좋은 나무야.

장려

자연에게 보내는 선물

정라초등학교 6학년 송지환

자연아, 네가 가지고 있는 멋진 나무와 꽃
하지만 인간들의 욕심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져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 너무 불안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와 꽃을
더 볼 수 없다는 것이...
나는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나는 자연을 위해 자그마한 실천이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한 걸음이라 생각해
나 역시 자연을 위해 그 한 걸음을 걸을거야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것이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거야
우리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게!

「제27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일반부

대상

달나라 청룡이

정호백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 늦은 가을날, 굴삭기들이 우리 동네 언덕길 산허리를 긁어내리기 시작했다. 뿌리 짚 뽑힌 소나무는 트럭에 실릴 때 가기 싫다고 팔다리를 뻗디뻗었다. 새로 생긴 광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KTX역으로, 왼쪽은 올림픽경기장으로 가는 길이 트였다. 한 달여 요란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역에서 올림픽파크로 이어지는 길이 완성되었다. 올림픽에 온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이다.

길 완공 후 새 광장 자리에 있던 샘터와 가로질러 시장통으로 가는 오솔길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장터 먹거리 골목에서 술자리를 마치면 그 길로 걸어오곤 했다. 가볍게 걷노라면 시원한 바람에 술기운도 날려 보내는 청량제 같은 길이었다. 샘터는 넓은 광장으로, 오솔길은 직선화된 인도로 되었다.

장터를 빠져나오면 오솔길이 시작되고, 산기슭에 얹혀있는 밭에는 아주 까리가 자라고 있다. 키 큰 아주까리는 행사장 진행요원처럼 손을 흔들기도 하고, 낙엽철이면 바람에 서걱거리며 가을을 즐기자고 속삭인다. 아주까리를 지나면 개망초가 밤바람에 살랑이며 반긴다. 수은등 아래 하얀 개망초 꽃들은 하늘의 별이 쏟아져 기슭에 흩뿌려진 듯하다.

길의 절정은 언덕길 막바지에 있는 샘터다. 샘에서 나오는 물은 재잘거리며 시장통 쪽으로 흘러간다. 샘터 주변 기슭엔 민가나 오염원이 없어 물이 깨끗하다. 어릴 적 이런 샘물을 보면 청미래 잎을 으드려 떠 마시곤 했다. 이제는 이런 샘을 바라보면서 정겨움을 마신다. 샘터를 지나 우리 동네가 보이면 수은등 불빛 야행이 마무리되어 끝내 아쉬움이 남고는 했다.

몇 년 전 초여름 날, 마찬가지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오솔길에 올라섰다. 가로등 아래에서 놀자고 손짓하는 아주까리를 뿌리치고 샘을 본다는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다. 샘터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 사이로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보였다. 손으로 나뭇잎을 걷는 순간 손에 물결한 감촉이 느껴졌다. 좀 놀랐지만 물 위 나뭇잎을 유심히 보았다.

양증맞은 연둣빛 청개구리였다. “아, 네가 여기에 있었구나. 언제부터 지?” 우리 동네에서 청개구리를 본 게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나뭇잎을 물 위에 띄우고 청개구리를 배 태우듯 올려 주며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집 뒤 가파른 언덕 위에 텃밭을 가꾼 적이 있었다. 시골에서 농사짓다 도시로 온 후 늘 텃밭이 그리웠던 어머니는 언덕 위에 두어 평 정도 텃밭을 일구고 ‘달나라’라고 이름 지었다. 달밤에 쳐다보면 달이 그 밭에 걸려 있다고 했다. 우리 땅은 아니지만 달나라 덕분에 우리는 늘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달나라 한편 작은 물웅덩이에서 청개구리를 발견했다. 웅덩이는 장맛비로 생긴 것으로 어머니는 곧 물이 마를 것 같아 대야에 물을 담아 놓고 바가지도 띄워 놓았다. 청개구리는 웅덩이와 바가지를 번갈아 뛰어다니며 놀았다. 이를 본 초등생 딸은 녀석의 이름을 ‘청롱이’로 지어주고 틈만 나면 달나라에 올라갔다. 급기야는 ‘내사랑 청롱이’라는 시로 교내 백일장에서 상을 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도저가 달나라를 순식간에 밀어버렸다. 언덕 위 넓은 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달나라는 물론 우리의 청롱이도 사라졌다. 우리 소유가 아닌 달나라를 어찌하지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을 뿐이었다. 그 시절 감수성 예민한 딸은 못내 눈물까지 글썽였던 생각이 났다.

이 녀석이 그때의 청롱이라고 믿고 싶었다. 달나라에 살다가 변을 피하여 이곳으로 온 것일까? 어깃장 고집을 예견한 엄마 청개구리가 산 위로 가라고 했는데 이곳으로 왔겠지. 어쨌든 기억에서 사라졌던 ‘달나라 청롱이’를 다시 만나 반가웠다.

낮의 청롱이는 뭐할까 궁금하여 휴일 낮에 샘터를 찾았다. 샘터 주변을

한참 둘러보았지만 청룡이 대신 낙엽 진 떡갈나무잎 하나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뭇잎을 들추자 뜻밖에도 갈색으로 변한 청룡이가 숨어 있었다. 자연의 섭리대로 변색하였지만 낯선 생명체 같아 안쓰러웠다. 한참 주절주절 이야기 나누다가 안녕을 했다. 그것이 청룡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 우리 청룡이...’ 갑자기 보금자리를 덮쳐버린 거대한 굴삭기를 피하기는 했을까? 겨울잠 준비를 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하니 불쌍한 생각에 가슴 아팠다. 난리를 피해 어딘가에 다시 보금자리 틀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솔길과 샘터를 밀어내고 만든 올림픽파크 보행로 광장은 매우 넓어 삭막하기까지 하다. 광장 부근에 샘터를 보존하고 오솔길도 살려서 실개천까지 흘러가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개발로 사라졌던 청개천이 복원돼 많은 사람이 도심 속 자연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인공폭포는 억지로 물을 끌어왔을지라도 생활에 찌든 인간들을 정화하는 역할을 독특히 한다. 이렇듯 큰 돈을 들여서조차 자연을 복원하는데, 하물며 스토리가 있을 법한 자연을 없앤 것은 너무 아쉽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서 열린다. 인류의 행복에 자연 공존도 함께라면, 샘터와 달나라 청룡이는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있던 자연을 개발할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그리고 인간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을 훼손할 때는 이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해야 한다. 자연과의 약속을.

장원

자연, 그 찬란함 속에 스며들다

민은혜

“강원도 인제군으로의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3년 전 겨울, 전입신고를 하자 면사무소 직원분이 전입을 축하해 주시는 동시에 강원도에서의 나의 삶은 시작되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만 자란 나에게 강원도란, 일년 중 여름에 한 번, 새해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오는 여행지에 불과했다.

새파란 바다와 높디높은 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연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는 이곳에 집을 두고 살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기에 이곳에서의 삶의 시작은 참으로 어색하기만 했다.

이사 오던 해 겨울은 눈이 참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한다. 아니 어쩌면 도시에 살 때랑 별 차이 없는 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산에 덮인 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겨울왕국’이 떠오를 정도였다. 아마도 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살며시 내려앉은 그 배경이 달랐기 때문일 터였다.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첩첩산중에 쌓여있는 많은 눈과 집 앞에 있는 팡팡 얼어붙은 내린천을 보았다면 다른 이들의 생각도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산타 마을이 그려진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마치 ‘겨울왕국’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듯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녹아가는 눈과 얼음이 아쉬운 이유는 ‘겨울왕국’을 만나려면 일 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잠시, 어느덧 온 사방에 새싹이 나고 꽃봉오리가 피어난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눈이 녹자 질다 못해 어두워 보이기까지 한 주변 산들이 보고만 있어도 숨이 절로 쉬어지는 맑고

밝은 초록빛으로 물들어갔다. 도시에 살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들러야 하는 공원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내 집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어찌면 살면서 처음으로 자연을 보며 설렘던 순간이었지 싶다.

특히 우리 집 베란다에는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크나큰 벚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 흐드러지게 벚꽃이 필 때면 나도 함께 설레이고, 벚꽃이 질 때는 나도 함께 외롭기까지 느껴졌다.

눈부신 시간이 그뿐이었으랴. 이곳의 여름은 또 어떠한가. 뜨거운 태양이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이곳의 여름은 태양이 자연에 반사되어 더욱 찬란함을 내뿜고는 한다. 또한 그 찬란함이 내린천을 비추어 만들어진 금빛 물결을 보고 있노라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느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정도다.

깨끗하고도 힘찬 물줄기를 가진 탓에 매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이곳 내린천으로 모여들곤 한다. 물을 무서워하는지라 아직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광활한 산과 들을 배경으로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열심히 노를 젓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에 기대어, 자연과 함께, 자연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느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 놀러와 자연경관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래프팅을 즐기며 끊이지 않는 웃음을 보이는 도시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빛이 나는지 깨닫게 된다.

더위가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산들이 각양각색으로 물들어간다. 어제 봤던 곱디고운 색들이 오늘은 또 다른 색을 띠며 그야말로 하루하루 ‘안구 정화’를 해주곤 한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본 적이 있었는가? 그래, 가장 비슷한 장면을 굳이 찾는다면 어느 사극을 보며 눈을 땔 수 없게 만들었던 등장 인물들이 입고 있던 한복 색이었던 거 같다. 빨강, 노랑, 파랑이란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되는,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그려낼 수 없는 이곳의 단풍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란 표현 밖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곳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대답할 것이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 하루하루 맞이하는 풍경은 내가 살면서 늘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 풍경’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기에 그런 자연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단 사실이다. 가끔 도시에 볼일을 보러 갈 때 이곳과는 다른 공기와 하늘빛, 풍경이 낮설어서둘러 발길을 돌리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 금세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주느냐에 따라 자연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준다. 연인들의 사랑이 상호작용인 것처럼 우리도 자연과 상호작용인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큰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장원

자연과의 약속

유민아

나의 고향은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인 산골이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려면 멀미가 날 정도로 굽이굽이 고불길을 한참 달려가야 하는 곳이다. 산골에 봄이 왔다. 산나물을 뜯느라 분주한 엄마를 따라 이리저리 숨가쁘게 산길을 다닌다. 나물을 뜯다 지루하면 지천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한 잎 한 잎 따먹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뜯어온 취나물과 고사리를 다듬고 가마솥에 푹 삶아 햇볕에 바짝 말린 후 장날에 내다 판다. 나물 삶는 구수한 냄새가 마당가득 퍼지는 때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궁색한 살림인 우리 집이 오랜만에 돈 구경하는 날이다. 훗날 엄마는 이 쌈짓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여름이다. 논일로 밭일로 더욱 더 정신없이 바빠진 엄마에게 새참으로 드린다고 고사리 손으로 곤로에 라면을 끓였다. 냄비 썰 들고 뒷산 중턱 선산에 있는 손바닥만 한 밭으로 간다. 엄마는 지친 표정에 콩알만큼의 미소를 띠고는 “이게 뭐고? 아이고 잘 묶으께, 큰 일 했따” 불어터진 라면을 맛있게 드신다. 아픈 아빠를 대신해 가장의 자리를 메꾸느라 엄마의 여름은 까맣게 그을려져 갔다.

추수의 계절은 또 어떤가. 사람하나 겨우 지나다니는 산길을 수차례 왕래하며 밭에서 집까지 무며 콩이며 고구마를 등에 지고 나르느라 안 그래도 작은 엄마의 체구는 마른 낙엽처럼 가벼워져 간다.

가을은 어린 내가 유독 기다린 계절이기도 했다. 산 주인인 육촌 아재의 허락을 받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고개 두 개를 넘어 밤나무 골짜기로 간다. 포대 하나 들고 가는 길, 마음은 벌써 부자가 되어 든든하다.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알밤들이 여기저기 지천으로 떨어져 있다. 엄마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흠어져 정신없이 밤을 주워 담는다. 알밤 줍기 대회

라도 열린 듯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다. 씨알 굵은 놈들이 하도 많아 잔잔바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굵은 알밤이 가득 든 포대를 어찌 들고 돌아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단출한 세 식구가 오붓하게 둘러앉아 까먹은 삶은 밤 맛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제 혹독한 겨울이 오나보다. 엄마는 더 분주하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되어 산에서 나뭇단을 짊어 내려와 집 마당에 쌓아놓고 또 산에서 나뭇단을 짊어 내려오고 쌓기를 반복한다. 추위를 대비하는 일이지만 마당 한 편에 쌓여 놓은지 오래되어 썩어가는 나무더미가 있다. 그것을 장식품처럼 두고 엄마는 또 새로운 나뭇단을 채워 놓는다. 땀감 한 번 맘 놓고 때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어린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가난한 가장에게 뜨끈한 아랫목의 호시는 없었다.

사춘기 때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널뛰기를 주체 못하고 엄마와 큰소리로 다툰 날, 울음보가 터질 것 같아 어스름 해가지는 뒷산을 올랐다. 시간이 갈수록 주위는 캄캄해지고 바람은 더 매서웠지만 서러움을 토해내듯 한 참을 울고 나서 녹초가 되어 터덜터덜 집으로 내려왔다. 그런 나를 산은 묵묵히 지켜봐주었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자주 산을 찾았다. 능선에 앉아 마을을 굽어보면 저 멀리 맞은편 산 밑으로 반가운 외갓집도 보이고 버스가 다니는 굽어진 도로도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도 보인다. 스케치북에 한 폭 풍경을 옮겨 그린 후 웬지 모를 뿌듯함에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온다. 줄자를 자랑 할, 또 칭찬해줄 누군가가 없어도 그만이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넉넉하고 따스한 품을 내어주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식을 기른 엄마를 닮았다. 스무 해 전 돌아가신 엄마와 십여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고향 선산에 뿌렸다. 지금은 고향집도 사라지고 산에 오르려면 정글을 이룬 풀숲을 헤쳐 가야하고 산 중턱, 세 식구의 밥줄이었던 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갑작스럽게 내달리는 고라니 소리에 내가 더 놀라는 사람 발길 뜬한 곳이 되었지만, 고향 뒷산은 당신 생각에 여전히 가슴 먹먹해지는 그리운 곳이다.

산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나는 산을 참 좋아한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뒤에 야산이 있다. 작은 산에 꼬불꼬불 오솔길이 참 많이도 나있다. 사람 다니기 편하라고 줄기차게 밟아놓은 흔적들이다. 소나무로 유명한 지역이라 멋들어진 소나무가 많고 발자국 소리 무섭게 달아나는 까만색에 귀가 쫑긋한 청설모도 종종 보인다. 작지만 오밀조밀한 산국화도 있고, 여기서 기 버섯이 빼죽빼죽 고개를 내민다. 양지 바른 곳이나 멀리 바다가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는 쉬어가라고 누군가 의자도 갖다 놔다.

산이 좋아 자주 찾지만 가끔 산에게 미안하다. 뭔가 그들이 사는 세상에 내가 불청객이 된 듯 느껴진다. 조용히 머물다 가야지 마음먹다가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면 안타까운 탄식이 새어나온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자연보호’ 현수막이 무색하게 빈 생수병, 담배꽂초, 비닐봉지에 곱게 담긴 반려견의 배설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사탕봉지는 단골처럼 자주 만난다. 사람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썩기까지 비닐봉투는 약 100년, 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갑작스레 꺼안은 쓰레기를 내치지도 못하고 오롯이 품을 수밖에 없는 산이 안타까워, 보이는 족족 줍다보면 내가 산을 만나러 온 것인가 쓰레기를 주우러 온 것인가 버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올라온다.

법정 스님은 “이 땅은 미래의 내가 살 곳이다”라며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말했다.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자연은 훗날 나의 자손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보호막이다. 당장의 내 이익에 눈이 멀어 편리만 생각한 비참한 결과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오롯이 되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훗날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사람의 편리해 이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 쓰레기 섬을 만들고 해양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최고 포식자인 인간의 몸에도 쌓이고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산짐승이 길을 잃어 로드 킬을 당하고 치열한 산업화에 공기가 오염되고 기후 온난화로 산불이 나 숲이 없어지고 빙하가 녹고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누구 말대로 멈추면 보일 텐데 무한한 욕망을 향한 개발은 멈출 줄 모른다.

부모가 노쇠하고 병들어 고통 받는 것을 못 본체 하고 끝없이 베풀어 달

라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떼쓰는 철없는 아이의 길은 버리고, 지구에게 지금껏 생명 활동을 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해준 것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아프고 상처 난 부분이 있다면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산을 오를 때 커다란 봉지하나 가져가서 산을 내려오며 눈여겨 봐뒀던 쓰레기를 주워 온다. 해변을 산책하며 버려진 맥주캔이며 음료수 병, 폭죽 등 바람만 한 번 휩 불면 곧장 바다로 들어갈 쓰레기들을 주섬주섬 주워 나온다.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자연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식탐으로 육식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나만의 작은 다짐을 하며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게 새끼 손가락을 걸어본다.

차상

자연과의 약속

정 연 선

가을이 오면 여름내 참아온 등산을 시작한다.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일은 어른들끼리 훌훌히 오를 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길의 리듬감에 곧잘 장단을 맞추다가도 슬슬 아이의 흥미가 떨어질 때쯤 요긴하게 쓰일 간식이나 이야기 같은 것 말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아이 손에 꼭 맞는 목장갑 한 벌과 집게, 쓰레기를 담아올 봉투를 준비했다. ‘이 중에서 없어야 할 것을 고르시오.’하고 숨은 그림을 찾듯이, 플로깅 [plogging]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의 달리기를 뜻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한다.

게임에 임하듯이, 여느 때보다 눈과 볼에 생기가 가득한 출발이었다. 깨진 소주병, 사탕 껍질, 노끈, 과자 봉지, 양말까지 없어야 할 다양한 것들이 곳곳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다. 챙겨 간 봉투가 반 이상이 채워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와 차에 다다랐을 때 딸이 물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챙겨간 비타민 포장지의 한 귀퉁이도 어디 떨어지진 않았는지 살살이 적출해 챙겨올 만큼 책임감 있게 다녀오려고 노력한다. 빠른 대답을 요구하는 아이의 의아한 표정 앞에서 나는 대충 “엄마가 너희 방 치워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지구촌 사람이니까, 연대책임인 거지.”라고 대답해버렸다. 당연히 연대책임에 대해 자세히 물어올 거라 생각하며 이마를 짚는데, “그럼 엄마처럼 ‘산이 이게 뭐니!’ 하며 치워도 되겠네?”라며 농치더니 “나 사실 처음엔 재밌었는데, 점점 짜증났어.”라고 발을 땅에 뚫다 붙였다 털썩거린다.

돌아오는 내내 아이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아이와 나의 감정은 일종의 억울함이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조별 과제라면, 그것을 망친 건 우리가 아니라는 발뺌.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은 반감이나 경멸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산에 오르며 쓰레기를 담을 때 ‘에라, 여기까지 소주병이 나뒹굴 일이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가 하면, 주머니에 잘 챙기려 했으나 어찌면 바람에 이탈해 버렸을 사탕 껍질과 투기된 게 분명한 봉투째 버려진 쓰레기를 두고 판사처럼 죄의 경중을 따져 물었다. 검은 그림자로 상상되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끌고루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가만, 나는 다른가. 환경 문제를 사이에 두고 영웅과 악당의 진영 중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가늠해보았다. 주말 점심이면 배란다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쌓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육식을 하고, 겨울엔 거위, 라쿤과 같은 동물에게 빗을 지고도 그리 개의치 않고……. 나는 적어도 환경 문제에 있어선 악당 쪽에 가깝지 않을까. 채식주의자나 환경운동가들이 일필휘지하는 조별 과제에 무임승차한 과렴치는 아닐까. 결코 무결하지 않은 나에게 환경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고, 남을 지적할 자격이 있을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악당임을 자처하며 편하게 살아갈까.

고개를 저었다. 다시 생각해도 그건 안 될 일이다. 다만 사람 때문에 몸살을 앓는 자연 앞에서 누구도 당당할 수 없지 않겠냐고 변명하고 싶어졌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고 사는 한, 우리 모두는 자연에게 일정 부분 빚이 있다. 먹는 일, 자는 일, 입는 일, 버는 일, 그 밖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 사실은 모두 쓰레기를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파도 항변할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오늘 당장 채식주의 선언을 하고, 환경 단체에 후원을 시작한다고 해보자. 이런 일들은 몇 달 안 가 나의 무능함과 변덕스러움만 확인하게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자연을 위하는 일을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는 쉽지 않은 일부터 생각나는 걸 보면, 나는 어찌면 자연을 위하는 일을 극기 훈련쯤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절제를 잘해서 나무랄 게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자연과의 약속에 앞서, 치우친 생각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이상과 구호의 영역에서 끌어내려 현실의 영역으로 옮겨와야 한다. 자연을 위하는 일이 꼭 완전하거나 교조적인 일일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선 자연을 망치는 내가 어떤 면에선 자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철학자 볼테르는 “최선은 선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최고도 좋음의 적이지만, 최선도 선의 적이다. 지속할 수 없는 최선을 추구하는 욕심보다 가능한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닐까. 좋은 것은 그 자체로 모자람이 없이 좋다. 실제로 어떤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일이 될 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의심, 체념, 방종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엇 하나라도 자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다. 먼저 욕망의 피라미드를 그려볼 것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일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가려볼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고기를 감히 죄의식 없이 먹을 것이다. 우리 집엔 성장기 아이들과 곧 근육이 빠지기 시작할 부부가 살기 때문이다. 대신 동물권을 위협하는 화장품과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탄소 발자국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이 적은 고장 음식을 사랑할 것이다. 미약한 시작이지만 이 정도의 경로 이탈도 내 삶에 새 길을 내는 동력의 근원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자연을 자주 만날 것이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연을 먼발치에 두고 모시고 살 수는 없다. 자주 만나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연에 대해 자주 안일해지는 이유는 그것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모두의 것이지만, 그래서 누구의 것도 아닌 역설이 우리를 즉시적인 행동으로 이끌지 못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생각에 착안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해변 입양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 제도의 공식적인 이름은 ‘반려해변’이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이 만들어졌다. 비공식적이지만 나 역시 우리가 자주 들르는 산을 입양해 반려숲으로 지정하고 기꺼이 자연의 반려자로 살아가고 싶다. 일평생을 벗어나며, 돌보

고, 아끼며.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좋은데, 내 것이 아닐 리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나는 천성이 썩 명랑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를 상정할 때 종말론적인 비판보다 좋은 세상을 희망하고 상상하는 쪽이 실제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다시 딸의 질문을 생각한다. 딸의 질문을 “엄마, 이 숲은 우리 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껴?”로 바꿔 들어도 될까. 그렇다면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응! 여기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숲이니까. 알게 모르게 자연에 많은 빛을 지고 있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적성에 맞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약속이니까.”

차상

자연과의 약속

안은자

어린 시절, 내가 자란 곳은 온통 자연으로 둘러쌓여 있었다. 하늘 그리고 산과 강뿐이었는데도 나는 수없이 많은 놀이를 하며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도회지로 나가면서 서서히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살이 났고, 대상포진이 생겼다. 결혼 후에 다시 시골로 내려오기까지 고민은 컸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업 주부로만 지내다 막상 직장생활을 시작하니 또 다시 몸이 허약해지기 시작했다. 감기와 몸살이 중복되어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겼다. 이 때 처음으로 마음먹은 것이 운동이었다. 시골이라 마땅히 운동을 갈 곳도 없었다. 퇴근과 동시에 집근처의 야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무섭고 지루하던 길이 날이 갈수록 익숙해졌다. 그리고 처음엔 오로지 정상만 향해서 달리던 조금함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은빛이 감도는 자작나무 숲이 보였고, 철따라 변하는 풀과 나무들의 옷들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나는 그닥 길지 않은 왕복 40여분의 산길을 꼬박 걷고 있었다. 걷다보니 산은 우리의 인생과 닮은 점도 보였다. 서서히 오르다 보면 정상이 있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 그 길의 묘한 매력은 삶의 동선과 닮아 있었다. 누구에게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 깨달으며 흠을 밟는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신기하게도 날마다 내가 접한 자연 덕분인지 나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감기랑도 멀어졌으며, 하다못해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에도 더 충실할 수 있으니 그

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산이 내게 준 큰 선물임에 틀림없었다.

비교해 보건대, 내가 자란 시골의 자연과 지금의 자연은 다른 점이 참으로 많다. 하기사, 강산이 몇 번 변했으니 변화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적인 변화가 아닌 인위적인 변화로 인해 많이 병들어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다. 발명과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산과 강은 많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먹감고 놀던 냇가에서 물을 식수처럼 마시기도 했고,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거의 보질 못했다.

지금은 상상 한 번 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 자주 놀라곤 한다. 세상이, 자연이 이렇게 되기까지 나도 한몫 거들었다는 죄책감이 늘 마음 한 켠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상황은 인간이 만든 ‘자업자득’의 결과라 생각한다. 편리와 이득을 위해 해친 자연은 회복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나 혼자라도’ 작은 실천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운전을 하고 볼일을 보러 나가면 실제 거리보다 더 멀리 주차를 하고, 일부러 많이 걸어가서 볼일을 보게 된다. 배달음식을 주문해도 나무젓가락을 받지 않는다. 카페를 갈 때엔 반드시 텀블러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집에서 과일껍질과 계란껍질은 모아 말려서 꽃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수를 구입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다. 번거로워서 가끔은 그만둘까 하는 유혹도 생긴다. 그러나 망가진 지구를, 자연을 물려받을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엔 너무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크다.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나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거란 즐거운 상상도 가끔 해본다. 내가 숨쉴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다 자연이다.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 때론 숨을 옥죄어 온다. 넉넉할 땐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연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님을 실감한다. 그 어떤 것도 넉넉하면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안일한 생각과 생활은 자칫 큰 위험을 안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엔 없던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며,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하는 세상

에 살고 있다. 말이 없는 자연이라고 해서 아껴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저항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자연!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지구상에 자연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인간의 존재도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세상엔 자연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조건없이 자신을 내어주고도 무한히 상처받는 것이 자연이다. 풀 한포기, 물 한 방울 다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자연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내게 요구하지 않아도 나는 약속을 해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는 약속을 해야한다.

지구, 그 안의 모든 자연을 소중히 다루고 감사할게! 라고.

차상

계절의 빗소리

연혜정

복사꽃 알알이 맺은 약속
아련한 꽃비 되어 내리고

후둑후둑 이파리들 아우성
녹음에 숨 가쁘네

낙엽 비 못다 피운 춤사위에
가랑가랑 가야금 소리 더하고

하얀 이불 사라락 내어
고단한 몸 누이네

차상

내린천 연가

정 진 철

굽이진 길을 따라
흙 내음 들먹이고

담백의 평온에서
청물감 풀었는가

울불긋 풍악소리
우리가 꿈을 꾸네

시디신 푸른 백야
천내린 내린천하

차하

복음

백 남 석

지상에 기쁜 소식 들려주고 싶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동료들을 만난다
다져 논 굳은 결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해질 냉기마저 기쁘게 받아내며
동료를 끌어안고 만남을 기다린다
조급함 빠져나와도 꾸깃꾸깃 접으며

혼자선 낼 수 없던 우리들의 목소리
예쁘고 동그랗게 정성껏 포장하여
이제는 당신 곁으로 자유로이 떨어져

대지의 심한 갈증 달래주는 그 소리
새싹의 어린 불을 어루만질 그 소식
당신의 근심걱정을 해소해줄 그 복음

차하

친구를 부르는 빛소리

길 상 현

휴일 늦은 아침
침실 창 너머로
찌뿌드드한 내 몸만큼
잔뜩 찡그린 하늘이 내려온다.

내 몸이 일러주는 예보대로
곧 다음 계절을 부르는 세찬 손님이 오시려나 보다.

고소한 냄새로
빛소리에 장단을 맞추려
냉장고 속
소박한 보물들을 모아본다.

후두둑 후두두두

겨울을 부르는 묵직한 빗소리와 함께

치치익 치이이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맛있는 소리들

딩동 디디디 덩동

이 백근 무게만큼 경쾌한 친구의 벨소리

까치집과 함께 달려온 날 것 그대로의 친구와

수십 년째 귀에 박힌 익숙한 이야기들로

오늘도 빗소리에 장단을 맞춰본다.

차하

빗소리

고 은 조

휘이익 바람 일어
주홍빛 곱게 물든 단풍들이
끝내
마지막 잎새마저 떨구고
하늘은 온통 잿빛

투둑 투드득
비 내리는 날에
우산 받쳐 들고 길에서니
코끝에 전해지는
진한 낙엽 향기
“빗소리 들으며 떠오르는 모습”
유행가 노랫 흥얼거리고
소녀가 되어
낙엽 길을 걷는다.

차하

내리는 비를 보며

김 동 옥

하루종일
비오기를 기다렸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아쉬워
빗길 차 소리에
떨어지는 천둥소리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내 마음도 아쉬워하며

한참동안
떨어지는 비를 바라봤다.
창문에 튀어 부서지는 빗방울에
창틀이 젖고
바닥이 흥건해져도
내 마음이 적셔질 때까지

열린 창문 사이
나뭇잎에 맺혀진 빗방울에
물기에 휘청이는 개미에

마음 쓰리게 아파하며

차하

인류는 자연과 대결해 왔다.

최예원

‘엄격한 자연’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인상을 받는가. 머리위로 사정없이 내리쬐는 태양, 비를 부르는 먹구름은커녕 약간의 그늘을 주는 구름도 나타나지 않고 풀도 나무도 타버려 그늘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더구나 물 한 방울 찾아 볼 수 없는 대 사막. 현대에 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그런 곳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현재의 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원시생활로 돌아갔다고 가정해 보자. 1만 년 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구를 덮친 세 번의 대 빙하시대가 겨우 지나고, 태양의 파사로움이 되살아난 대지를 울창한 수풀이 끝없이 뒤덮고 있다. 한 걸음 발을 들여 놓으면, 나무 그늘은 축축하고 어두워 어디선가 맹수나 독사가 나타날 것 같은 기척이 느껴진다.

본래의 원시림은 대개 이것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기엔 망설여지는 곳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깊은 숲속에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늘위에서 삼림을 관찰하거나 기계력으로 개척하는 수단이 없었던 원시인으로서, 거기서 분명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장소는 현재 발굴되고 있는 당시의 유적으로 보아, 해안과 호수와 강가나 또는 초원 등의 삼림이 적은 지역이었다.

숲의 어둠을 불태우고 거기에 사는 맹수를 죽음에 몰아 넣었을 때 인간 앞에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연이 풍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이제 불도저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기계로 황야를 개척하고,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울 수도 있다. 또 구불구불한 물줄기를 곧게 고쳐서 흐름을 바꿀 수조차 있다. 옛날 그토록 두려워하던 삼림도 맹수도 이제는 인간의 적은 아니다. 코뿔소와 표범, 사자, 고릴라 등을 보라. 그토록 인간

이 두려워하던 이 동물들은 지금은 인간에게 보호를 받아, 겨우 지구 위의 한 구석에서 멸망직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 않는가.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다른 것이다.

인간은 지금 자기들의 지혜로 만들어 낸 것에 의해, 스스로 피해를 입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대한 적도 없는 큰 적, 그것은 인간이 다른 적과 대결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었던 기술 자체인 것이다. 공해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 인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살인무기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국립공원을 정하고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각지에 설정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단순히 산과 호수와 강 등의 자연 역의 녹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대 도시 주변과 새로운 산업 용지 부근에서도, 대기와 물의 오염방지 대책으로서 시민이 건전하게 생활 할 수 있을 만한 녹지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의 어디가 잘못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 이 질문은 즉, 자연에 대한 새로운 도덕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면, 형클어진 환경에 주의가 돌려진다. 폐유가 덮인 바닷가, 생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호흡할 수 없는 대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에까지 번져있다. 우리는 더러운 도시를 싫어한다. 도시를 건설했을 때 얼마나 거만하게 자연을 도시 바깥으로 밀어내어 버렸을까 하는 후회를 지금은 더욱 더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 환경의 교육을 통해 온 세계의 내일의 시민은 확고한 환경 도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관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동변혁의 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단계로부터 조국애, 가족에 대한 의무, 사회적인 책임과 같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한다.

행동의 변혁을 더욱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간의 독특한 생각하는 능력과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건설적인

기술로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몹시 해쳐 온 자연 환경의 회복과 보전이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을 내일을 향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세거나 썰 수 있는 것만을, 과학과 생활과 사상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것 같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시와 교통기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산업 시설 등의 편리한 인공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지구 위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박테리아와 곰팡이 등이 미생물과 같은 온갖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고 하면서, 직접 보이지 않는 실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서 다채로운 생물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생활의 터전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참으면서 삶은 것과도 같이 생물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물 사회를 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녹색 식물은 생산자이며, 지구 위의 왕자같이 착각하여 거드럭거리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녹색식물의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녹색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을 먹이나 보금자리로 삼으며 식물이 배출한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은 식물이나, 좋게 말하면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동물의 배설물과 시체를 분해하여 녹색의 생산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학적으로는 인간도 이와 같은 생태계의 구성자이며, 생물 사회의 일원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 공동체라고도 불리는 이 생물 사회는 그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대지, 대기, 흙, 물 등의 자연 환경과 굳게 결합되어 있다. 많은 현대인은 그만 이것을 잊고 있었다. 현재, 공해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모든 생물의 생존 기반인 개미와 물과 흙이 오염되고, 자연 환경은 황폐해져 있다.

생태계의 주역인 식물과 동물, 흙이나 물속의 생물까지 죽여 버리는 것 같은 자연 파괴가, 현재 여기저기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얼마나 생활이 편리하고 풍족해지건, 우리는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우리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공연히 떠드는 것만으로는 자연보호도 환경의 보전도 곤란하다, 먼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를 볼 줄 아는 생태학자의 눈을 가지고 지구 위에 30 수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쌓아 올려 온 생물 사회의 균형과 생물 사회와 그 생존 환경과의 온갖 연관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틀림없이 살기 위해 우리는 자연이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와 자연과의 약속이다.



제25회 인제서회임서전

2021년 5월 28일(금)~ 30일(일)

인제문화원 전시실(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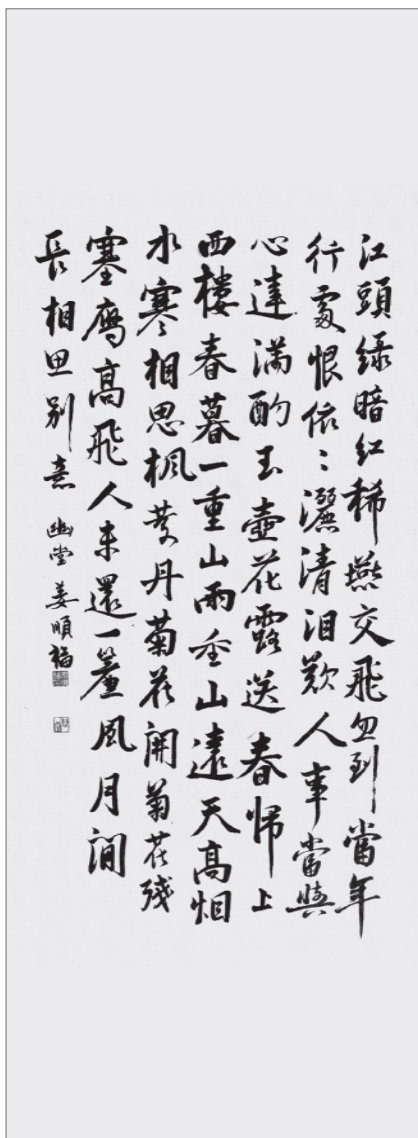
출품자 명단

강순복	고현숙	권옥자	김옥남	김옥화	김인중
김희수	문근태	박민자	박정옥	사하정	서경숙
심종기	원연화	유영희	유지영	이나경	이득자
이명재	이상오	임규현	전영옥	정숙자	조현태
최옥매	최은희	한길용	한순옥	한주림	홍연숙
황청호	서성호	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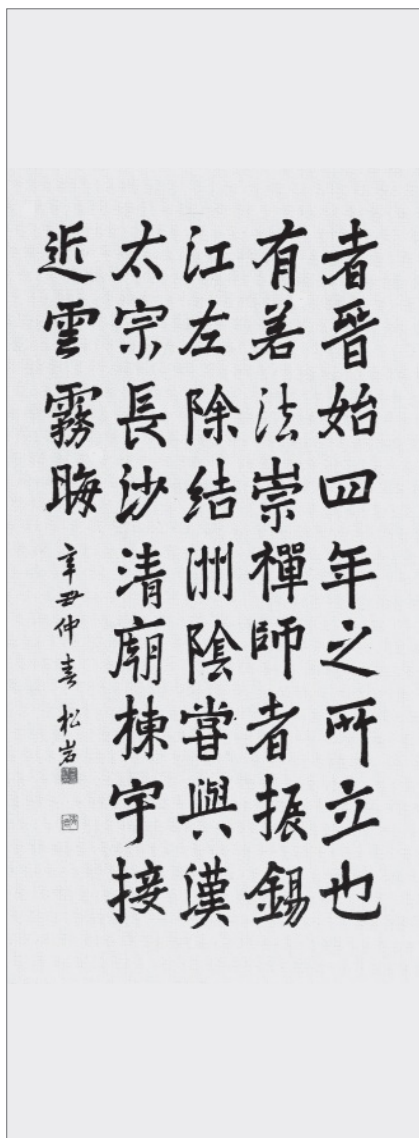
(이상 33명)

제 6 장

임서전



幽堂 강순복



松岩 김희수

出階卷上呈那所應推古曰古
 之善者未懂魏有鍾張之說其末
 二王之妙王羲之云凡為法者鍾張
 以爲師仲子作不之觀可以鍾張以爲
 師仲子作不之觀云漢而善就建之又
 云至出以之鍾張鍾張行或行之云
 羊於富府以鍾張精題池水畫墨佩
 今宣人視之善其末必辛丑書松苑

太上有立德其次有立功是之謂不
 朽抑又聞之端撥者百寮之師長法
 侯王者人臣之極地今僕射擬不朽之
 功業當人臣之極地豈不以才爲安出
 功冠一時挫思明跋尾之師挽迴絕
 參猷之請故得身畫凌煙之閣名
 藏太室之廷辛丑位帖辛丑仲嘉松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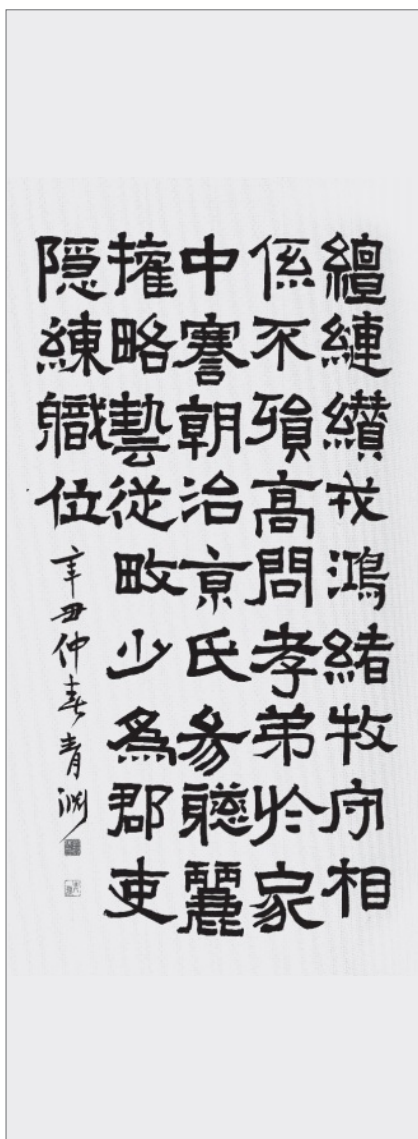
赤豹文狸女蘿薜帶山
祇見於法眼竇后依於
佛光玉請舊居特為新
寺禪師洎翌日弘忍謀
木象表之

辛丑仲夏 三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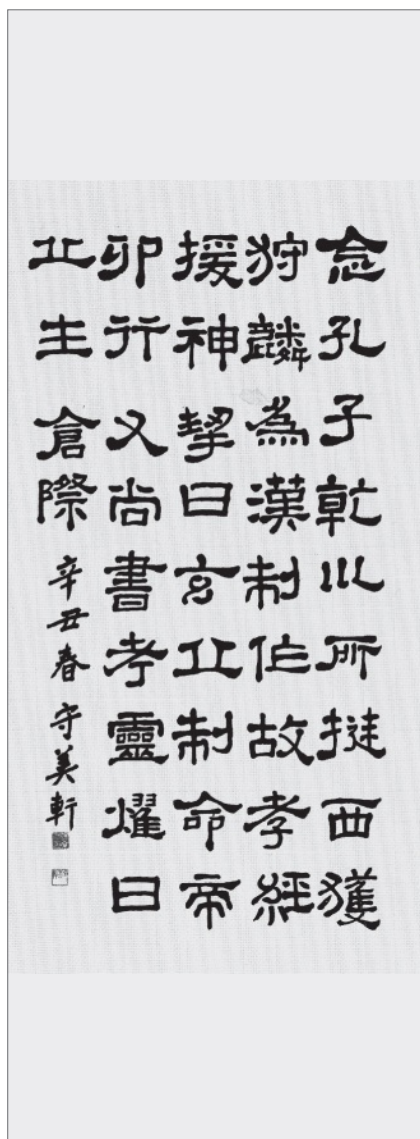
明詔行矣水臬有制丘
壚盡平太康二載有若
法導禪師莫知何許人
也默受智印深入證源
不壞外緣

辛丑仲夏 三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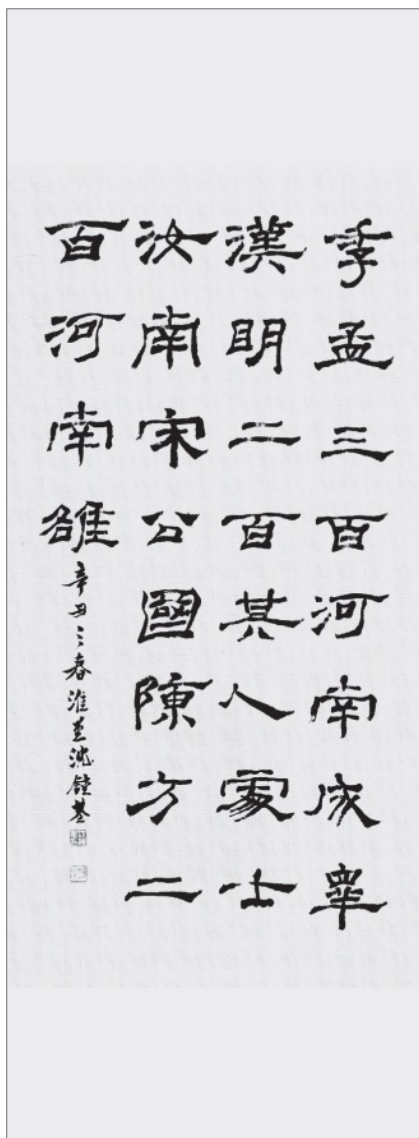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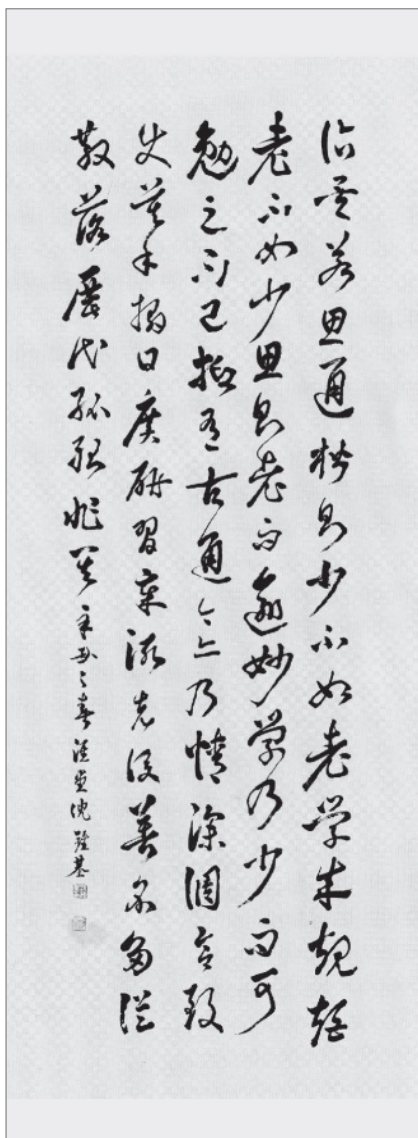
三明 김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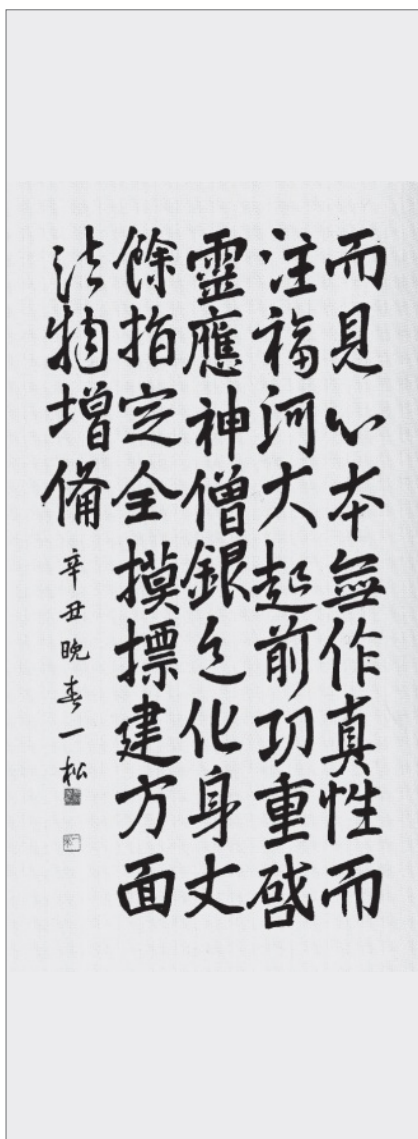
清淵 사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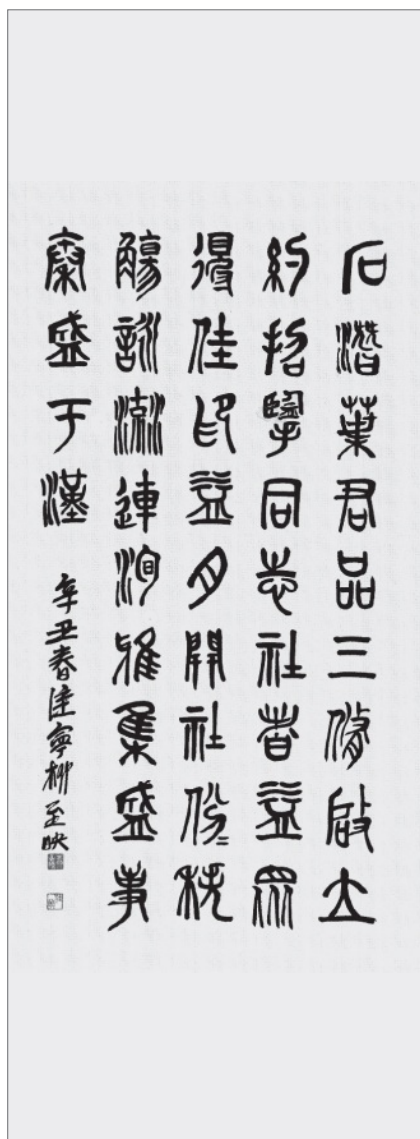
守美軒 서경숙



淮堂 沈宗基



一松 원연화



佳寧 유지영

葉清高煥乎篇牘矣周宣
時仲詩人詠其孝友光絹
姬中與是賴晉大夫張先
春秋嘉其聲績漢初趙景
王張耳浮沉秦

辛丑仲春翠園

家錢給大酒宜他如故事臣雖老愚誠
惶恐頓首死罪稽颡聞制曰可元嘉三
月廿七日王寅奏碓陽宮司徒公河南字
季高空蜀郡成都意伯丙子稱下魯相承

乙丑歲暮翠園李卿

翠園 이나경

酬對僕射恃貴張目見九介
象之中不欲顯過今去興道會
還尔遂非再獨八座尚書茲令便
寧下座州縣軍城之禮心恐未始朝
廷公燕之宜不應為此僕射意只應
為尚書之僕射 辛丑春 德溪

鑿山累支采黃金
憊臣泥翻洞飢渴
想見潛穴齊麻枵
澳翁光跼動而今

桃源園詩 辛丑仲春 德溪

德溪 이명재

夫天之道也東仁而首西
義而成故清泰所居指於
成事者已地之德也川浮
而動岳鎮而安故者閼所
臨取於安定者已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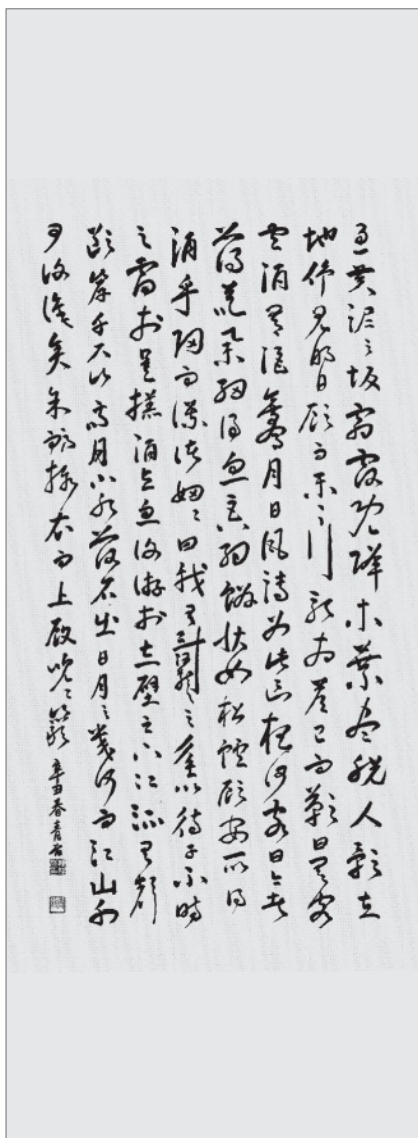
昭月

昭月 최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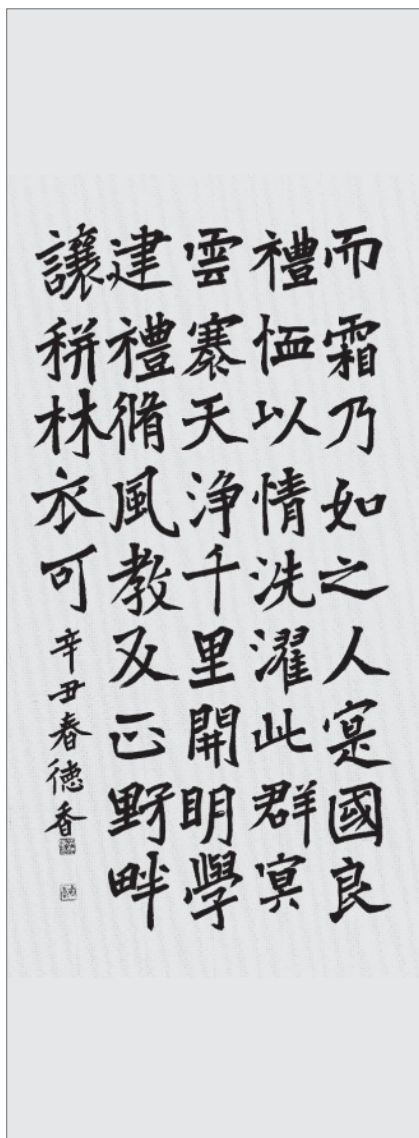
春時以春風入茅堂以出拂
榮榮采采所宜新所宜新
惟似人滿桂未寒如近心拂
清字揮清字揮清字揮清
其清字揮清字揮清字揮
挽清字揮清字揮清字揮
王仲梅書

王仲梅書

一珉 한길용



靑谷 한주림



德香 홍연숙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단종후 신변평을하사량변이후

신축년 원월인한강지곡
 에서쓰다 소담

소담 김옥남

천지이의분한후에산천이형겨치니산곤룬지제이모뉴동회지조종이화
 곤룬산일지막에조천이형겨치니에의염치의관문물호중화외판말가
 강원도고성쌍에금산강이소사신니현하제이명만이오동국제이형승이화
 범기보살원력으로만니현봉호사신니비로봉이주봉이오유령사가명합이화
 중국에난는사라도한번보기원하든하물며조천사랑은못보고는글을손야
 춘삼월호시절에힘장을지후호야문점시지남어쳐쳐출유을점력지니
 뉴원형시귀경하고한양을도다르니상각산습문봉니화위로흔너나려
 동서리권을유막되니만세쌍기이안인가

신축년 윤월고현숙

은솔 고현숙

왕위에 거두며 제신을 불 받든 시잇스려 오랴를 받치며 한터의 통곡을 가
과 절을 다 티자와 제신이 모다 황근을 여탕 약으로 구드니 이윽고 웅왕이 형신
을 차려 좌우를 도라보와 왕과 인의 명되 불침을 여왕 원기를 이가 가와 시너
비로 두면 장인도 불을 지고 리오 정동은 나옴다 말근 살가 충성심을 다하 여티자
를 섬겨 아진 일을 호종을 만히 전하고 만과 인이 비극기가 다르니 같은 줄다
정동마음에 라인을 잊지아니로 잔티과 인에 심의 부락한 말을 저바라지 말노
흔니 제신이 일시에 체음토스하 여명을 받거날 토라 자에 손을 잡고 우체와
너는 치크한 인을 기쁘고 노닐을 안이호평사를 인의 두근구게 하 여원왕이 읊게 하라

화설네나안반구강의을 만드려사를이불되런가니 살을 벌외 정음은
종저가스니 연산가영원히그를노하보라피고인이는방의로드러너오든영음이되
을가히쳐를와나가의키후하피성지를만드하흔저로극을려한복만
피거하마영제와외쳐와정가나나방은마음호를정음은이정외회정
적이라그가이방은말을해피영만비복마음히바다우하노도살을적히지모의
쳐런마음이불가스니마회해정음라니구영정음은가신이권을잡아
영이불노여표마음사마음비회비로정음마음의조영호사영마음의이가아니
백유이불라영고정음아나사마음은이로정음

미산 박민자

諸將士오리시니軍鞠手
 九達都人인노라
 者一秦民은기시니
 武德은有姓을救하
 武德은有姓을救하

신라국왕이
 세서쓰나
 휘원이나정

이의은...
 九達都人인노라
 者一秦民은기시니
 武德은有姓을救하
 武德은有姓을救하

송은 유명희

翠園 이나경

신원정월의월이 화인월은 소설월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푸거과아인월이 화인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처리어드러치월을 화인월과 안니네월의 청히 벗어남을 막게 하소서
 월월의 화인월이 화인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지스지월의 벗어남을 막게 하소서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화인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너를 아저을 못지어스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화인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신원정월 조현태



경원 조현태

어시의소심인부부의만린천행이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미천창이 제제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주남양문하나동화탄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집의도라가달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국가의대보나시나하위공이사라다하더라군평이공공의말씀이나
 매유연이되사하나다다하미입다라소공이전어하야날이저므리시니
 제제월이 화인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화인월이 된달과 다르나 나그니네 처지인 어스린 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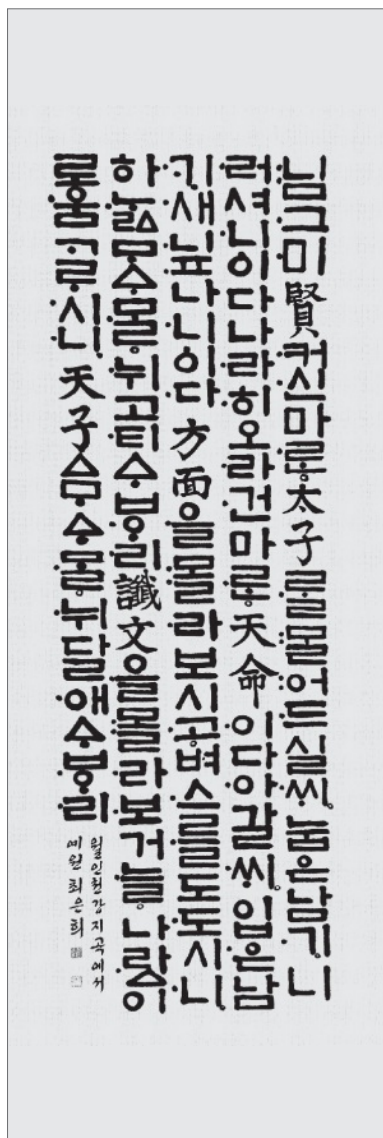
신원정월 정숙자



송헌 정숙자



수원 최옥매



예원 최은희

聖子革命에帝祐를보
 수.부니.보야.미가.칠.그.령.즐.갓.가.재.연.조.니.聖孫將興.에
 嘉祥이.몬.제.시.니.太子를.하.늘.히.글.히.샤.兄.그.브.디.일.어
 시.늘.聖孫을.내.시.니.이.다.卽.子.를.하.늘.히.글.히.샤.帝命이
 나.리.어.시.늘.聖子를.내.시.니.이.다

이천이십일년 화창함 봉봉을 온비여령가
 예서 가려쓰다 덕광 함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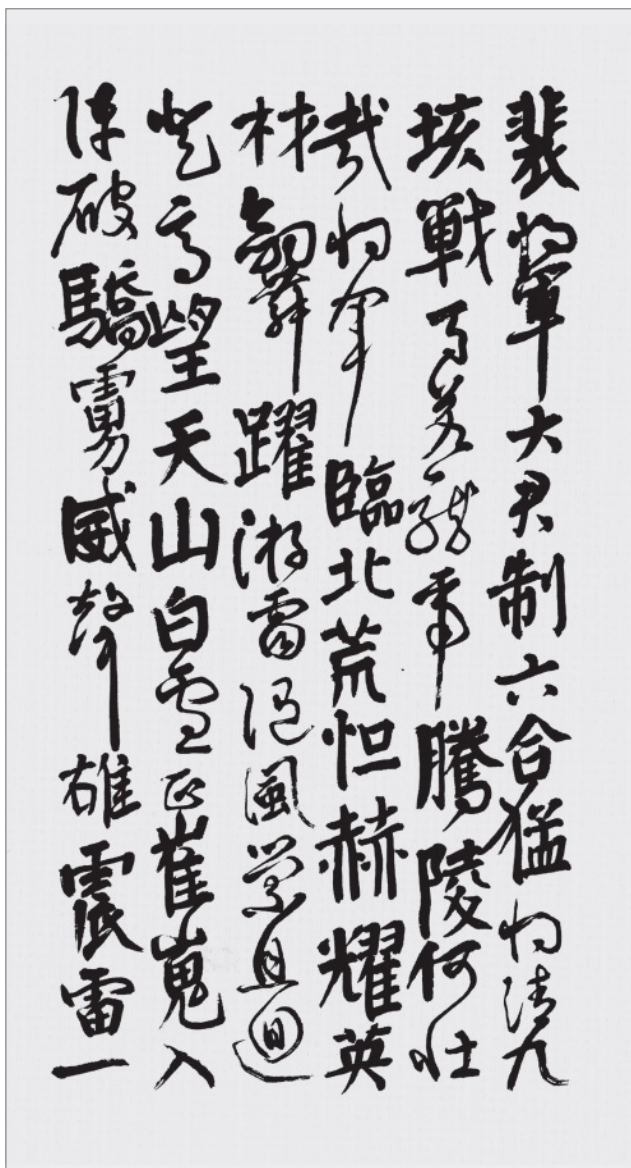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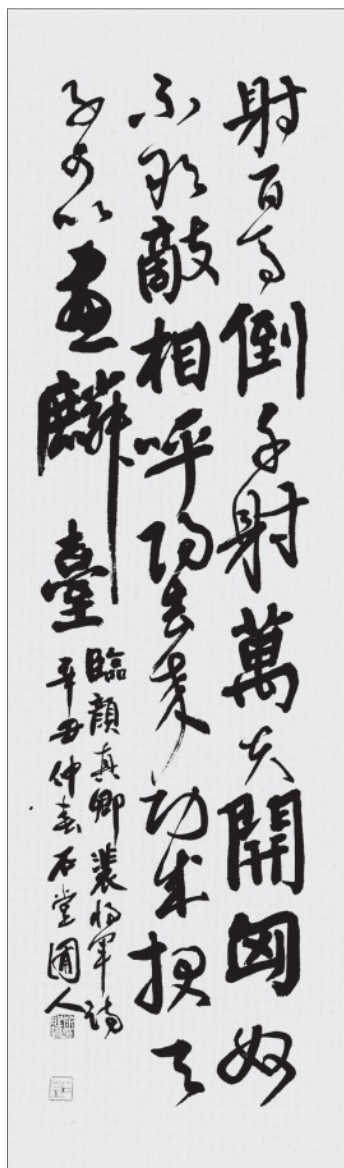
덕광 함청호

聖子革命에帝祐를보
 수.부니.보야.미가.칠.그.령.즐.갓.가.재.연.조.니.聖孫將興.에
 嘉祥이.몬.제.시.니.太子를.하.늘.히.글.히.샤.兄.그.브.디.일.어
 시.늘.聖孫을.내.시.니.이.다.卽.子.를.하.늘.히.글.히.샤.帝命이
 나.리.어.시.늘.聖子를.내.시.니.이.다

신유년 원년 함가 지공
 예서 쓰다 예린

예린 한순옥

지도강사



석당 서성호

지도강사

현상장민하시미유물유착모로더니호소한우탕나오시미삼강오륜팔거워하이로노고
 밭은이호차해로다여와해상사랑터라이비말삼드러보소불행은다이너뭇여자가
 되여나서글을갓치키이질너오륙해자라나니부모은덕여현지오직주도비별을다
 할기예배싸기와월하의수놓키오월하의수놓키는항아수법적살고고여공을
 비여씨니착여애수시로다열여현조정원호심해에비섯시니행동거지차산법월
 휘안이창찬하며글의옥사서여씨니기한인덜어이아리만화방조화월하의춘적노
 구경하고준풍명월녹수중의월석도구경하고해시부남조흔씨의상육도던져
 보고차랑에서비달파투호도하여보고사창의비쳐안자쳐차도하여보고진한별미차담
 잘지이지기까니십만엄쳐못다먹고년광은신음워라 신숙년분부친지가에서가려쓰다 고은김향

하루잇을지나가고 한달의도쳐튼날이 미물드듯드라가고 이달쳐달지나가고 일년의도열두달이 번리갓치지나간다
 새로지자삼파피고 푸리우조흔싸난다 가고오년판현사시 거워라쳐머물호나 장현소살을드려 저은리밧밧여두며
 선친부례를우여 그물달을보쳐라 해월은여두려 물로르듯슈이가고 신성은유한려여 밭넌이한섬이로다
 녀녀현지부친몸이 모창하지일육이라 이슬아츨버쳐지듯사현아관등불은듯 일편정순거친부담 밭물이적막부쳐시니
 중드려다여보며 고향이라드라올가 우은의지던히든 제정공이우려있고 옥문음살은목표의 땃살군이눈물진다
 전시향의최색선은 동부상갈의가고 한무제승노만은 연적은과세이로다 심천부귀장판이요 사후고혼은더지면
 만승현노도이러커든 팔부처상더가름가 연부여가하여슬피 처칠노릇다못하고 밭수궁녀란사관들 추상박판속월읍다
 천지음양성기설계 삼강오상까지시고 신성이라삼계일제 오현형과라나시니 군신부조부령제 하날이라니신은과
 노관우양문무유공 광명주조부은승현 승인심정발쳐라 오월은로잡을짓코 인의예지질을습어 오른살은곳게하고
 그른일은러지마자 천문드년이린아희 부모사랑다알거든 하물며조관인성이 이목구비남과가고 오장육부갓주려나
 부모은덕모를호나 밤니박피부미하던 증조로의표형이요 승신부삼간군려던 용방비간중월이라 삼디여빈경년부년
 각결부귀화락이요 명성동상동금찬은 강공제제우리로다 문장출어근궁려니 주경나독심을쓰라 신숙분은김향

고운 김향

■ 임원현황

직명	성명	연락처	직명	성명	연락처
원 장	이만철	010-2850-7005	이사	염종규	010-9109-1136
부원장	김남구	010-7173-1624	이사	유영미	010-9420-6009
부원장	엄윤순	010-5373-1238	이사	이강희	010-6376-2879
이사	강순복	010-6382-4879	이사	이영자	010-5370-5560
이사	고재옥	010-5364-7660	이사	이용호	010-5367-4354
이사	김연화	010-9028-2747	이사	정순자	010-8997-3412
이사	김재남	010-7200-7586	이사	정옥수	010-4255-3959
이사	김종길	010-6373-6243	이사	정재환	010-5308-4404
이사	김현래	010-6388-8658	이사	최덕용	010-9114-7568
이사	목병후	010-5228-1309	이사	최영식	010-4841-5355
이사	박수홍	010-3474-5156	이사	한경원	010-5367-0845
이사	방선수	010-3679-0879	이사	허계홍	010-6377-6565
이사	손흥기	010-5364-8118	이사	홍방래	010-3453-4414
이사	심영배	010-5361-6238	감사	이춘식	010-3702-6024
이사	심종기	010-3044-3088	감사	정희은	010-5374-3032

■ 직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국장	백창현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과 장	이혜란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팀 장	이완기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박홍근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김진혜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관 리 인	백설애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37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 마. 테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37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인제문화원

T: 033-461-6678, F: 033-461-0220, E-mail: inje6678@kccf.or.kr

인제문화

제36집

인쇄 2021년 12월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이만철

편집인 백창현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산책

이 책은 인제군청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

